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444-01

결과보고서

UN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의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참여방안 연구

연구기관



FAO 한국협회
Korea FAO Association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UN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참여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연구기관 : FAO 한국협회

연구책임 : 조윤경

연구원 : 김현정

연구보조 : 조정민

요약

■ 연구 목적

- 이 보고서는 2021년 9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2년간 세계 각국과 국제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건강하고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이행한 노력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첫 번째 성과점검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추진된 국내 대응 준비작업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으로, 향후 2030년까지 계속될 SDGs 달성을 향한 전 세계적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정책 대응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연구 결과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이 요원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UN 사무총장은 2021년 9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개최한바 있음.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UN 사무총장의 선언문에서 격년 주기로 진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2023년 7월 첫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됨
- 우리나라는 성과점검회의에 대한 국내 대응을 준비하기 위하여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및 유관 국제기구의 푸드시스템 관련 활동 동향 모니터링, 국가경로 실적 점검, 조정허브 개최 다이얼로그 등 국제회의 논의 동향 파악, 우리나라가 가입 예정인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활동 파악 및 우리나라 기여방안 모색, 성과점검회의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였음
-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경로 수립 및 이행 과정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조정하는 한편 성과점검회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보고서, UN 사무총장 보고서, 정부대표단 안내사항 및 참가자 인포노트 등 유용한 자료를 UNFSS+2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하고, 조정허브 국장의 회의 준비에 관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들이 2023년 성과점검회의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함
- 또한,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는 2023년 2~7월 지역회의, 글로벌 컨퍼런스(4.24~27), 그리고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지원’(3.22),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참여’(4.12), ‘회복력 구축’(5.3), ‘공동 SDG 기금의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5.17), ‘국가 컨비너와의 지역별 접점’(5.2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계획 - 과학, 기술, 혁신’(6.7), ‘젠더 주류화’(6.21), ‘국가 컨비너와의 글로벌 접점’(7.5)

등을 주제로 한 다이얼로그를 총 8회 주최함으로써 각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였음

- FAO, WFP, WTO 등 유관기구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과 무역의 역할, 농식품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생물다양성 및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인 농식품시스템, 더 나은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행동, 세계 식량 및 영양안보 위기에 대한 조치, 학교급식과 영양 등 푸드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체에서의 논의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음
- 우리나라는 2021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시 ‘국가식량계획’을 국가경로로 제시한 이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2023-2027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경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외곡물공급망 확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품 공급과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SDG 2), 학교급식을 통해 보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며(SDG 4),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함(SDG 12). 또한, 기후적응형 재배기술 개발, 저탄소 농업 구조로의 전환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SDG 13), 총어획량제도 대상 확대와 IUU 어업 방지 관련 국제 협정 이행을 통해 해양자원을 보전하였으며(SDG 14), K-라이스벨트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식량원조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였음(SDG 17)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농지 감소 및 곡물 수입에 대한 의존이 식량공급 안정성에 대한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계속적 과제인 저탄소 농식품시스템 촉진 및 농업부문의 회복력 향상, 그리고 푸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자금조달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중 학교급식 실천연합과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에 대한 가입을 검토하고 있음.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학교급식 및 영양을 위한 연구컨소시엄, 지속가능한 자원조달 이니셔티브, 데이터 및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등 4개 주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차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연합의 주요 이니셔티브들과 태스크포스 및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에 동참하는 한편, 개도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단독 또는 타 회원국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과 소농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농업 등 우리나라의 강점분야에 대한 지식을 타 국가들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성과점검회의(UNFSS+2) 참여에 대한 대응은 그간 모니터링한 조정허브 및 유관기구의 활동 동향, 조정허브 주최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에서 발표한 공식 프로그램, UNFSS+2 정부대표단 안내사항 등을 토대로 준비되었음. 3일간 7개 본회의 세션과 다수 리더십

다이얼로그 및 특별행사의 병행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본회의를 위주로 참석하기로 하고 조정허브에서 제시한 세션별 안내성 질문을 참고하여 발언을 준비함

- 성과점검회의에서는 정상급 21명 및 장관급 125명 등 182개국 정부인사, 225개 비국가행위자,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 과감한 기후 행동, 과학·혁신 및 데이터 역량, 디지털화, 법적·제도적 인프라, 우호적 정책과 거버넌스, 청년·여성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이 강조됨. 또한, 폐회 시 UN 사무총장의 푸드시스템 전환 가속화를 위한 행동촉구서가 발표됨
- 우리나라는 7월 25일 오전 진행된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 성공, 도전과제 및 향후 방향’ 본회의 세션에 대한 발언문 제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로인 국가식량계획 이행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및 공적개발원조 확대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
- 금번 성과점검회의의 대응 과정에서 푸드시스템 전환과 관련하여 각 국가들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 및 교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경로 이행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마련됨. 차기 성과점검회의(UNFSS+4)가 2년 후인 2025년 개최될 예정인 바, 국가식량계획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계획과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실천연합에서의 활발한 참여, 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기회도 지속 발굴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및 유관기구 활동 동향 | 4

- 1. 조정허브의 푸드시스템 관련 주요 활동 동향 4
- 2. 유관기구의 푸드시스템 관련 주요 논의 동향 10

제3장 우리나라 국가경로 실적 점검 | 25

- 1. 우리나라 국가경로 이행현황 25
- 2. SDGs 달성과정에서의 모범사례 및 애로사항 등 28

제4장 조정허브 개최 국제회의의 결과 | 31

- 1. 회의 일정 31
- 2. 회의 결과 (※회의별 세부 결과는 부록 참고) 31

제5장 우리나라 가입 실천연합 주요 활동 모니터링 및 역할 제안 | 41

- 1. 학교급식 실천연합 41
- 2.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 45

제6장 UN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 대응전략 및 결과 | 49

- 1. 성과점검회의 대응전략 49
- 2. 성과점검회의 결과 51
- 제7장 종합 시사점 65

[별첨] 유엔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UNFSS+2) 한국 발언문 | 68

[부록] 조정허브 개최 국제회의 결과 | 71

부록 1.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지원’ 다이얼로그	72
부록 2.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	77
부록 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참여’ 다이얼로그	86
부록 4.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글로벌 컨퍼런스	90
부록 5. ‘회복력 구축’ 다이얼로그	116
부록 6. ‘공동 SDG 기금의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 다이얼로그	121
부록 7.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지역별 접점’ 다이얼로그	126
부록 8.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계획 - 과학, 기술, 혁신’ 다이얼로그	131
부록 9.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학습 : 젠더 주류화’ 다이얼로그	136
부록 10.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글로벌 접점’ 다이얼로그	140

[참고문헌] | 143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연합(UN)은 2015년 제70차 UN 총회 및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빈곤, 기아, 교육 등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등 범지구적인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2030년까지 SDGs 달성이 요원해짐에 따라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UN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1.9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FSS)가 개최됨
 -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 국가 정상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며, 193개국에서 3만7천명의 대표단이 등록하고 5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등 많은 행위자들을 관여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푸드시스템을 둘러싼 정치적 관심을 제고함
 - 정상회의는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대 실천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국내·독립 논의를 추진하고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5대 실천분야

- ① 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 ② 자연기반 해결책 증진
- ③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권한이 부여된 공동체 진전
- ④ 취약점,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 ⑤ 이행수단 가속화

- 148개 국가에서 국내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중 103개국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경로(national pathways)를 제출함
-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UN의 기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21년 3월 30일 제1차 논의를 시작으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을 중심으로 총 5차례의 국내논의를 개최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2021년 9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①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하는 ‘국가식량계획’을 국가경로로 발표함
- 한편,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사전회의부터 본회의까지 5대 실천분야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다루는 실천연합이 형성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자국의 관심사에 따라 이니셔티브에 동참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23년 중 학교급식 실천연합(사무국 : WFP),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사무국 : USDA) 등에 가입 신청 예정
- 2021년 9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폐회식에서 회원국들의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촉구하는 UN 사무총장의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선언문에서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이후 격년 주기로 진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점검회의(STM, Stocktaking Moment)를 개최기로 함
- 2023년 7월 24~26일, 2021년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2년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이 푸드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달성한 모범사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첫 성과점검회의가 개최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 대응을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해짐
 - 이에 따라, UN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에 앞서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 본 연구는 2023년 UN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를 위해,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위해 FAO 내 설치됨)와 유관기구의 주요 활동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의제를 파악하여 국내 대응 방안 수립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주요 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활동 동향 모니터링
 - 조정허브의 푸드시스템 관련 주요 활동(논의) 동향
 - 유관 국제기구의 푸드시스템 관련 주요 활동(논의) 동향
- 우리나라 국가경로 실적 점검
 - 우리나라 국가경로 이행 현황 점검

- SDGs 달성 맥락에서의 모범사례 및 애로사항 분석

○ **조정허브 개최 국제회의 결과**

- 다이얼로그(수시), 글로벌 컨퍼런스('23.4월), 성과점검회의('23.7월) 등 UN 푸드시스템 관련 실무회의에 참여하여 논의 동향 파악 및 회의 결과 정리

○ **우리나라가 가입(예정) 실천연합 주요 활동 모니터링 및 역할 제안**

- 학교급식 실천연합
-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

○ **UN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 대응**

-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 국가경로 실적 점검 등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회의 대응전략 제안
- 2023년 성과점검회의 결과

■ **연구 방법**

○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의 브리핑 및 주요 논의동향 검토**

- 조정허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보도자료, 문헌 등을 수집·정리

○ **IFAD, WFP 등 국제기구 및 FAO 각종 회의에서의 푸드시스템 관련 논의동향 파악**

- 유관 국제기구의 보도자료 등 상시 모니터링해 주요 내용 정리

○ **우리나라 가입 실천연합의 주요 활동 검토**

- 우리나라가 가입 예정인 학교급식 실천연합 및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의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주요 활동 내용 파악 및 정리

○ **UN 푸드시스템 관련 실무회의 참석·대응**

- 수시 개최되는 다이얼로그, 글로벌 컨퍼런스('23.4월), 성과점검회의('23.7월) 등에 온라인 또는 현장 참석하여 논의 동향 파악 및 결과 정리

○ **발주처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 추진**

- 농식품부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경로 이행 현황을 검토하여 UN SDGs 달성에서의 모범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분석·정리

제2장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및 유관기구 활동 동향

1. 조정허브의 푸드시스템 관련 주요 활동 동향

■ 조정허브 개요

- 목 적 :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국가들이 푸드시스템 전환 국가경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등 2021년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신설됨
- 거버넌스 : FAO가 UN 시스템을 대표하여 주관하고 있음
 - 허브는 법적 성격이 없으므로 FAO 절차규정에 따르며, FAO 지속가능발전목표(SDG)실의 관리 하에 운영됨
 - 허브의 전략적 사업, 의사결정 및 참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개발조정실(UN DCO)의 수장 및 UN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구성된 감독운영그룹이 주도하며, 이 그룹은 허브의 업무에 대해 사무총장실(EOSG) 및 유엔지속가능발전그룹(UNSDG)과 협력함
- 구 조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개발조정실(UN DCO),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기구, 기금, 프로그램이 직원 및 재원을 지원함
- 역 할 : 국가들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경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기술 및 정책 지원의 조정을 통해 푸드시스템 국내논의와 국가경로를 지속적으로 지원

■ 2022-23년 조정허브 사업계획

- 비 전 : 2030 의제의 가속화를 위해 SDGs 기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행동을 촉진 및 지원
- 미 션 :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국의 약속을 효과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UN 시스템의 역량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를 지원
 - 이를 위해 허브는 2030 의제에 대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기여와 관련하여 UN 시스템 내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것

- 허브는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강력한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 연합 및 기타 지원 행위자들을 한데 모으고, 역량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지식과 전문성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정 역할을 맡게 될 것

○ 사업계획 설계요소

- 사업계획은 가시성,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영향력, 포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됨
- 사업계획은 다음 투입물(input)과 과정을 고려하여 개발됨
 - UN 사무총장의 의장 요약 및 행동 선언문
 - 감독운영그룹(FAO, WFP, IFAD, UN DCO 수장 및 UN 태스크포스 책임자, UN 사무부총장 참여)의 전략적 지침
 - 허브를 지원하는 UN 기구들과의 협의
 - 2022년 1월/2월에 진행된 푸드시스템 국가 컨비너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수요 분석 설문조사

○ 주요 기능

- 1) 국가경로 이행 촉진
- 2) 전략적 사고 리더십 강화
- 3) 지원 생태계의 참여 촉진
- 4) 이행수단 활용
- 5) 푸드시스템 접근법에 대한 소통 및 옹호
- 6) 2023년 성과점검회의 준비

■ 주요 활동동향

- 과학자문위원회 발족('22.11.8)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학-정책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기 위해 33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과학자문그룹을 설립함
- FAO 134차 프로그램 위원회 및 194차 재정위원회 합동회의 참여('22.11.9)
 - 2022년 5월 이후 조정허브 활동사항 및 2023년 활동계획 공유
- 조정허브 Stefanos Fotiou 국장, 브뤼셀 방문해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정허브의 활동과 2023년 성과점검회의 관련 브리핑('22.11.24~25)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과학그룹의 신규 간행물 발간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학 및 혁신”(‘23.1.6)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조달 의제를 주도하는 IFAD 및 세계은행(WB),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최초의 국가예산 도구 공동 개발 추진(‘23.1.12)

- 이 도구는 정부, 공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현명한 투자 결정에 필요한 많은 증거를 제공

- 푸드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가?
- 푸드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자금이 투입되는가?
- 자금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격차와 필요는 무엇인가?

○ 푸드시스템 국가 컨비너 및 FAO 사무총장 간 영상 다이얼로그(‘23.1.12)

- 다이얼로그에는 각국 농업부 장관과 고위급 관료 등 200여명이 참여

-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고 식품 손실 및 낭비를 감축하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농식품시스템 전환 경로를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관한 각국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공유

○ 이탈리아, SDGs와 2030 의제 달성기한의 중간 시점에서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을 향한 진전을 점검하기 위한 무대 마련(‘23.2.3)

- UN 사무총장을 대신해 UN 사무부총장과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2023년 UN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가 2023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함

○ 성과점검회의(UNFSS+2) 준비를 위한 실천연합과의 회의(‘23.2.20)

○ 상주 대표 및 옵서버를 위한 인포노트 공개(‘23.3.3)

○ 2023년 푸드시스템 솔루션 다이얼로그 일정 공개(‘23.3.9)

○ 5개 지역회의(‘23.2~4월), 글로벌 컨퍼런스(‘23.4.24~27) 개최

○ 5개 지역회의 종합 보고서 공개(‘23.6.21)

○ 성과점검회의(UNFSS+2) 정부대표단 안내사항 및 참가자 인포노트 공개(‘23.6.23)

○ 성과점검회의(UNFSS+2)를 위한 이해관계자 보고서 공개(‘23.7.6)

○ 성과점검회의(UNFSS+2)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공개(‘23.7.24)

○ 성과점검회의(UNFSS+2) 개최(‘23.7.24~26)

■ 조정허브 발표 자료

1) 정부대표단을 위한 안내사항

☑ 성과점검회의(UNFSS+2) 참여방식

- 개최방식 : 대면행사
 - 현장 참석자들은 모든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 주최측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영상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장 참석이 불가능한 국가는 Virtual Campus를 통해 참석 가능
- 녹화영상(선택) : 현장 참석하지 못하는 각료는 짧은 녹화영상을 제출 가능
 - 이는 조정허브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본회의 송출 X)
 - ※ 영상을 제출코자 하는 국가는 7월 10일(월) 이전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Mr Khaled Eltaweel(Khaled.Eltaweel@fao.org), Ms Juana Giraldo Gonzalez(Juana.GiraldoGonzalez@fao.org)
- 통역 : 6개 UN 공용어(영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로 통역 제공

☑ 국가대표단 구성

- UN 사무총장이 상주대표를 통해 모든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초대장 사본은 Ms Michelle Seck(Michelle.Seck@fao.org)에게 요청 가능
 - ※ UN 사무총장의 초청에 따라 국가대표단은 "장관급"으로 기대하며, "대표단에 국가 컨비너(National Convener)를 포함"할 것을 요청
- 대표단 구성
 - 각 국가에서 규모와 구성을 결정하나, 국가원수 또는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국가 컨비너를 포함하길 기대함
 - FAO 상주대표, 통역/경호 담당관도 대표단에 포함 가능
 - ※ 한편, 다부문(농업, 기후환경, 보건, 영양, 경제, 금융, 기획) 및 다중이해관계자 대표단을 고려하길 독려함
- 대표단 등록 : FAO Members Gateway를 통해 6월 30일(금)까지 등록

☑ 프로그램 및 세션

- 공식 프로그램 : 1) 본회의, 2) 리더십 다이얼로그, 3) 특별행사
 - 1일차 고위급 개막세션 및 3개 고위급 본회의 세션, 2-3일차 4개 본회의 세션
 - 다수 리더십 다이얼로그, 특별행사 및 부대행사, 고위급 폐막세션 등
- 본회의 상호토론(interactive) 세션 준비
 - 본회의 상호토론 세션들은 국가 행위자 및 선정된 비국가행위자들이 국가경로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행동과 관련 성과, 도전과제, 향후 방향 등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7월 24일(월) 고위급 본회의 세션(High-Level Plenary Session)
 - 진행방식 : 국가/정부 수반 및 비국가행위자 지도자들의 패널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진행
 - 각 세션은 90분씩 진행되며,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구성
- 》 7월 25일(화) 및 26일(수) 본회의 세션(Plenary Session)
 - 참석자들은 4개 세션에서 자발적으로 다음에 대한 관점을 공유
 - 1) 국가 차원의 푸드시스템 전환 진행상황, 모범사례, 솔루션, 가속화를 위한 기회, 지속적인 병목현상과 도전과제 식별
 - 2) 장기적 회복력 달성

- 3)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수단(Mol)” 활용
- 4)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과 SDGs 정상회의, COP28 및 기타 주요 회의와의 연계
- 7월 25일(화) 및 26일(수) 본회의 각 세션은 고위급 다중이해관계자 패널을 포함하며, 청중(floor)의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언 기회 제공
 - 모든 세션에서 국가대표단은 발언할 수 있음
 - ※ 발언 순서는 “선착순 요청”을 기본으로 하나, 국가/정부 수반 및 장관급 인사가 먼저 발언한 후 기타 수석대표가 발언하는 관례적인 방식이 적용됨
 - 준비된 “연설(statement)”이 아닌 각 세션 주제에 맞는 발언과 질문을 할 것을 기대함

※ 7월 25일~26일 본회의 상호토론 세션 발언 준비 시, 다음 질문을 고려

(Plenary 1)

-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귀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성공사례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 푸드시스템 전환의 진전을 방해하는 도전과제와 병목현상은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가속화하기 위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Plenary 2)

- 국가 푸드시스템 전환 경로/조치는 증가하는 충격과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적응했는가?
- 지금까지 경험한 성공, 도전과제, 병목현상에서 도출된, 2030년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요 행동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Plenary 3)

-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이행수단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귀국은 자금조달, 데이터 및 통계, 과학 및 혁신, 거버넌스 및 무역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귀국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할당, 수령 또는 기부한 재원에 대한 추정치가 있는가?

(Plenary 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속화를 위해 귀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향후 2년간 전환을 위한 주요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대규모 행동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리더십 다이얼로그

- 정부 및 민간부문 고위급 참석자들이 90분간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세부분야, 2030 의제와 SDGs와의 연계에 대해 상호교류
- 고위급 패널토론 이후 Q&A 세션 진행

• 특별행사

- 푸드시스템 전환 및 SDGs 달성 가속화를 위한 주요 요소 및 잠재적 촉진제로 식별된 “기회의 영역”에 대해 60분 간 논의
- 특별행사의 형식은 패널토론, Q&A, 라운드테이블 또는 상호대화형 세션 등 유연하게 진행

2) UNFSS+2 이후 진전에 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 도입

- 2021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FSS)는 식품의 생산, 저장, 소비, 폐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푸드시스템 전환(FST)'이 승수효과를 창출해 다른 시스템과 SDG 전반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푸드시스템을 재구상 및 재설계함으로써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진전도 도모할 수 있음
- 2021년 이후 122개국 이 국가경로를 채택, 155개국 이 국가 컨비너를 임명해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줌
 - 101개국이 자발적 국가 진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UNFSS+2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참여도와 관심을 나타냄. 이들 보고서는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을 향한 진전상황과 노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 또한, UN 시스템과 푸드시스템 지원생태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 주요 분석결과

- 각국 정부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지표는 다음과 같음:
 - 70% 이상의 국가가 국가경로의 FST 비전을 **국가 전략 및/또는 부문별 계획에 통합**함
 - 1/4의 국가에서 (식량권, 식품 손실 및 폐기, 학교급식, 푸드시스템 종사자를 위한 노동법 적용 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푸드시스템 문제가 국가 법률과 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함
 - **60%** 이상의 국가가 국가경로에 대한 **이행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함
 - 약 2/3가 국가 푸드시스템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 또는 강화했다고 보고함. **60%**는 푸드시스템 접근법을 고려하도록 **거버넌스 절차를 조정**함
 - 약 **50%**는 국가 및 하위 국가수준에서의 이행과 연계된 **푸드시스템 대화를 지속**하며 국가경로를 개선하고 있음
 - **41%**의 국가에서 재정격차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38%는 공공 및 민간 자원 동원을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함
- UN 시스템은 각국의 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즉각적 결과물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지속하기 위해 설립됨. 설립 이후 매월 글로벌 푸드시스템 솔루션 다이얼로그, 분기별 지역 접점, 지역별 대면회의 등을 통해 국가 컨비너들과 소통하였음
 - 이는 국가별 기술·재정 지원 수요에 대한 세분화된 이해를 촉진하여, (UN 상주조정관(RC)의 주도 하에 기존 UN 체제를 활용하고 지원생태계를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에 맞춤형 다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UN 기구들은 푸드시스템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핵심 업무영역에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새로운 부서가 설립되고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글로벌 회의에서 푸드시스템을 우선순위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음
- UNFSS 실천연합은 UNFSS 후속조치를 강화시켰으며, 이들 중 다수가 모든 정상회의의 실천분야에서 변화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세계 수준에서, 실천연합은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 정책공간에 참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지역 수준에서, 실천연합은 국가경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식, 경험, 전문성 및 교훈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국가 수준에서, 실천연합은 국가경로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었음

- 100개국에서 실천연합은 ▲특정 정책선택을 위한 기술적 분석, 모델링 및 기타 방법 제공,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략과 투자계획 등 설계, ▲국가 수준에서의 대화와 역량강화를 촉진함

● 양호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존재함

- 많은 저소득국가는 노력을 조정하고 국가를 선순환 발전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장기적 재정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촉매자금이 부족함

- 기술적 역량은 국가 당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임. 특히 체계적인 변화를 주도할 자격을 갖춘 인력을 훈련 및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여성, 청년, 토착민이 현지 푸드시스템 솔루션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세계 인구의 많은 비유이 여전히 소외되고 충분히 인식되지 못함)

- 국가당국과 이해관계자들 간 사고방식 전환 및 신뢰 구축이 강화되어야 함. 모든 당사자가 새롭고 강화된 파트너십에 참여하여 상이한 관점을 조정하며 타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UNFSS+4 성과점검회의를 위해 다음 2년간 모두가 집중해야 할 주요 우선순위 분야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

- **정책**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수단임. 국가 정책은 푸드시스템을 활용하여 즉각적 및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과 지구의 웰빙에 기여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을 동원, 배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 촉매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 민간, 양허성 금융의 흐름을 분석, 이러한 금융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 전환(변화)은 이를 추진하는 **주체와 기관의 지식, 이해, 역량**만큼 견고해짐. 역량개발과 전문지식(과학, 혁신, 노하우, 연구, 혁신)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전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진제로서 더욱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지역협력과 커뮤니티**는 국가적 노력을 배가하고, 상황과 관련된 지식 공유를 가속화하며, 특히 무역과 관련된 초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더 늦게 전에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세계 및 국가적 정책논의, 약속 및 목표에 통합하여, SDGs 달성을 위한 집단적 역량을 강화해야 함

2. 유관기구의 푸드시스템 관련 주요 논의 동향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 농식품시스템 전환 위해서는 정책, 사고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1.12)

금일 Qu Dongyu FAO 사무총장, 식품시스템 국가대표(National Conveners)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이하 조정허브)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각국 농업부 장관 및 고위급 국가 공무원 등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Qu Dongyu 사무총장은 100개국 대표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의 대표들은 기아, 빈곤을 비롯해 식품 손실 및 낭비 감축,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국가 경로를 계획·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FAO 사무총장은 “현재 필요로 하는 야심차고 변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도적으로 정책, 사고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허브의 지원

1년 전 유엔은 FAO가 유엔 시스템을 대표해 주관하고,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개발조정실(UNDCO)에서 지원하는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를 발족했다. 조정허브의 주된 역할은 국가 농식품시스템 전환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FAO 사무총장은 “FAO와 파트너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와 같은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인 전문성과 전문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례 없는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국가 전환 계획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무총장은 2023년 7월에 식품시스템 현황점검(STM, Stocktaking Moment)이 이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금년도 개최 예정인 지역 단위의 준비회의를 거쳐 추진되는 본 점검은 2021년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에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된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TM의 결과는 2023년 9월 개최 예정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Qu Dongyu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과업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농식품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준비된 국가들

본 행사에서는 농식품시스템 전환 계획의 이행을 주도하는 수십 명의 국가 대표들과 담당자들이 2021년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우선순위 및 행동들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쟁, 기후변화는 물론 식량 및 농업 투입재의 제한적인 접근성 등 농식품시스템 전환 시 직면하는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나아가, 각국 대표들은 농식품시스템 정책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오염이라는 3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과 연계되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FAO 사무총장은 조정허브가 FAO의 지식, 정보 및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연계의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의 고위급 회의주간에 진행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는 “뉴욕에서 로마로”라는 문구와 함께 폐회한 바 있다.

FAO는 Hand-in-Hand 이니셔티브, 투자포럼, 1000 디지털 마을(1000 Digital Villages) 등 자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고 투자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역할

사무총장은 수십억 인구의 웰빙을 위해 식품시스템 국가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Qu Dongyu 사무총장은 “농식품시스템은 현재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까지 각종 요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기아인구가 증가하고, 불평등이 확대됐으며, 지난 수십 년간 이룬 진전을 위협에 빠

트렸다”라고 경고했다.

FAO 사무총장은 농식품시스템 전환은 국가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행동 중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농식품시스템이 수익을 창출하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동시에 충격에 대해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 혁신 및 기술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끝으로 FAO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농식품시스템을 위한 국가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국가적 주체성 및 국가대표의 리더십이 성공적인 농식품시스템 전환의 주된 요소”라고 설명하면서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가 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Transforming agrifood systems requires changing policies, mindsets, and business models
(<https://www.fao.org/newsroom/detail/transforming-agrifood-systems-requires-changing-policies-mindsets-and-business-models/en>)

2) FAO·IMF·WB·WFP·WTO 수장들, 공동 선언문 발표해(2.8)

Qu Dongyu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David Malpass 세계은행(WB) 총재, David Beasley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전 세계 식량 및 영양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튀르키예와 그 인접국인 시리아 국민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 5개 기구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재난의 규모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기구의 맨데이트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십 년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린 이후 맞이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식량불안 모두 증가하고 있다. 공급사슬 붕괴,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글로벌 식품시스템에 미증유의 충격을 안겨줬으며, 최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식량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다.

WFP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 3억4,900만명이 극심한 식량불안에 처해 있다.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지난 3년간 악화된 데 이어 현재도 증가 중이다. 글로벌 식량 공급량이 2022/2023년에 3년만의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됨에 따라 상기한 바와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에 대한 수요는 특히 FAO와 WFP가 기아 핫스팟(hunger hotspots)으로 분류한 24개국에서 심각히 높으며, 이들 국가 가운데 16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다. 식량가격과 비료가격 간 비율로 정의되는 비료가격적정성은 2007/2008년 식량 위기 이래 최저치에 놓여 있는데, 이는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소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이미 고가인 지역 식량가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작물인 쌀의 2022년 생산량 감소는 비축량 감소 전망과 맞물려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식량, 연료 및 비료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전 세계 국가들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 약 3,800억달러를 투입한

것을 포함해 10억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보호 조치에 7,100억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이 5,076억달러를 사회 보호 조치를 위해 지출한 데 반해, 저소득 국가들은 같은 명목으로 43억달러만을 지출했다.

식량 및 영양안보 위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긴급 조치들이 (i) '기아 핫스팟' 국가들을 구제하고, (ii) 무역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며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iii) 주의 깊은 목표 설정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유해 보조금을 개혁 및 재조정해야 한다. 국가들은 위기 대응 시, 단기적 긴급 개입 조치와 장기적 회복력 구축 노력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만 한다.

1. '기아 핫스팟' 국가 구제

우리 5개 기구는 정부 및 공여국들이 '기아 핫스팟' 국가 내 필요를 해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위기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 무역 활성화, 시장 기능 개선 및 민간 부문 역할 강화

국가들은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고 공공재 공급을 강화하며, 민간 부문이 식량안보 개선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우리 5개 기구는 국가들이 (i) 저소득 식량수입국 내 빈곤한 소비자들의 식량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출 규제와 같은 정책들을 지양하고, (ii) 식량 및 비료 가용성 개선을 위해 무역 활성화 조치를 지원하고, (iii)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무역 금융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iv)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충실히 따를 것을 재차 긴급히 촉구한다.

3. 주의 깊은 목표 설정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유해 보조금 개혁 및 재조정

국가들은 (i) 효율성, (ii) 비용 및 재정 지속가능성, (iii) 유연성, (iv) 행정적 복잡성, (v) 공정성, (vi) 강화된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등의 핵심적 측면을 고려해 일반적·보편적 보조금을 전 세계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위한 임시적이고 보다 더 목표가 잘 설정된 프로그램을 위해 개혁, 재조정해야 한다.

*출처: Joint Statement by the heads of FAO, IMF, World Bank, WFP and WTO

(<https://www.fao.org/newsroom/detail/joint-statement-by-the-heads-of-fao-imf-world-bank-wfp-and-wto/en>)

3) FAO-UNIDO, 글로벌 농식품시스템 전환 액셀러레이터(ASTA) 출범(3.6)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농식품시스템 전환 액셀러레이터(ASTA, Agrifood Systems Transformation Accelerator)를 공동 출범했다. 본 글로벌 프로그램은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공공-민간 투자를 창출해 최저개발국의 농식품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5차 UN 최저개발국 총회와 별개로 일요일에 진행된 Qu Dongyu FAO 사무총장, Gerd Mueller UNIDO 사무총장 간 양자 회담에서 발족됐다.

ASTA는 FAO와 UNIDO 간 신규 협력의 첫 번째 핵심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가치사슬, 시장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포괄적 금융 등의 개발을 통해 일부 세계 최대 빈곤국의 농식품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창출되도록 지원한다.

“농식품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논하려면 무엇보다 기후 위기, 농업 생산, 가치사슬 효율성, 포용성, 영양, 토지 이용 및 생물다양성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아우르는 전체적 관점이 필요하다. ASTA는 각국이 농식품시스템 전환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Qu 사무총장은 말했다.

“ASTA는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이러한 투자가 식품 가치사슬로 유입되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FAO와 UNIDO는 타고난 파트너 관계에 있다. 우리의 전문성과 노력은 상호 보완된다. 나는 FAO와의 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Mueller 사무총장은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

ASTA는 농식품시스템이 기후위기, 진행 중인 분쟁과 전쟁,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아래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출범한다. 이와 같은 도전과제의 해결은 신선한 접근법과 새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ASTA는 이를 위해 다음 4가지 방식을 행동에 옮긴다. 하나, 광범위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고, 둘, 기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 아닌 수혜국이 운전대를 잡게끔 하며, 셋, 보다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UN 기구가 힘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유엔 접근법(ONE UN approach)’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SDGs 지표 달성만을 목표로 삼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여러 병목현상이 종종 시급히 필요한 변화를 방해하고, 부처 간 및 공공-민간 부문 협력에 기반한 통합적 해결책이 필수적인 최저개발국에 적합하다. 결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광범위한 권고사항 및 전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ASTA 접근 방식은 2018년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태평양 및 남미 전역의 15개국에서 현장 테스트를 거쳤다. ASTA 모델의 효과가 입증된 예시는 수리남으로, 파인애플 가치사슬 전환을 목적으로 800만달러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200만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이 확보됐다. 향후 ASTA의 목표는 5년간 최소 3억달러의 민간 투자를 창출하는 것이다.

*출처: FAO and UNIDO launch global Agrifood Systems Transformation Accelerator (ASTA)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unido-launch-global-agrifood-systems-transformation-accelerator-asta-Doha-LDC5/en>)

4) G20 농업장관회의: FAO 사무총장, 농식품시스템은 생물다양성 및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6.16)

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금일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손실 및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시스템을 해결책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O 사무총장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각료급 회의에서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수준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 및 영양, 빈곤퇴치, 자연자원 보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여전히 8억2,800만명이 기아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31억명은 건강한 식이를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었던 점을 미루어보아 “위급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FAO 사무총장은 농식품시스템이 기후변화, 해충, 병원균 및 변화하는 생태학적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전 자원의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식량을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물을 공급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 Dongyu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농식품시스템이 해결책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는 상쇄효과(trade-offs)를 해소하고 생태계를 유지시키며, 토지 및 토양 품질을 개선하고 투입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기후변화와 연관된 극심한 기후에 대응하는 농업 시스템의 적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농업관행을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결책 강구

식량안보 및 생물다양성의 상호연관성은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인정되고 있다. 본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야심찬 경로를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23개의 목표는 농식품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농산물 전반을 포괄한다.

FAO 사무총장은 G20 농업장관회의의 참석한 각국 농업부 장관들에게 “환경 파괴, 사회적인 영향, 농업분야의 경제적 기회 등을 고려해 생물다양성 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FAO는 이미 농업분야 전반에서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을 통한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작물 및 가축 생산, 산림, 수산 및 양식 관행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FAO의 지원에는 수산 및 양식에 대한 생태계 접근법,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다양화 접근법, 통합해충관리 및 농생태학을 이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 도구 및 기타 규범적 또는 정책적 수단이 포함된다.

FAO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륙 및 해양의 생태계 훼손을 방지, 중단, 반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본회의 연설

FAO 사무총장은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여하면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세션에서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Qu Dongyu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식량 제공 노력이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도전과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도전과제들에는 ▲분쟁, ▲경기침체, ▲폭우, ▲태풍, 홍수, 가뭄 등 극심한 기후, ▲식량, 연료, 비료 가격 상승 등이 포함된다.

Qu Dongyu 사무총장은 “더욱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행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FAO가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전략과 과학혁신전략이라는 신규 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하며, 이들 전략을 이행하면서 제로헝거(Zero Hunger)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FAO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아종식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가는 동시에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C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Qu Dongyu 사무총장은 “1.5°C 목표와 제로헝거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FAO는 Hand-in-Hand 이니셔티브를 통한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G20 Agriculture Ministers: “Agrifood systems must be part of the solution to the biodiversity and climate crises,” FAO Director-General says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g20-agriculture-ministers-agrifood-systems-biodiversity-and-climate-crises/en>)

5) FAO, UNFSS+2 폐회 자리에서 각국의 농식품시스템 전환 가속화에 대한 지원 의지 거듭 밝혀(7.26)

7월 26일 수요일, UN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UNFSS+2)는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대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살펴보고자 국가 및 정부 수반 20명, 장관 125명을 비롯한 180개국 2,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 고위급

행사, 회의, 대화 등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이번 성과점검회의가 우리의 현 위치와 오늘날까지 거둔 성과,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전체적인 창구 역할을 했길 바란다”라고 언급하고, 이어서 “갈 길이 멀기에 우리의 발걸음에 속도를 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며 FAO가 4대 개선(four betters)을 향한 회원국 및 이들의 국가경로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Qu 사무총장은 성과점검회의 참가자들이 식량불안과 영양불량의 동인이 강력하고 상호 연관된 기후위기, 경제적 충격, 현재진행형인 분쟁의 위험과 영향으로 인해 더욱 복잡다단해졌음을 공동 인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로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확인하고 로마를 떠나는 것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그간 회원국이 직면해 있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는 나타난다”라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정치적 헌신의 필요성에 관해 이뤄진 논의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Amina Mohammed UN 사무부총장은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을 대신해 행동촉구서(Call-to-Action)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성과점검회의를 공식 폐회했다. Mohammed 사무차장은 이행 격차를 좁히기 위해 대규모 긴급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발을 위한 자원 조달, 부채 탕감, 포용성, 정부 외 행위자들과의 협력, 모두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접근성과의 연관관계를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모든 국가 정책에 식품시스템 전략을 도입하고 다자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핵심적인 우선사항에 대해 역설했다.

Mohammed 사무부총장은 “이번 성과점검회의는 2021년에 열린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얻은 교훈, 즉 우리가 포부를 키우고 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어려움 속에서 구제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과 식품시스템이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게 만들려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노력에 이번 회의의 정신을 반영해 보자”라고 강조했다.

26일 성과점검회의 폐회식에는 Alvaro Lari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Cindy McCain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UNFSS+2, 기회를 강조하다

3일 동안 FAO가 주관한 행사에서 이번 성과점검회의 참가자들은 하기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

- 인프라에 대한 투자: 생산품이 시장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보장
- 순환경제 및 바이오경제: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식품 손실 및 폐기를 감축
- 실제 식품비용: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숨겨진 비용 및 이익 가시화
- 법적 기반: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와 구조 제공
- 가치사슬 개발: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 구축
- 무역: 식품 다양성을 제고하고 더 나은 영양 및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참가자들은 또한 하기 내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인간, 특히 청년과 여성을 중심에 둘 것
- 더 나은 생산을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함과 동시에 기후 회복력과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증진시킬 것
- 천연자원은 농식품시스템의 근간으로 이를 ‘덜’ 사용해 ‘더’ 생산하는 등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아와 영양불량 증식을 위한 수생식품의 중요성과 FAO의 청색 전환(Blue Transformation)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있어 통찰력 있는 이니셔티브인 이유

-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와 지리공간 데이터의 중요성
-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비롯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 각종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 및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필요성
-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진전시키는 주요 가속제(accelerators)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화
- 새로운 관행, 혁신 및 기술을 추진, 적응 및 구현하는 데 열쇠를 쥐고 있는 농민들
- 생산을 개선하고 국가경로 이행에 있어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혁신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정밀농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

미래로 나아가다

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FAO가 모든 회원국, 농식품시스템 행위자 및 파트너들을 위한 중립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이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환을 위해 맥락상 명확한 해결책과 공동 행동에 대한 컨센서스 도달을 위한 상호 학습을 촉진한다는 것을 대표단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FAO는 효율성 개선과 현장에서의 공동 협력 강화를 위해 모든 유엔 파트너 기구와 보다 긴밀하고 의미 있게 공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Qu 사무총장은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조정자이자 조력자로서 국가 식품시스템 책임자를 한데 모으고 필수 데이터를 수집하는 FAO 주관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의 가치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는 허브를 강화하고, 허브의 업무 결과와 효율성이 더 개선되도록 공동 지원을 늘려야만 한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회의 참가자들을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장 가운데 하나인 2023 세계식량포럼(World Food Forum 2023)에 초대했다. 동 포럼은 올해 10월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UN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UNFSS+2)는 각국이 시행된 조치와 관련해 거둔 진전을 검토하고 성공사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난관,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활용했다. UN 사무총장은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의장 요약문 및 행동 성명서(Chair Summary and Statement of Action)를 통해 2년에 한 번씩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결과 이행에 따른 진전과 이러한 진전이 2030 의제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음 성과점검회의(UNFSS+4)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As UNFSS+2 closes, FAO reiterates its commitment to support nations in accelerating the pace of transforming agrifood systems
(<https://www.fao.org/newsroom/detail/as-unfss-2-closes--fao-reiterates-its-commitment-to-support-nations-in-accelerating-the-pace-of-transforming-agrifood-systems/en>)

유엔세계식량계획(WFP)

1)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학교 보건과 영양의 획기적인 영향을 확인(2.8)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아동과 아동 발달을 위협하는 식량, 기후 및 학습 위기에 직면해 있기에, 학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보건과 영양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고서에 의하면 무상급식, 예방접종, 구충 등의 학교 기반 프로그램은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낭비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가능케한다.

Carmen Burbano WFP 학교 기반 프로그램 부서는 “학교에서의 보건과 영양, 특히 학교 급식에 투자하는 것은 교육과 학생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우면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보건, 영양 및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학습과 번영을 위한 준비: 전 세계 학교의 보건과 영양’ 글로벌 보고서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유엔교육과 학문화기구(UNESC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교육 글로벌 파트너십(GPE),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오늘 발족했다. 전 세계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 사례를 망라해 최초로 전 세계 학교 보건 및 영양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 90% 국가에서 학교 보건 및 영양(SHN)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학교 기반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매년 4억 5,000만명 이상의 학령기 아동이 구제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예방접종과 함께 학교 급식을 배달하는 등 서로 다른 계획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고서는 비교적 소수 국가만이 다음 단계를 밟고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진정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괄적인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가 좁아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이며, 전체 초등생 아동의 절반가량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등록률을 9%, 출석률을 8% 높일 수 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지난 10년간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된 것은 정치적 헌신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학교 보건과 영양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방안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Burbano 부서는 말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SHN 프로그램은 비용 효율이 높은 투자이며,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투자액 1달러당 9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정신 건강을 다루는 학교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80년간 투자액 1달러당 21.5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SHN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20억달러만 투자되고 있다. 동시에, 약 2,100억달러가 저소득 및 중하위소득 국가에서 해당 연령대를 교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 극대화를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출처: New report confirms game-changing impact of health and nutrition in school
(<https://www.wfp.org/news/new-report-confirms-game-changing-impact-health-and-nutrition-school>)

2) 취약 아동의 절반가량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나, 최취약계층은 여전히 세계 식량위기 속에서 혜택에서 제외돼(3.21)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오늘 발표한 ‘세계 학교급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식량위기로 많은 국가의 가정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학교급식이 취약한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하고 비용효율적인 방법임을 점차 확신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전 세계 약 4억2,000만명의 아동들이 오늘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1억5,300만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3억4,500만명이 위기수준의 기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은 취약한 아동과 가정에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75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아동이 학교에서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연합에 동참했음을 언급하며, “5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 세계 학교급식 사업 산업은 전 세계 아동의 미래를 보장할 수 유망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차질을 빚은 무료점심 사업을 복원하려는 정부들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급식을 먹는 아동의 수는 현재 2020년 대비 3,000만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학교에 다니는 전체 아동의 약 41%에 해당한다.

Carmen Burbano WFP 학교기반 사업 책임자는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정부들이 아동의 복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 세계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갈 위험이 있는 식량위기와 씨름하고 있는 오늘날, 학교급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활동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먹는 식사가 그들이 그날 먹는 유일한 식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세계적 회복이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구성된 정부 주도의 학교급식 실천연합(School Meals Coalition)으로부터 중요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 교환과 옹호를 위해 조직된 네트워크이다.

한편, 보고서는 학교 아동의 60%가 급식을 제공받는 부유한 국가들과 18%만이 급식을 먹는 저소득국가 간의 격차를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세가 빨랐으나, 저소득국가의 경우 학교급식을 받는 아동의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4% 감소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국가들이 2020년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 15%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저소득국가는 국내 사업을 재개할 수 없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8개국에서 10% 미만의 학생이 학교에서 무료로 또는 보조를 받아 급식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Carmen Burbano는 “학교급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은 상황이다. 우리는 저소득국가들이 이러한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여국의 시의적절한 지원과 국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학교급식 사업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무료 급식은 더 많은 아동(특히 여아)이 학교에 오게 하고, 학교 교육을 더 잘 받도록 하며,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건강과 교육의 결합이 저소득국가의 아동에게 빈곤과 영양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식 사업은 학교 등록률을 9%, 출석률을 8%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학교급식 사업이 농업, 교육, 보건 및 영양 그리고 사회보호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달러당 9달러의 1달러 투자 시 9달러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학교급식 사업이 현지 소농과 연계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보다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학교급식 사업을 통해 10만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마다 약 1,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85개국에서 약 400만개의 일자리로 이어진다.

*출처: Almost half of school children get free meals, report shows, but most vulnerable still miss out amid global food crisis (<https://www.wfp.org/news/almost-half-school-children-get-free-meals-report-shows-most-vulnerable-still-miss-out-amid>)

유엔(UN)

1) UN 사무부총장,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 위해 글로벌 금융 구조 개혁 필요해”(4. 13)

4월 13일, 워싱턴에서 Amina Mohammed UN 사무부총장은 계속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춘계 연차 총회 기간 동안 열린 혁신 포럼에서 개회사를 전하며 UN 사무부총장은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지점에서 당장 궤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개발도상국은 치솟는 에너지 및 식량 가격,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아왔다. 이러한 위기들은 급속도로 긴축되는 글로벌 금융 상황과 차입 비용의 상승 속에서 전개돼 왔다.

‘결함 있는’ 금융 시스템

이런 상황은 취약국을 더 큰 부채 곤경의 위험에 빠뜨리고, 회복에 대한 투자 능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기후 행동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치하게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도전과제들은 결함 있는 글로벌 금융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며 위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심각히 불공평한 구조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Mohammed 사무부총장은 UN 사무총장이 개혁 요구를 지지했으며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장기적 재원 조달을 강화하고자 연간 최소 5,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글로벌 SDG 경기부양 조치(SDG Stimulus Plan)를 제안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조치에는 대규모 공식 재원 조달, 차입 비용 인하, 위기 시 비상 금융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고, 현재의 금융 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즉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통점 찾기

경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그녀는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국제사회는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그러나 변화에 대한 이러한 명확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분리와 전반적인 다자주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Mohammed 사무부총장은 “SDGs와 기후 행동을 위한 야심찬 자금 조달 패키지를 추진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의 연합체를 구축할” 향후 기회에 대해 주목했다. 여기에는 Mia Motteley 바베이도스 총리가 제안한 Bridgetown 이니셔티브와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소집한 6월 “글로벌 자금조달 협정(Global Financing Pact)” 회담 및 9월 UN 본부에서 열리는 SDG 회담과 자금 조달에 관한 고위급 회담이 포함된다.

다섯 가지 핵심 영역

“SDG 경기부양 조치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지금 취하는 조치들은 현재의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국제 금융 구조의 깊고도 다년간에 걸친 오래된 결함을 개혁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Mohammed 사무부총장은 말했다. 그녀는 개혁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으로 5개의 상호 연관 분야 내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경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 거버넌스에서 그들의 대표성을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세계적인 공공재를 위한 자원 조달

Mohammed 사무부총장은 국가 부채 구조에서 격차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현재의 국제 시스템은 심층적이고 빠른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없으며 체계적인 부채 위기를 다룰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의 세 번째 요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를 위한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장기적인 자원 조달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통한 국제 공공 금융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조건이 장기 대출 및 낮은 이자율과 같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제 공공 금융 시스템 또한 기후 행동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대규모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 닥친 위기는 글로벌 금융 안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그녀는 말했으며, 또한 미국과 스위스에서 최근 벌어진 은행 도산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재설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Mohammed 사무부총장은 이러한 개혁의 대부분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나로 모으고, 이러한 야망을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Reform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puty chief
(<https://news.un.org/en/story/2023/04/1135627>)

■ 세계무역기구(WTO)

1)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UNFSS+2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무역의 역할 강조(7.26)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정상회의(UNFSS+2)에서 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식량안보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푸드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있어 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무역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푸드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역정책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2 성과점검회의(UNFSS+2)”는 이탈리아 정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및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의 협력 하에 주최했다.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무역에 대한 세션에서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열량 중 1/5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므로 개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은 사람들이 적절한 가격의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수십 년간 무역을 통해 이룬 성장에서 알 수 있듯이 빈곤국 인구의 개발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무역이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기타 요소로 인해 기아와 영양불량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최근 발간된 2023년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를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억 9,300만명이 기아에 직면했고, 24억명이 연중 내내 영양가 있고 안전하며 충분한 식품에 접근하지 못했다.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및 농업 시장의 기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년간 WTO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2022년 6월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의 식량불안에 대한 긴급 대응 선언과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성과 패키지를 강조했다.

그녀는 MC12 결과가 WFP의 인도적 활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WFP는 최근 WTO 농업위원회에 수출제한 면제를 통해 더 많은 국가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더 빠르고 현지화된 조달이 가능해졌다고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식량안보를 강화할 유해 수산보조금 억제에 관한 획기적 합의에 주목하고 각국 정부가 관련 합의를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Okonjo-Iweala 사무총장은 무역과 WTO가 국가 및 사람들이 최근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에는 수출제한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비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WTO의 노력이 포함됐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약속을 지킬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많은 국가들이 도입한 식량, 사료, 비료에 대한 수출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해 왔다. 7월 중순 현재, 수출제한은 104개에서 59개로, 45개가 단계적으로 철폐됐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WTO의 즉각적인 다음 단계는 기존의 투명성 도구를 강화하고 농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인 혁신 기술에 대한 무역 장애물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총장은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할 WTO의 두 가지 중점분야를 강조했다. 하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농업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더 나은 물, 토지, 투입재 사용을 수반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만드는 데 WTO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는 식량안보를 농업협상의 진전을 여는 열쇠로 보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견해를 강조하며 무역장관들이 오는 10월 고위급회의를 기회로 정치적 돌파구를 찾고, 2024년 2월 26~29일 예정된 제13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총장은 WTO 농업개혁과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회원국들에게 현행 농업보조금 규정을 검토하고, 무역 왜곡적이고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용도를 변경하며, 정밀 점적관개와 같은 친환경 기술 및 관행의 채택을 장려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세계은행(WB) 보고서는 농업, 어업 및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지출이 매년 약 1조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자원 중 일부의 목적을 변경해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요청했다.

- 첫째, 무역이 푸드시스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상자 내 도구 중 하나임을 기억할 것
- 둘째, 무역 관련 동료들에게 WTO 농업협상에서 성과를 내도록 당부할 것
- 셋째, 푸드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WTO를 도구로서 십분 활용할 것

*출처: DG Okonjo-Iweala underlines role of trade in transforming food systems at UN summit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3_e/dgno_26jul23_e.htm)

1) 더 나은 식품시스템 만들기(7.24)

가장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8억2,8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곡물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기아종식에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요원해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식량위기는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증상만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오늘날 식량가격 급등으로 인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19, 분쟁 및 기후변화가 꼽히지만, 그 근간에는 구조적 문제가 놓여있다. 그것은 바로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다.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은 전 세계 6억호의 농가와 80억명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며 기후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시에 굶주린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다섯 가지 주요 행동은 다음과 같다.

인센티브. 매년 세계 각국은 8,000억달러의 식량 생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기후와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실제로 농가에 전달되는 보조금은 1/3에 불과하다. 생산 인센티브를 디커플링(decoupling)하고 농가가 식량 생산과정에서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탄소를 토양에 포집하도록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은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단계이다. 예컨대, '정의로운 농촌 전환 이니셔티브(Just Rural Transition Initiative)'는 행동지향적 증거 기반을 구축해 혁신적이고 야심찬 정책, 투자 및 다중이해관계자 솔루션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혁신. 농업 연구개발(R&D)에 대한 공공지출은 최대 44%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혁신은 전 세계 기아문제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보다 생산적인 식품시스템을 위한 핵심요소다. 세계은행(WB)은 '하나의 CGIAR 이니셔티브(One CGIAR Initiative)'와 함께 이러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지구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식품시스템에 대한 국가 연구 및 혁신 예산을 GDP의 최소 2% 이상 늘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기후를 위한 농업혁신 미션(Aim4Climate)'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기후스마트 농업 및 식품시스템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와 같은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도. 수출규제와 비관세장벽은 식품시스템에 자해적 피해(self-inflicted damage)를 입히고 있다. 현물 또는 현금지원과 같은 대상이 적절히 설정된 안전망을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다면 사후대응정책(reactive policy)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정보. 투입재부터 시작해 기후, 물가, 식량가용성, 기아인구 수 및 위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든다. 오픈 데이터(open data)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재생산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에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오늘날 우리는 식품시스템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공공부문에서 오픈 데이터 개방을 의무화하면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 대다수의 기업은 기후변화, 인권개선 및 영양가 있는 식단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은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에게는 지속가능한 생계를, 노동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소비자에게는 영양가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책임을 다해 SDG2 기아종식을 달성해야 한다. 국제

금융공사(IFC)는 '세계 식량안보 플랫폼(Global Food Security Platform)'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전환(trasnformation)을 향한 여정에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글로벌 식품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면 기아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유엔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UNFSS+2), SDG 정상회의(SDG Summit),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통해 식품시스템을 전환하고 살기 좋은 지구에서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자원을 동원해야 할 때이다.

*출처: Building a better food system
(<https://blogs.worldbank.org/agfood/building-better-food-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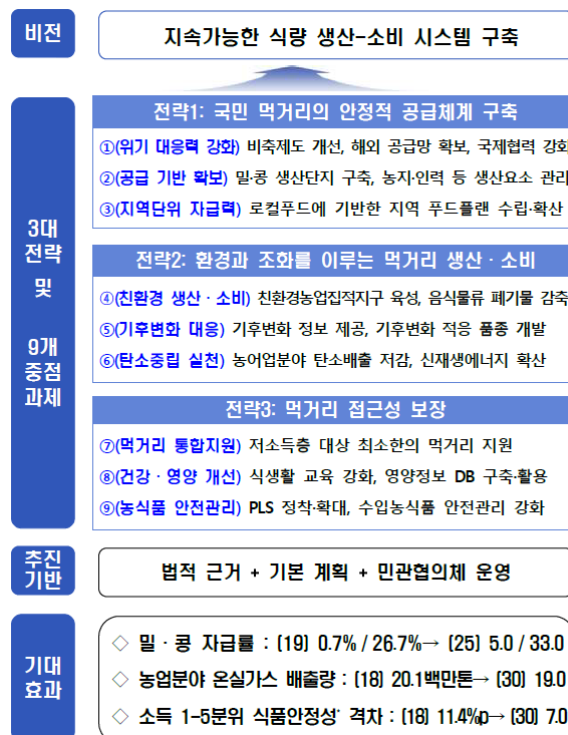
제3장 우리나라 국가경로 실적 점검

1. 우리나라 국가경로 이행현황

■ 국가경로 '국가식량계획' 수립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물류 차질 발생,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먹거리 공급-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21년 9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마련함

- 국가식량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 세계적인 푸드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UN 등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부합하며, ①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세부 목표로 함



▲ 국가식량계획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9월 발표)

■ 국가경로 이행 관련 중장기 계획

○ 우리나라의 국가경로인 '국가식량계획'에서 제시하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1.12월)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특징으로 함
- 농촌진흥청은 동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2.1월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①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③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④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을 4대 중점분야로 함

-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22.12월)

-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국제정세 불안 등 다양한 외부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①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및 ②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자 수립됨
- (주요 목표) ▲'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7년 55.5%로 상향, 밀·콩 자급률 각각 8.0%, 43.5% 달성,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완화하여 적정 농지면적 유지, ▲'27년까지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 달성
- (5대 전략) ①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②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관리 체계화, ③ 국내 비축 확대 및 신수요 창출, ④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⑤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 2023-2027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23.4월)

- 농업·농촌의 힘찬 도약을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새로운 농정목표*들이 정립되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됨
※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투텡고 안정적인 농가경영안전망,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먹거리,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 (주요 과제)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육성, ③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④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비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전략	성과목표	세부추진과제	
근거한 식량안보 확보	식량 자급률 제고 국내 비축 및 해외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21) 44.4% → (27) 55.5 · 밀/콩 자급률: (21) 1.1/23.7% → (27) 8.0/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식량작물 생산-소비체계 전환 ○ 농지 관리 체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국내 비축 및 해외 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에 적합한 농업으로 전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 3만명 육성 · 스마트농업 보급률: (22) 은실 12.8% 농사 19.8% → (27) 30, 30 · k-Food* 수출 목표: (22) 118억달러 → (27)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스마트농업 확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 R&D 혁신 및 기술창업 활성화 ○ 전략적 국제협력 농정 추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푸드테크 산업 육성 ○ K-Food* 수출 확대 ○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제도정비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직접지불제도 개편 농가 경영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달성 · 농식품펀드 1조원 추가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재해 피해 지원 ○ 농업 경영위험 대응 ○ 직접지불제도 개편 ○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농축협외의 경제사업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비용 절감: (20) 48% → (27) 45 ·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 (18~22) 14.4% → (23~27)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농축산물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사전 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가족 방역체계 고도화 및 민간책임성 강화 ○ 고품질 농식품 공급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21) 5.7점 → (27) 6.7 · 농촌 융복합산업규모: (22) 3.6조원 → (2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농촌 재생 지원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 여성농업인, 농촌 거주 여성 지원 ○ 농업·농촌 소득 기반 다각화 ○ 귀농·귀촌 활성화 ○ 농촌 교류·체류 활성화
추진 기반		역신농정, 현장소통 · 지방중심 농정	

▲ 「2023-2027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실천분야별 조치

○ 모든 사람에게 영양 공급

- 한국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해, 농경지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 자연기반 해결책 증진

- 정부는 친환경 지구(eco-friendly district)를 지정하고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속가능 농업 모델 개발, 시범지구 조성 등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참여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과 생산 비용이 감소함

○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권한이 부여된 공동체 진전

-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평균소득 향상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됨
- 정주 여건 개선, 여성 농업인 특별 건강검진 등 농촌 맞춤형 생활-복지 서비스도 확대됨

○ 취약점,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경지의 상습 침수를 통제(배수개선사업)하고 재해 대응을 강화함
- 적절한 비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양 검정실을 설치하고,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함

■ 푸드시스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조치

- 투자와 자금조달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성과가 저조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구조 조정하는 한편, 식량안보 관련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납세자의 합의를 구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농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과 민간기업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학계, 생산자 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식품시스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학계와 적극 협력 중이며, 과학 및 기술 연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을 촉진 중
 - 매년 1월 학계, 농업인,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미래 전망을 발표하는 '농업전망' 행사 개최
 -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촉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농식품 정책을 지원

2. SDGs 달성과정에서의 모범사례 및 애로사항 등

■ SDGs 달성 관련 모범사례

○ (SDG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쌀·밀·콩 중심의 국내 비축물량 확대와 해외곡물공급망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주요 곡물생산단지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급률 제고,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확산을 통한 지역단위 자급력 확보를 위해 노력

- 식품 접근성 보장

- 취약계층을 위한 우유급식, 양곡할인, 초등 과일간식 등 다수 지원사업을 추진
-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 품목 및 사용가능 매장 확대 등 운영방식을 개선
-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

- 식품 안전성 강화

-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농업용수 식중독균·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등 토양·용수 조사 및 시설관리를 통해 오염 농산물 생산을 차단
- 수입농식품 대상 유통이력관리 및 위생관리를 강화

- 국민 영양 및 건강 개선

-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텃밭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 형성을 촉진
- 공공급식에서 친환경·GAP 농산물 사용, 식중독 예방 등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 대상별 영양관리(학교주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등) 추진

○ (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 학교급식은 특히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서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제고에도 기여

○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 바이오가스화 등 음식물 폐기물의 공공처리 비중 확대, 캠페인을 통한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추진

○ (SDG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품종 개발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구축을 추진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
 - 자원투입 최적화를 위한 정밀농어업 모델 개발,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조성, 전기용 농기계 개발 R&D,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확대
- 수산업은 연근해 어선 감척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도모

○ (SDG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제도 대상 확대로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하고, 수산물(패류) 생산해역 보호를 위해 하수시설 확충 등 환경관리를 강화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에 관한 협정(2009년

발효)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 하역하는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바다환경과 어업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 (SDG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 아프리카 8개국과의 협력에 기반한 아프리카 대륙의 쌀 증산 프로젝트인 'K-라이스벨트' 등 공적개발원조를 적극 추진
- 아세안+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APTERR), 유엔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식량원조 확대 추진

■ SDGs 달성 관련 애로사항

- 세계적인 식량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농지 감소 및 곡물 수입에 대한 의존이 식량공급 안정성에 대한 도전과제로 작용함
 - 국내 푸드시스템 정책은 국제 식량가격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바, 국제 곡물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수출제한의 영향에 대한 국가 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고 무역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정부는 콩, 가루쌀 등 식량작물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지속적인 도전과제인 저탄소 농식품시스템 촉진 및 농업부문 회복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026년까지 그린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립해 지역별 데이터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
- 푸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년 성과가 저조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구조조정하는 한편, 식량안보 관련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납세자의 합의를 구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대규모 자본과 술이 필요한 농산업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과 민간기업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
-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침

제4장 조정허브 개최 국제회의의 결과

1. 회의 일정

일시	회의명
1 2023. 3. 22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지원’ 다이얼로그 (Financing Food Systems Transformation)
2 2023. 3. 30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 사전회의 (Preparatory Meeting of the 2023 UN Food Systems Stocktaking Moment - Transforming Food Systems in Asia and the Pacific: A Regional Stocktake)
3 2023. 4. 12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참여’ 다이얼로그 (Engaging for Food Systems Transformation)
4 2023. 4.24~27	제4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SFS) 프로그램 글로벌 컨퍼런스 -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4th Global Conference of the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me – The Transformation We Need)
5 2023. 5. 3	‘회복력 구축’ 다이얼로그 (Learning for Food Systems Transformation: Building Resilient Food Systems)
6 2023. 5. 17	‘공동 SDG 기금의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 다이얼로그 (Co-Designing the Food Systems Transformation Window of the Joint SDG Fund)
7 2023. 5. 23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지역별 접점’ 다이얼로그 (Regional Touch Points with National Convenors)
8 2023. 6. 7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계획- 과학, 기술, 혁신’ 다이얼로그 (Planning for Food Systems Transformations -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9 2023. 6. 21	‘젠더 주류화’ 다이얼로그 (Learning for Food Systems Transformations – Gender Mainstreaming)
10 2023. 7. 5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글로벌 접점’ 다이얼로그 (Global Touch Point with National Convenors)

2. 회의 결과 (※회의별 세부 결과는 부록 참고)

(1)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지원’ 다이얼로그

- **목적**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및 조정허브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 **일시** : 2023년 3월 22일 16:00-17:30(KST)
- **발표 내용**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IFAD, WB), 인도네시아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사례(인도네시아) 등

-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당시 푸드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Food Finance Architecture」를 발족했으며, 이는 ▲연간 약 3,000~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금액을 추가로 동원하고,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약 12조달러 상당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FAD 및 WB가 강구 중인 재정지원 도구 : 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예산 도구(국가들의 푸드시스템 관련 재정지원 파악, 격차 및 수요 진단, 투자결정 우선순위 결정 등을 지원), ② 푸드시스템 자원개발 도구(푸드시스템에 관한 ODA 관련 데이터 제공), ③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창구(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매핑 지원), ④ 푸드시스템 재원 솔루션(혁신적인 재원 제공 및 투자 연계)

○ 토론 요지

- 자원이 제한된 세계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민간부문, 국영은행, 소규모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
- 정부가 예상하는 실제 비용에 대한 인식 없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지원 도구들은 이행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함

(2)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 사전회의

○ 목 적 : 아태지역 국가들이 국가경로 이행 등 2021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얻은 경험, 모범사례, 교훈을 공유

○ 일 시 : 2023년 3월 30일 11:00-19:30(KST)

○ 주요 내용

가. 핵심 메시지

- 아시아-태평양은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며, 푸드시스템 전환에 있어 '만능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후변화 위협과 취약계층과 소규모 농어민에 대한 기타 위협 증가, 농업부문의 국가 GDP 기여도 감소, 급속한 도시화, 농촌 청년층의 농업 이탈 등 공통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 국내 수요와 무역의 균형. 각국은 국내 소비를 위해 현지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득 증대와 회복력 구축을 위해 생계형 농업에서 시장주도 및/또는 수출지향적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농업은 국내 소비와 무역을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생산하고 영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지역사회 참여, 포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코로나19 관련 사회안전망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청년, 여성, 토착민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푸드시스템 전반에서의 포용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 이와 함께,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 디지털화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민주화되어야 함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위급 정부 수준에서의 약속이 매우 중요**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금(기후위험 및 재해완화 자금 포함)에 대한 접근성 및 수준을 높이고, 지역/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함
- **자연친화적인 자연기반 해결책**(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천연자원(예: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명시적으로 목표로 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지방정부는 현지 농어민과 기업을 위한 현지 인센티브 기반 계획을 설계·시행하고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는 등 푸드시스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다양한 시스템(자연, 경제, 사회-정치)과 관련된 푸드시스템 위험에 대한 더 나은 데이터와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함

나. 주요 도전과제

- 식량가격 및 식품 생산·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
- 물/토지/생물다양성 등 천연자원 훼손 및 감소
-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인식, 역량 및 자원 부족
- 금융(기후금융 등)에 대한 농민 및 농민단체의 역량 부족
- 농민 고령화, 영양부족인구 및 비만, 당뇨병 등 식이관련 질병의 동시 증가, 도시 푸드시스템 관련 위험 증가 등

다.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및 모범사례

구분	내용
식품가치사슬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이 촉진, 전반적인 푸드시스템 리터러시 촉진 - 농업생태학 및 기타 기후스마트/자연친화적 생산 촉진, 작물다양화 - 수출 및 국내 소비를 위한 식품 품질·안전 기준 강화 - 도·농 연결성, 농업 디지털화, 식품 폐기 감축, 도시 수경재배 농장 등 촉진 - 식량·영양 관련 모니터링·정보시스템, 위험평가 및 조기경보 도구 강화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	- 지속가능한 생계, 소규모 농민/기업가의 금융 접근을 개선하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활용 -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사람중심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 - 여성, 청년, 토착민 등 소외계층 권한 강화, 식량권 보장 등
우호적 환경	- 혁신적 금융(자연친화적 생산기법 채택 농민과 농업비즈니스에 대한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 인센티브 제공 등) - 민관협력 촉진, 진정한 원가회계(True Cost Accounting) 적용 - 유기농업에서의 해충관리 등을 포함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강화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등

(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참여’ 다이얼로그

- 목 적 :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점검회의에 대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참여 및 네트워킹 자문 그룹(SENA 그룹)’ 및 국가 컨비너들 간 푸드시스템

전환 가속화에 대한 기회와 과제 등에 대해 교류

○ 일 시 : 2023년 4월 12일 15:00-16:30(KST)

○ 패널토의

- (Martin Hoppe,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우선순위(국가계획 개발 및 포용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에 파트너 참여)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대한 독일의 노력을 설명
 - 또한, 국제 수준에서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영양증진운동(Scaling Up Nutrition Movement) 등 기존의 다중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활용을 강조
- (Michael Keller, 국제 농식품 네트워크 의장 겸 국제 종자연맹 사무총장) 식품가치사슬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푸드시스템 관련 논의는 정치 화해선 안 되며 공동의 비전을 향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함
- (Lucrezia Ducci, SENA 그룹 청년 대표) 청년의 성과점검회의 참석 등 푸드시스템 전환 논의에서 청년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Megha Desai,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선임 코디네이터) 여성이 식품의 생산, 가공, 가정에서의 식품 소비 및 구매 결정 등 식품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 토론요지

- 푸드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는 모델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
- 국가들은 운영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문 간 소통과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팀과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국가경로를 이행 중

(4) 제4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SFS) 프로그램 글로벌 컨퍼런스 -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 목 적 : 2023년 7월 성과점검회의에 앞서, 기후, 생물다양성, 분쟁, 기아 등이 상호연결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푸드시스템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 시민사회, 농민,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 마련

○ 일 정 : 2023년 4월 24~27일, 베트남 하노이(온·오프라인)

일자	구분	일 정
4/24 (월)	세션 1	개회식
	세션 2	푸드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 재고하기
	세션 3	국가 및 하위국가 거버넌스 및 정책 재점검
4/25 (화)	세션 4	변화하는 소비 및 생산 패턴
	세션 5	과학, 금융, 인권, 혁신을 통한 전환 촉진

일자	구분	일정
4/26 (수)	세션 6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지원생태계 강화하기 : 푸드시스템 접근법 발전을 위한 UNFSS 실천연합 동원
	세션 7	전환의 측정
4/27 (목)	세션 8	국별 컨비너 간 논의
	세션 9	결론 및 폐회식

○ 주요 내용

가. 핵심 메시지

-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요성)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건강하고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은 식량불안, 영양불량, 건강,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분쟁, 높은 에너지 및 소비자 물가 등 상호 연관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됨
- (단기적 노력과 장기적 노력의 연계 필요성) 여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 전략과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의 틀에서 시행되어야 함
- (모든 수준에서 포용성, 참여, 의미있는 협력의 필요성) 푸드시스템 혁신은 모든 부문에서 모든 주체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회 전체적인 과제임

나. 세션별 요지

구분	내용
푸드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 재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아키텍처는 푸드시스템 렌즈가 부재한 상태에서 형성돼 분절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여러 부문·기관 간 조정 및 정책 일관성 제고가 필요함 - 무역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뒷받침하나, 정부 보조금과 관세, 비관세 조치, 농업기술 및 식품품종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도전과제들이 존재하므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무역 시스템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제금융기관들의 표준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 푸드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야 함 - 생물다양성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토지 황폐화, 물 부족, 자연재해 완화에 대한 고려사항도 푸드시스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에 통합해야 함
국가 및 하위국가 거버넌스 및 정책 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며, 다중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절차와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 다중 행위자 참여에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힘의 불균형과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도 요구됨 - 포용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합하기 위한 도전과제로는 푸드시스템에 대한 인식 전환, 장기적 결과를 향한 인내심, 여러 부문과 이해관계자 간 조정 등이 있음
변화하는 소비 및 생산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시스템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기후 완화 잠재력이 있는 분야와 약 80% 일치함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인류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의 퍼즐조각들이 서로 연결 및 통합되며, 관련 개입은 공동 이익에 초점을 두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취약한 소농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임 - 정부는 농식품 업계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함
과학, 금융, 인권, 혁신을 통한 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은 공평하고 건강한 푸드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이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학, 금융 및 혁신은 인권기반 접근법으로 추진되어야 함 - 솔루션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소농과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혁신이 더욱 촉진되어야 함 - 빈곤층은 자선이 아닌 시장에 대한 접근 및 우호적 환경을 필요로 함 - 국가경로를 투자전략과 연계하고 공공 및 민간 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은 푸드시스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함에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금융 접근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지원생태계 강화하기: 푸드시스템 접근법 발전을 위한 UNFSS 실천연합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연합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을 위해 푸드시스템 접근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푸드시스템 렌즈 채택은 다양한 실천연합의 의제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천연합들은 장기적인 변화에 있어 국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실천연합은 집단적 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분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여러 실천연합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국가 컨비너들이 이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
전환의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무성(accountability)은 푸드시스템 전환과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후속절차에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경로에 대한 계획에 적절한 책무성 조항을 포함도록 국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세계적으로는 격년 개최되는 성과점검 및 연례 SDG 진전상황 검토에 연결되도록 해야 함 - 특히 정부 등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는 적절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 -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개발파트너는 모두 푸드시스템 전환에 있어 각각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님
국별 컨비너 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이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상호 연계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을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1) 다양한 거버넌스 수준에서 관련 부문이 대표되고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여성, 농민, 청년, 토착민 등 이해관계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부문 및 다중이해관계자 프로세스 수립, 2) 부문별 노력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시너지는 최적화하고 상충관계를 식별·관리하도록 정책 일관성 강화, 3) 진행상황을 측정하고 책임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노력이 조율되고 변화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보장, 4) 전환 노력을 통해 네 가지 'C'(코로나19, 기후, 분쟁, 생계비 위기)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 5)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의 중심에 두어 SDGs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함 - UN 국가팀이 UN 상주조정관 시스템을 통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경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심화시켜야 함 - 청년, 여성, 토착민, 소농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변화를 더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가속화하여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 과학,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면 각국이 장기적인 푸드시스템 전환으로 이어지는 정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 - 국가 컨비너 및 다중이해관계자들은 권리기반 접근법을 통해 국가경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사회적(whole-of-society)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함. 범분야적 푸드시스템 전환 목표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문제는 부처 간 조율을 개선하여 해결해야 함 - 국가경로를 향한 공동 노력을 심화시키고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국가수준의 진전을 보고하기 위하여, 국가 컨비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 동료학습의 기회와 과학-정책 인터페이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5) '회복력 구축' 다이얼로그

- **목적** : 국가 컨비너, 기타 정부 대표 및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관한 주요 이슈, 예시, 경험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5:00-16:20(KST)
- **발표 내용** : Martin Fricks, WFP 베를린사무소장(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
 -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코로나19, 기후변화, 분쟁과 같은 각종 위협요인으로 인해 세계 식량불안인구가 증가하고, 북반구 및 남반구 모두에서 생계비 위기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상당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로운 식량무역과 흑해곡물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갱신이 중요하며,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지 식품 가공 및 운송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
 - 기후변화 심화 등 여러 충격에 대한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회복력 구축은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사회가 토양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자연자본을 보호, 자연기반 솔루션을 고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 **토론 요지**
 -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과 회복력 강화에 관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재원의 유연성 보장 등 회복력 구축을 위한 유연한 자금조달이 필요
 - 긴급상황에서는 긴급구호와 인도적 대응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수혜국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기술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자, 관개시설, 기후스마트 농업에 대한 투자 등의 지원도 회복력 구축에 필수적

(6) '공동 SDG 기금의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 다이얼로그

- **목적** : 조정허브가 최근 개발한 투자전략 초안의 방향과 국가적 노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가 컨비너 피드백과 더불어, 성과점검회의(STM) 기간 예정된 창구의 공식발족 직후 첫 번째 펀딩 라운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시** : 2023년 5월 17일 15:00-16:20(KST)
- **발표 내용** : 공동 SDG 기금 및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 소개
 - 공동 SDG 기금(Victoria Gemeli, 공동 SDG 기금 사무국 준전문관)
 - 공동 SDG 기금은 UN 개발시스템의 유일한 다중파트너 신탁기금이며, UN 상주조정관(RC)과 UN 국가팀(UNCT)이 SDG 이행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9년 조성된 이후, 1억8,800만명이 실질적이고 확장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으며,

2020-23년 기간 푸드시스템 분야(충격대응적 보호, 양질의 일자리, 통합적 국가 자금조달 프레임워크를 통한 SDGs 자금조달 등)에 4,100만달러가 분배된 바 있음

-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Ophelie Hemonin,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프로그램 담당관)

-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의 4가지 목표 : 1) 모든 SDGs의 촉진제로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촉진, 2) 정부주도의 권리기반 다중이해관계자 푸드시스템 전환 추진, 3) 건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향한 국가 푸드 금융구조 재편, 4)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식과 학습을 축적하는 데 기여
- 2023-28년 기간 목표 조달액은 3억5,000만달러이며, 창구는 단계적·다년간 접근법을 통해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자금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토론 요지

- 새롭게 제안된 자금조달 메커니즘인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가 국가들의 이행을 저해하는 재정적 제한 및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UN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재원은 국가의 우선순위와 변화를 고려하여 조치를 재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가들이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 구축, 디지털화, 하위국가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농촌 인프라 개선 등임
- 하위국가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
-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가 강화되어야 하며,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및 정보도 요구됨

(7)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지역별 접점' 다이얼로그

○ 목 적 : 국가 컨비너들이 7월 성과점검회의에 대한 각국의 참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동료 간 및 지역 내 추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일 시 : 2023년 5월 23일 15:00-17:00(KST)

○ 발표 내용 : 3월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 핵심 메시지 및 7월 성과점검회의 준비에 대한 업데이트

-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 핵심 메시지(Katinka Weinberger, ESCAP 환경정책개발부장)

-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도전과제는 기후변화, 천연자원 훼손, 식량 및 투입재 가격 상승,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에 대한 농민 인식과 역량 부족, 농민 고령화, 영양부족인구 및 비만 등 식이 관련 질병 증가를 포함
-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시장주도 생산(현지 생산 및 소비, 수출 지향, 자연친화적 생산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공 및 유통(디지털화, 식품안전 및 품질 표준 강화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소비가 촉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정치적 리더십, 규제 프레임워크, 양질의 데이터, 금융 개선(자금에 대한 접근성, 혁신적 금융 등)이 요구됨

- 성과점검회의의 준비에 대한 업데이트(Sylvia Ekra,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 2021년 정상회의의 약속 이행에 대한 진전을 검토하고, 이행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물과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성과점검회의(STM)는 다뤄질 필요가 있는 다양한 주제영역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토론 요지

- 국가들은 필요시 국가경로 및 정책이 서로 부합하도록 조정, 다양한 형태의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하위국가 등 모든 수준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 중
- 국가들은 이행 진전 추적을 위한 지수를 개발·내재화하고 있으며, 푸드시스템을 둘러싼 각종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적응 및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8)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계획- 과학, 기술, 혁신' 다이얼로그

- 목 적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FSS) 후속조치의 세 가지 주요 행위자인 정책 행위자(국가 컨비너), 과학·기술 공동체(SAC), 지원생태계(Ecosystem of Support)를 연결하여 과학-정책-사회 대화 및 협력을 촉진

- 일 시 : 2023년 6월 7일 15:00-16:30(KST)

- 패널토의 : Shakuntala Thilsted 과학자문위원회(SAC) 의장, Shenggen Fan SAC 공동의장, Jean-Francois Soussana SAC 공동의장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증거기반 접근법이 필요
-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거버넌스, 금융, 정책 등에 관한 혁신도 중요함
- FAO 사무총장이 구성한 과학자문위원회(SAC)는 자체 사업계획을 토대로 과학과 혁신에 기반한 국가들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임무를 다하고자 함

○ 토론 요지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식품폐기 문제 등에 관한 연구 및 과학적 권고가 필요
-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신뢰할만한 데이터, 증거기반 의사결정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SAC의 역할이 필수적
- 농업생태학, 기후스마트 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요구됨
- 과학적 연구 및 발전이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학정보가 청중이 접근가능한 지식으로 전환되어 전파되어야 하며, SAC가 관련 격차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과학적 통찰력을 보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학계에서 도출된 과학적 증거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생산 부문, 의사결정자 간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재원도 필요

(9)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학습: 젠더 주류화' 다이얼로그

- **목 적** : '여성과 소녀를 고려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주도 하에 성평등과 푸드시스템 전환 간 연계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젠더 관련 정책행동을 강화하고 다중이해관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 모색
- **일 시** : 2023년 6월 21일 15:00-16:30(KST)
- **패널토의** : Paulina Addy 가나 농식품부 담당관, Meredith Soule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포용적 개발과장, Billy Molosoni 케어인터내셔널(CARE) 말라위
 - SDG 목표 전반을 달성하는 데 대한 성 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GEWE)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가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
 - 미국(USAID)과 로마소재기구 등은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회복력 강화, 경제적 자립, 금융 접근 등을 지원하고, 성별 격차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 **토론 요지**
 - 푸드시스템 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역량을 기반으로 젠더사안을 주류화하고, 토지·금융·서비스·기술 접근에 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변화시켜야 함
 - 농업부문 여성들은 '조직화'를 통해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10)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글로벌 접점' 다이얼로그

- **목 적** : 국가 컨비너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성과점검회의(UNFSS+2 STM)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들의 진전보고서가 회의 전 발표될 UN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 공유
- **일 시** : 2023년 7월 5일 15:00-16:15(KST)
- **발표 내용** : UNFSS+2 STM 프로그램 및 준비사항, UN 사무총장 보고서 및 행동촉구서(Call to Action)
 - UNFSS+2 STM 프로그램 및 준비사항(Stefanos Fotiou,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STM 준비과정에서 5개 지역회의 개최, 101개국의 자발적 진전보고서 제출, 400여개 이상의 모범사례 제출 등을 통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됨
 - 정부대표단에는 장관급 수준의 고위급 및 국가컨비너의 참여를 촉구함
 - UN 사무총장 보고서 및 행동촉구서(Sylvia Ekra,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 지난 2년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글로벌 공동체가 어떻게 약속한 사항들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UN 사무총장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음
 - 폐회 시 UN 사무총장은 행동촉구서를 통해 변화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

제5장 우리나라 가입 실천연합 주요 활동 모니터링 및 역할 제안

1. 학교급식 실천연합

■ 개요

- 목 표 : 2030년까지 모든 아동이 학교에서 매일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받을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다음 3가지를 세부목표로 함
 - (2023년까지) 기존의 것을 복구 :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기간 입은 피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다시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2030년까지) 우리가 놓쳤던 인구까지 도달 : 팬데믹 이전에도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가장 취약한 인구들에게까지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2030년까지) 접근법을 개선 : 모든 국가의 기존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영양인지적 접근법이 영양교육과 기타 보건 관련 조치와 연계되도록 보장
- 회원국 : 프랑스, 핀란드(공동의장),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87개국
 - 국가주도 실천연합이나 유엔기구, 개발파트너 등 90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중
- 조 직 : 사무국(WFP), 태스크포스, 실무그룹, 이해관계자 그룹
 - 태스크포스(의장: 핀란드, 프랑스)
 - 실천연합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핀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미국, 아프리카연합, 온두라스, 아일랜드, 스웨덴, 르완다 등 주요 회원국들로 구성
 - 실무그룹(의장: 핀란드, 프랑스)
 - 실천연합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며, 주로 정보 공유, 모범사례 및 국가별 경험 전파, 국가 간 및 다른 파트너와의 추가 파트너십 구축, 전문지식 및 제도적 지원 공유를 위한 광범위한 포럼으로 기능
 - 이해관계자 그룹(의장: WFP) : 실천연합 지지 선언에 서명한 모든 기관들을 포함하며, 실무그룹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수준에서의 정보 공유 포럼으로 기능

■ 주요 활동

○ 4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추진 중

- 실천연합의 이니셔티브는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됨
- 각 이니셔티브는 실천연합 파트너가 주도하며, 해당 이니셔티브의 활동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과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계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이니셔티브들은 글로벌 수준에서 실천연합의 활동을 추진하며, 특정 주제분야를 지원하는 데 관심있는 파트너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진화함

1) 학교급식 및 영양을 위한 연구컨소시엄(주도: 런던 위생 및 열대의학 대학)

- 학교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생성하고 이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5월 설립됨
- 주요 활동내용
 - 학교 보건 개입의 비용 대비 가치, 투자 수익률, 형평성 및 성별 영향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통해 여러 부문에서 학교 보건 및 영양 개입의 수익을 정량화하고, 보건 개입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영양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등

2) 지속가능한 자원조달 이니셔티브(주도: 교육 위원회)

- (목표) 정부 및 공여자들과 협력해, 학교급식 프로그램(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 중점)에 대한 국내외 자원조달을 확대하고 조정을 개선
- (목적) 학교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글로벌 자원조달에 대한 환경 분석 수행, 자원조달에 관한 추가적인 지식 및 데이터 창출, 공여자들이 기존 자원조달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식별, 자원조달 관련 도전과제 및 옵션에 관한 증거 및 데이터 공유 등
- 주요 활동내용
 - 초기 단계(2021~2022년)에는 국가 자원조달, 공여자의 역할, 국제 자원조달 및 민간부문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이 실시됨
 - 7개국(방글라데시, 베냉, 볼리비아, 과테말라,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자원조달 패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과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탐구했으며, 그 결과 국가들이 이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조달 옵션들을 식별함
 - 학교 보건 및 영양을 위한 투자 사례 보고서를 위해 일련의 유망한 자원조달 옵션이 개발되었으며, 2022년 9월 유엔 교육혁신 정상회의 준비작업에 반영됨

3) 데이터 및 모니터링 이니셔티브(주도: WFP)

- 2022년 3월, 증거기반 의사결정과 진행상황 추적을 위해, 전 세계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 가용성을 개선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출범

-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세 가지 목표를 위한 핵심 모니터링 및 보고 이니셔티브 역할을 수행함

- 주요 활동내용

- 지표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유엔기구, 정부 간 기관, 시민사회 및 학계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의하여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지표를 매핑하고 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약 104개의 기존 지표를 매핑하고 정의된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겨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지표 세트를 수립함
- 국가들의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이 지표 실무그룹의 결과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데이터 요구사항과 프로세스를 파악하고자 국가 및 지역 기구들과 협력 중

4) 동료 간(peer-to-peer) 모범사례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 국가 및 지역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기반 정책 및 프로그램 표준 및 지침을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회원국 그룹 주도의 P2P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음

- 이러한 P2P 커뮤니티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FAO와 WFP는 독일 연방 식품농업부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학교급식 글로벌 지식 허브를 구축함

- 허브는 각국이 학교급식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영양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학교급식 및 기타 학교 음식에 대한 영양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잠재력에 대한 대화 강화, ▲국가 및 이해관계자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경험 및 교훈 교환,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의 질 개선 과정에서 학생과 청소년 참여 관여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

■ 국가별 실천연합 참여사례

○ 프랑스 정부는 학교급식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창립을 주도함

-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아이티, 레바논, 니제르, 우크라이나, 예멘, 베네수엘라 등 식량위기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학교급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도 강화키로 약속함

- 또한, 프랑스는 실천연합의 여러 이니셔티브들의 출범을 지원

-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이니셔티브에 기술 및 인적자원 제공, 학교급식 및 영양을 위한 연구컨소시엄에 대한 프랑스 연구기관들의 참여

○ 핀란드 정부는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공동 창립자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학교급식을 옹호하고 있음

- 프랑스와 함께 학교급식 실천연합 회원국 태스크포스 및 실무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2022년 10월 헬싱키에서 첫 번째 태스크포스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바 있음

- 2021년 WFP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렸으며,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해 기술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핀란드 학교급식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핀란드 기업 및 전문가와의 연결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개발함
 -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친환경 재배법, 식품안전, 영양, 동물 복지 및 보건 측면을 우선시하는 학교급식 조달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
- 미국 정부는 2021년 8월 실천연합 가입 이후 2022년 초 당해 학교급식 지원금을 7억5,000만 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2022년 6월, 식품비용 상승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미국산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2~2023학년도까지 9억4,300만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함
- USDA의 맥거번-돌 국제 교육 및 아동 영양식(McGovern-Dole) 프로그램은 미국이 기부한 농산물과 통합 학교급식 및 모자 영양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저소득 식량 부족국의 교육 및 식량안보를 지원함
 - 또한, 데이터 및 모니터링 이셔티브의 운영위원회와 기술 실무그룹, 지속가능한 자원조달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등 연합의 이니셔티브들에서도 활동 중

■ 우리나라의 가입 후 역할 제안

- 글로벌 수준에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학교급식이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보호, 양성평등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하며 다수 SDGs에 기여함을 옹호함으로써 전 세계 학교급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와 자원 동원에 기여
- 실천연합의 태스크포스/실무그룹에 대한 참여
 - 실천연합의 의사결정기구이자 주요 회원국들이 활동 중인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여, 실천연합의 전략적 운영방향, 연간 우선순위, 사무국 및 이니셔티브들의 활동에 대한 지침 제공 등에 적극 참여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에서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정보 공유, 모범사례 및 국가별 경험 전파, 국가 간 협력을 도모
- 실천연합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 학교급식 및 영양을 위한 연구컨소시엄에 대한 국내 연구기관 참여, 동료 간(peer-to-peer) 모범사례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등에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정보와 식생활 교육 추진 경험 등을 공유
 - 또한, 타 국가들의 학교급식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고, 가능한 경우 국내 학교급식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 개도국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WFP와 같은 채널을 통해 특히 저소득국가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증대함으로써 2023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매일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 국내 학교급식 프로그램 및 식생활(영양) 교육 강화

- 국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기에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
- 올바른 식습관,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원산지 및 영양 표시제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식생활에 기인하는 질병과 영양불균형 등을 방지

2.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

■ 개요

○ 배 경 : 미국은 현재와 미래 인구의 식량안보와 영양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원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21년 9월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SPG) 실천연합을 출범

○ 목 표 :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차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적화하는 생산성 증대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식량안보 및 영양, 식품안전, 식품의 가격적정성 및 접근성, 식단의 품질, 농민 및 농장 근로자의 소득·복지, 형평성 및 포용성, 식품 손실 및 폐기, 동물복지, 자원보존, 생물다양성, 토양 건강, 수질, 회복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등 여러 목표 간의 영향과 균형을 고려하는 생산성 증대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 촉진

- SPG 실천연합은 식량 및 영양 안보, 빈곤 완화, 농민 및 농장 근로자 복지, 자원 보존 및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6개 SDGs, 즉 SDG 1, 2, 8, 13, 15, 16에 기여할 것이며, SDG 2.3 및 2.4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진

* (SDG 2.3) 2030년까지 토지, 기타 생산적 자원 및 투입재, 지식, 금융 서비스, 시장,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통해 소규모 식량 생산자, 특히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증대

* (SDG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량을 늘리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기후변화, 극한기후, 가뭄, 홍수 및 기타 재해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양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구현

○ 회원국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U집행위원회,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베트남, 필리핀,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터키 등

- 국가 외에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옥수수밀개량센터, 국제감자센터, 신젠타 등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NGO, 시민사회, 청년단체, 농민 및

생산자 단체, 농기업 등(개인 제외)을 회원으로 함

○ 조 직 : 미농무부(USDA)가 실천연합의 회의와 연간 보고에 관한 조정을 제공

- 실천연합은 격년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자금 수집 및 분배 메커니즘이 아니므로 참여를 위한 재정적 기여는 불필요
- 실천연합 회원들이 주요 성과에 교환에 대해 매년 보고하길 독려하나, 이 또한 필수는 아님

■ 운영방식

-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모범사례, 교환, 혁신적인 증거기반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전파하는 플랫폼을 제공
 - 전통적인 지식과 경험에 뿌리를 둔 접근방식, 사회적·행동적·관리 및 제도적 구조의 혁신, 최첨단 기술을 통합하는 접근방식 등
-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회원들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차원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적화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행동
- 기후변화를 위한 농업혁신 미션(AIM4C/AIM for Climate)과의 관계
 - 두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전 세계의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와 혁신을 가속화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독립적으로 설계되고 출범한 AIM4C와 SPG 실천연합은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강조점과 이행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주요 성과

- SPG 실천연합 회원들은 연합의 출범 이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협력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지원해옴
- (프로젝트 1) 파키스탄 농업발전(PAD)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원예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목 적 :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 및 고추, 토마토, 대추야자, 바나나 등 원예작물 가치사슬에서의 시장 접근성 제고
 - 주도 국가/기관 : 미농무부(USDA), Winrock International
 - 장 소 : 파키스탄 Punjab주 및 Sindh주
 - 내 용 : PAD 프로젝트(2016-2024)는 농업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향상된 농업 생산 및 수확 후 기술·관행의 채택을 장려하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

- 결 과 : 2022년 9월 기준, PAD 프로젝트로 4만1,321명의 직접적 수혜자(3만7,000명의 생산자 포함)가 발생했으며, 3만4,000만명 이상의 개인이 생산기법과 수확 후 관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음

- (사회적) 포용적인 접근법을 통해 소농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환경적) 고효율 관개 시스템과 GAP를 결합한 결과, 물 비용은 51%, 영양소 비용은 53%, 해충 관리 비용은 37% 절감됨. 점적 관개를 사용하면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생산자를 위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음
- (경제적) 프로젝트의 수혜자 3만7,000명이 고추, 토마토, 대추야자, 바나나를 총 7억9,220만 달러 이상 판매하여 해당 지역의 많은 중소 농가의 소득을 제고함

○ (프로젝트 2) 콩고의 양식업 종사자 역량 강화

- 목 적 : 지속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어류 생산 개선 및 어류 가치사슬 강화

- 주도 국가/기관 : EU 집행위원회, EU

- 내 용 : 어민들이 자체 자원(자금 및 노동력)을 동원하여 직접 연못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고, 그룹으로 조직되어 그룹 간 지식공유와 네트워킹을 촉진하며, 지역 및 국제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토록 함

- 결 과 :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명의 양식업자를 지원하여 40헥타르의 연못에서 어류 생산량이 20% 증가함. 30명의 여성이 유통 교육을 받았으며, 20명의 현지 기업가가 생산자와 협력하여 자문 서비스 및 운송 중 콜드체인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적) 1,000명의 양식업자, 20개 단체 및 수많은 가치사슬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 여성에 대한 유통 교육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증대함. 또한, 생산량이 증가하여 현지 식량안보가 향상됨
- (환경적)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카사바, 토란, 고구마 잎 등 농업 부산물이나 동식물 폐기물로 만든 퇴비를 재활용함
- (경제적) 소규모 가족농의 생계 다각화를 촉진함. 양어 활동은 가구의 식량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추가 수입을 제공함

○ (프로젝트 3) 항생제 내성 감소

- 목 적 : 축산 부문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

- 주도 국가/기관 : EU 집행위원회, 27개 EU 회원국

- 장 소 : 27개 EU 회원국

- 내 용 : EU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2030년까지 동물사육과 양식업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EU 판매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원헬스 행동계획(2017년 6월 채택)과 항생제 사용에 관한 다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항생제 내성에 적극 대응

- 결 과 : 원헬스 접근법과 여러 조치의 조합은 EU 내 축산물 생산에서 항생제 사용을 성공적으로 감축시켰으며, 동물복지의 개선은 동물건강에 기여하여 항생제 사용 감소로 이어짐

■ 우리나라의 가입 후 역할 제안

- 단독 또는 타 회원국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 전 세계의 농업과 푸드시스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단독 또는 타 회원국과 협력해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성과와 교훈을 공유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라이스벨트 사업 등을 통한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전수 및 개도국 관계자 초청연수 등의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농 소득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 대한 지식 공유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팜, 디지털 기반 스마트용수 관리 시스템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농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및 확산할 수 있음
- 기후변화를 위한 농업혁신 미션(AIM4C, AIM for Climate)에 대한 참여도 향상
 -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UAE가 기후변화와 세계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스마트 농업에 대한 투자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도하고 있는 AIM4C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바, AIM4C의 혁신 허브(Innovation Hub)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기술 및 접근법 공유, 혁신 스프린트(Innovation Sprint)에 대한 참여 등을 강화하여 전 세계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제6장 UN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 대응전략 및 결과

1. 성과점검회의 대응전략

회의 개요

- 목 적 :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현황 점검 및 이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 검토
- 일 정 : 2023. 7. 24(월) ~ 26(수), FAO 본부
- 참석대상 : FAO 회원국,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옵서버 대표

	7월 24일(월)			7월 25일(화)			7월 26일(수)			
	본회의	리더십 다이얼로그	특별행사	본회의	리더십 다이얼로그	특별행사	본회의	리더십 다이얼로그	특별행사	
09:30~11:00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하는 학교급식	건강한 식단, 문화 및 전통	푸드시스템 전환 측정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 성공, 도전과제, 향후 방향	사람의 영양과 건강을 위한 푸드시스템	청색전환 - 수생식품 시스템 증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 동원	푸드시스템을 위한 파트너십	푸드시스템을 위한 항공우주기술	
11:00~12:30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	실천연합은 어떻게 정부를 지원하는가?	식품의 실제 비용 비료: 단기 필요 충족 및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향한 노력		지구를 위한 푸드시스템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한 아프리카의 식량주권 및 회복력 구축		2025년을 향한 국가컨버터 권한 강화	무역	공동 SDG 기금 '푸드시스템 창구' 발족
12:30~14:30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14:30~16:00	공식 개회식			식량 및 기아 위기 극복: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변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위한 디지털화	SDG 정상회의, 미래 서밋, UNFSS+4를 향하여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 푸드시스템 전환에 관한 주요 레버	토착민 푸드시스템	
16:00~17:30	푸드시스템 및 기후행동	이해관계자 라운드 테이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도시화 활용		과학, 기술 및 혁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위한 가치사슬 민간부문		공식 폐회		

■ 대표단 구성

- UN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발송한 초청장에 따라 대표단은 가급적 고위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국가컨비너를 포함
 -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Virtual Campus를 통해 비대면 참석 가능
 - 공식 대표단 등록을 위해서는 현장 및 비대면 참석자 모두 FAO Members Gateway를 통해 등록

■ 주요 활동계획

-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에서 발표한 성과점검회의(UNFSS+2) 정부대표단 안내사항 및 참가자 인포노트를 참고하여 회의 참여
 - 3일 간 본회의, 리더십 다이얼로그, 특별행사에서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병행 개최되는바, 본 회의를 위주로 주요 의제에 관한 세션에 참여
 - 본회의 1일차 : 고위급 개회식, 3개 고위급 세션
 - 본회의 2-3일차 : 4개 세션, 폐회식
 - 본회의 세션에 대한 참여 준비 시, 일관성 있는 논의를 위하여 조정허브에서 제시한 안내성 질문(guiding questions)을 유념하여 발언문을 준비
 - 주요 의제 토의 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회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의 입장과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한편, 회의 참여를 준비함에 있어 상반기 중 개최된 5개 지역회의(‘23.2~4월), 글로벌 컨퍼런스(‘23.4월) 및 8회의 다이얼로그(‘23.2~7월)에서의 논의를 통해 회원국 등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주요 논의결과를 참고할 필요
-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 성공, 도전과제, 향후 방향’ 세션 등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에서 발언 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목표 및 정책 우선순위를 언급하고,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
 -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관련 발언 시, 우리나라가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가경로인 ‘국가식량계획’과 글로벌 식량공급망 위기에 따라 수립된 식량자급률 제고 등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국정과제들에 대해 소개
 - 또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K-라이스벨트’ 등 공적개발 원조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
- 우리나라가 가입 예정인 두 개 실천연합(학교급식 실천연합 및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에 관련된 논의 동향 파악
 - 특히, 회의 첫날 본회의 첫 세션으로 예정된 ‘학교급식’ 세션에서는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활동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바, 우리나라의 가입 이후 효과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논의를 모니터링할 필요

※ 본회의 세션 안내성 질문

일자	세션	안내성 질문
7/24	학교급식	- 학교급식 사업이 각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가입한 이후 각국이 달성한 것? - 파트너들은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는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	- 국가,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은 푸드시스템에 대한 자금조달을 확대 및 전환하는 도전과제에 부응하고 있는가? - 국제 자금조달 구조의 개혁과 새롭고 혁신적인 자금조달 메커니즘은 파트너 국가들의 기존 노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 정부와 개발파트너들은 어떻게 더 건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향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러한 투자가 소규모 생산자와 주요 행위자에게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가?
	푸드시스템 및 기후행동	- 전체 가치사슬에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효율적인 현지시장과 순환경제를 강화/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기후적응, 조기경보 시스템 및 위험 관리를 위해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25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 성공, 도전과제, 향후 방향	-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귀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성공사례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 푸드시스템전환의 진전을 방해하는 도전과제와 병목현상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2025년 성과점검회의까지 푸드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식량 및 기아 위기 극복: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 국가 푸드시스템 전환 경로/조치는 증가하는 충격과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와 영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적용했는가? - 지금까지 경험한 성공, 도전과제, 병목현상에서 도출된, 2030년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요 행동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7/26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 동원	- 건강한 식단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증대시키고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가? -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과학과 정책의 접점을 강화하여, 보다 공평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경로를 설계하고 이행하는 방법은? -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이행수단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귀국은 자금 조달, 데이터 및 통계, 과학 및 혁신, 거버넌스 및 무역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SDG 정상회의, 미래 서밋, UNFSS+4를 향하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가속화를 위해 귀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향후 2년간 전환을 위한 주요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대규모 행동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성과점검회의의 결과

■ 참석 개요

○ 일자 및 장소 : 2023. 7. 24(월) ~ 26(수),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

○ 참 석 : 182개 FAO 회원국,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옵서버 대표

○ 대표단 구성

- 주이탈리아대사관 : 이성호 대사(수석대표), 김형식 농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 허정은 서기관, 이민지 주무관

- FAO 한국협회 : 조윤경 차장

■ 주요 내용

○ 금번 성과점검회의(UNFSS+2)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주도하는 학교급식,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자금조달, ▲공식 개회식, ▲푸드시스템과 기후행동 등 7개 본회의 세션과 다수 리더십 다이얼로그 및 특별행사가 병행 개최됨

○ 회의 기간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Qu Dongyu FAO 사무총장, Alvaro Lario IFAD 총재, Cindy McCain WFP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시에라리온 대통령, 소말리아 대통령, 에티오피아 총리, 방글라데시 총리 등 각국 정상급 21명, 장관 125명 등 다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현황, 성과 및 도전과제 등을 논의함

○ 참석자들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 과감한 기후행동, 과학·혁신 및 데이터 역량, 디지털화, 법적·제도적 인프라, 우호적 정책과 거버넌스, 청년·여성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 푸드시스템 전환 가속화를 촉구하며 여섯가지 우선순위를 포함한 유엔 사무총장의 ‘행동촉구서(Call to Action)’가 폐회 시 발표됨

- (6가지 우선순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내 푸드시스템 전략 통합, ▲사회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구축, ▲연구, 데이터, 혁신 및 기술역량에 대한 투자, ▲모든 현지수준에서 여성, 청년, 토착민의 참여적 설계 및 이행 심화,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 장려, ▲장단기적 양허성 금융, 투자, 예산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세부 결과

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주도하는 학교급식’고위급 본회의 세션

○ Cindy McCain WFP 사무총장, 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 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 Chrysula Zacharopoulou 프랑스 개발부문 국무장관, Jaana Husu-Kallio 핀란드 농림부 차관, Jenny Moffitt 미농무부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 차관, A. 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 Anne Beathe Tvinnereim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학교급식 실천연합(School Meal Coalition)의 설립 이후 진전상황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Cindy McCain WFP 사무총장은 2021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16억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빈곤율은 상승하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상호연계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식별했다고 밝힘
 -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공동 의장인 핀란드와 프랑스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가장 취약한 아동이 하루 중 유일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강력하고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음에 공감하며 46개국 및 아프리카 연합과 함께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학교급식 실천연합(사무국: WFP)을 출범시켰으며, 현재는 84개국과 95개의 파트너들이 참여 중이라고 밝힘
 - 현재 가입국들은 ▲자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원, ▲팬데믹 이전에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까지 급식 확대, ▲현지 조달을 통한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7억3,000만명의 초등학생이 매일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할 것을 촉구함
- 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2022년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가입한 이후, 2030년까지 학생들의 영양가 있는 급식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목표를 세우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학교 등록률 증가, 신체적 성장지연 감소, 교육 시스템에서의 성별격차 해소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함
- Chrysula Zacharopoulou 프랑스 개발부문 국무장관은 세계가 점차 분열되고 각종 위기와 개발에 관한 도전과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실천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하는 국제적 파트너십과 공동 행동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밝힘
 - 학교급식 실천연합의 성공은 간결하지만 강력한 목표 설정 및 구체적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단체, 민간부문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힘에 기반한다고 설명하고,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 사례와 같이 식량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함
 - 프랑스는 WFP와 함께 수많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2,800만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각국이 SDG 정상회의, COP28 등 주요 국제 포럼에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정치적 의지를 보여줌과 더불어 재정동원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함
- Jaana Husu-Kallio 핀란드 농림부 차관은 실천연합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장관급 회의가 지난해 헬싱키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핀란드 외교부가 실천연합의 영향을 문서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함
 - 검토 결과, 성공의 3가지 요인이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이에 투자하는 지도자들의 헌신, ▲강력한 사무국을 포함한 유연한 거버넌스, ▲국가주도 행동에 중점을 둔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으로 식별됨
 - 주요 성과로 현재까지 실천연합이 2030년까지 7억3,000만명의 아동이 매일 학교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의 절반수준(4억1,800만명)을 달성했음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동원하고, 정부의 약속과 진전상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관심있는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지침을 완성할 것을 권고함

- Jenny Lester Moffitt 미농무부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 차관은 지난해 가을, 미국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아, 영양, 건강에 관한 백악관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식량 접근성과 학교급식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기아와 영양, 건강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힘

- 건강한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미국 내 10개주에서는 이미 보편적 무상급식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농무부는 2032년까지 모두를 위한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지 생산자로부터 식품을 조달하는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함

- 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방글라데시가 오늘 학교급식 실천연합에 가입한 점을 환영하는 한편, 오늘 논의가 학교급식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농촌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밝힘

-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학교급식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도달범위를 확대해야 함,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많은 SDGs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도구임,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농촌의 생계를 더욱 회복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개도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함

나.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자금조달’ 고위급 본회의 세션

- Hassan Sheikh Mohamud 소말리아 대통령, Rigathi Gachagua 케냐 부통령, Ali Bety 니제르 장관, Alvaro Lario IFAD 총재, Indermit Gill 세계은행 부총재, Anne Tvinnereim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 Chrysula Zacharopoulou 프랑스 장관 등은 각종 위기 속에서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푸드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함

- Hassan Sheikh Mohamud 소말리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수십 년 전과는 다른 심각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특히 소말리아와 같이 매우 취약한 국가는 국제금융기구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롭게 창의적인 모델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함

-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모든 유형의 국제금융기구가 기존의 접근법이 아닌 새로운 푸드시스템 자금조달 모델을 재고해야 함

- Rigathi Gachagua 케냐 부통령은 국가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는 농민 등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국제개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기존과 같은 자금조달 구조의 보편적 적용은 아프리카 대륙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무력분쟁, 가뭄 등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직면한 아프리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보고, 아프리카 대륙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격적 자금지원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강조함

- Alvaro Lario IFAD 총재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연간 약 4,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현상 유지와 관련된 숨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12조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행동하지 않는(inaction) 비용이 행동하는(action)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강조함
 - 또한, 취약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량원조와 투자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투자가 하위 20%의 빈곤층을 위한 친빈곤 농촌 정책에 중점을 두어 큰 규모의 주체가 아닌 작은 규모의 주체와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IFAD와 세계은행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실시간 정보와 증거기반을 제공하여 재정격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과 푸드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는 3Fs(Financial Flows to Food Systems) 도구를 개발하였다고 소개함
- Indermit Gill 세계은행 부총재는 세계 식량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 있으나, 국가별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국내 식량가격 인플레이션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전 세계는 현재 농업에 대한 공공 지원에 연간 약 8,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중 10%만 재목적화(repurposing)하더라도 식량안보 개선, 빈곤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 40%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힘
 - 교육 및 보건 시스템과 달리 푸드시스템은 주로 공공이 아닌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도 전환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Anne Tvinnereim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은 농업 부문이나 푸드시스템이 기후 완화 및 적응에 있어 문제점이자 해결책이며 기후금융이 존재하기 때문에,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이러한 가용한 기후 관련 자금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빈개도국에도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법과 관련, ODA 자금을 사용해 민간투자의 위험을 일부 제거하여 최빈개도국의 식량생산 및 식품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힘

다. 공식 개최식

- 공식 개최식은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Qu Dongyu FAO 사무총장, 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 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 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 Alvaro Lario IFAD 총재, Cindy McCain WFP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연설
 - 2021년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세계 푸드시스템이 붕괴되었으며 수십억명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한바 있음
 - 7억8,000만명 이상이 기아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손실 또는 폐기되고 있으며, 30억명 이상이 건강한 식단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자원과 부채부담으로 인해 푸드시스템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식량 생산, 포장 및 소비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발생시키고, 전 세계 담수의 70%를 사용하며, 엄청난 규모의 생물다양성 손실도 초래하고 있음
- 많은 지역사회가 약간의 충격으로도 식량불안이나 기근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전 세계 밀과 보리 수출의 약 30%, 옥수수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등 세계 식량안보에 있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함
-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 핵심영역인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부와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환경적 지속가능성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대규모 투자) 각국 정부가 유엔의 장기적 자원조달을 위한 SDG Stimulus 요청에 응답하고, 식량·에너지·금융에 관한 글로벌 위기대응 그룹이 제안한 식량수입금융기금(Food Import Financing Facility)을 지원하여 심각한 식량불안에 직면한 최소 50개국의 식량접근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
 - (협력) 정부와 농업·식품·운송·소매 업계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의 비용을 낮추고 지리적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식품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무역장벽과 수출제한을 철폐하며, 과학 및 기술을 이용하여 푸드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함
 - (환경적 지속가능성) 식품 가공, 포장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토지, 물 등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환경 및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함

○ 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연설

- 식량안보는 항상 이탈리아 외교정책의 전략적 지침 중 하나이자 이탈리아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영역이었으며, 팬데믹은 국제 무역과 이동성의 근간을 흔들고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화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낸 바 있음
 - 팬데믹의 영향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역흐름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가격을 혼란에 빠뜨렸고, 특히 남반구의 최취약국들을 희생시키며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초래함
 - 전쟁은 전 세계 곡물 유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인해 세계 식량안보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탈리아는 흑해곡물협정의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러시아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함

- 본인은 남반구, 특히 아프리카의 문제를 자주 언급하는데, 이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프리카가 가난한 대륙이 아니기 때문임
 - 아프리카는 오히려 전 세계 광물자원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약 50%가 경작가능하여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체 자원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같은 접근방식으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협력하여 그들이 스스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Qu Dongyu FAO 사무총장 연설

-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과정을 통해 농식품시스템이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막대한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음
 -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농식품시스템이 더 나은 생산, 영양, 환경, 삶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파악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음
-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여러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식품시스템에 거는 높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
- FAO는 기술적, 전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회원국의 농식품시스템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시스템 전환 가속화를 위해 4가지 핵심영역인 ▲과학 및 혁신, ▲데이터 역량 향상, ▲금융, ▲포괄적 농식품시스템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둠
 - (과학 및 혁신) 적은 자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 회복력 향상, 식품 손실 및 낭비 감축 등을 위한 기술 활용도 요구됨
 - (데이터 역량 향상) FAO는 핸드인핸드 이니셔티브의 지리공간 데이터 플랫폼, 1000 디지털 마을 이니셔티브, e농업 등을 촉진 중
 - (금융) 목표에 맞게 조정된 공공 및 민간 금융을 확대해야 함
 - (포괄적 농식품시스템 거버넌스) 최고 수준에서 포괄적인 농식품시스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면 총체적인 국가 식품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라. '푸드시스템과 기후행동' 고위급 본회의 세션

- Antonio Tajani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Mariam Almheiri UAE 기후변화 및 환경부 장관(COP28 개최국), QU Dongyu FAO 사무총장, 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부 관료들이 참석하여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해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Antonio Tajani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세계 식량안보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가오는 COP28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이러한 측면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전환에 있어서의 균형, ▲우주, ▲기술, ▲기상학이라고 소개하고, 실용적인 해결책과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우선순위 기

후 행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Mariam Almheiri UAE 기후변화 및 환경부 장관은 12월 개최되는 COP28 개최국으로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과정에서 생성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COP28 푸드시스템 및 농업 의제(Food Systems and Agriculture Agenda)를 공식 출범시켰음
 - 상기 의제의 4가지 축(pillar)을 ▲국가적 리더십과 행동, ▲농민, 어민, 목축업자, 농기업 및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비국가 행위자들의 노력, ▲적응 또는 완화를 목표로 하는 주요 혁신의 채택 및 활용, ▲자금조달이라고 소개함
- 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지난해 7억3,500만명이 기아에 직면했다는 최신 FAO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SOFI) 보고서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기후위기가 식량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함
 - 또한 현재 농식품시스템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민, 목축업자를 포함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 사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함
 - FAO가 기후변화 전략과 행동계획, 다른 주요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주요 임무로 삼고 회원국들의 과감한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12월 COP28에서 FAO가 기아종식과 기후 행동 촉진을 위한 농식품 부문 해결책을 강조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첨언함

마.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 성과, 도전과제 및 향후 방향' 본회의 세션

- 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인간과 지구를 위한 혜택과 번영에 관한 큰 잠재력을 지닌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각국이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을 변화의 기회로 전환하여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함
 - 그는 세계 농식품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농업,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무역, 영양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에, FAO는 식량과 농업이 상호연관된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함
 - 그러나 이러한 여러 의제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해결책이 존재하나 서로 중복되거나 단절된 노력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단기 및 장기 노력을 연계하며 해결책의 시너지 창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기조연설자로 나선 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는 2021년부터 국가 및 지방 차원의 대화를 통해 기존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을 조사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경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지역의 농업을 지원하고 더 나은 저장시스템에 투자하여 식량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 토착 푸드시스템을 재활성화하고 전통 식량 작물을 되살리는 등의 다양한 조치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자금부족이라고 첨언함

- 패널토의에는 Mohammad Abdur Razzaque 방글라데시 농업부 장관, Mariam Almheiri UAE 기후변화 및 환경부 장관, Jenny Moffitt 미농무부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 차관 등이 참여함
 - 이들은 농식품시스템의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술 발전, 농민 지원,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청년들이 직접 식량을 재배토록 하거나 농민들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해결책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편,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각국이 2021년 이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취한 노력과 성과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발언함
 - * 한국은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한국의 국가 경로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후 글로벌 식량공급망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식량자급률 제고 등 푸드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복수의 국정과제를 수립하였으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 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K-라이스벨트’ 등 공적개발원조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문을 서면으로 제출함

바.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본회의 세션

- Cindy McCain WFP 사무총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량을 공급하는 글로벌 시스템은 분쟁, 기후위기, 경제적 혼란, 코로나의 여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점차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나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이 없이는 SDGs를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함
 - 따라서 모두가 영양가 있고 저렴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경, 기후 및 사회보호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WFP는 기술 지원과 자문을 통해 소농들이 상업 시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자체 구매력을 활용해 대부분 식품을 현지 업체로부터 조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농들의 농업투입재와 교육 접근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첨언함
- Francesco Lollobrigida 이탈리아 농업, 식량주권 및 임업부 장관은 회복력 구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수확 후 손실 감소, ▲위험 감소, ▲혁신 및 기술력 향상을 강조함
 - 이탈리아는 2016년부터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순환경제를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관리시스템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함
- Olawale Rotimi JR Farms 대표는 민간부문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하며 민간부문 등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한편, 식량안보 및 푸드시스템을 정치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Anne Beathe Tvinnereim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은 아프리카에 여성을 위주로 한 소농이 3,300만명이 이르며 이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아프리카가 매년 750억달러 규모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산, 유통, 운송 등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첨언하고, 식량주권에 대한 논의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리아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량불안과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

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인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밝힘

- 여기에는 주로 시리아의 여성과 청년들이 포함되며, 테러와 일부 국가의 공격으로 인해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바, 시리아의 조기 회복과 발전을 위해 여러 조직과 협력하길 희망함

○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흑해곡물협정의 현실과 반대된다고 밝힘

- 러시아는 글로벌 식량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그간 흑해곡물협정에 참여해왔으나, 선진국이 우크라이나 곡물의 대부분을 받았고 빈곤국들은 전체 물량의 3%만 받았다고 지적함

-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것처럼, 러시아 농산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불법 제재를 제거할 것을 워싱턴, 브뤼셀, 런던에 촉구한다고 밝힘

사.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 동원' 본회의 세션

○ 2개 파트로 구성된 본 세션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재원 창구 및 도구 발굴 등 재정지원 방안을 비롯한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수단에 대해 논의함

- 논의 주제 : (파트 1)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 도달할 필요, (파트 2)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 동원 : 총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호 연관된 장치

○ (파트 1) 에스와티니 부총리, IFAD 부총재보, 세계은행 농업 및 글로벌 식량국장을 포함한 7인의 패널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 도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Themba Masuku 에스와티니 부총리는 푸드시스템이 기후변화, 팬데믹, 분쟁, 경기침체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적절한 영양 및 생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푸드시스템 다이얼로그 개최, ▲ 관련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식 제고 기여, ▲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지원 메커니즘 수립 등

- Martien Van Nieuwkoop 세계은행 농업 및 글로벌 식량국장은 재정지원의 흐름을 진단하는 5대 축(pillar)으로 ▲ 푸드시스템 인프라, ▲ 농업개발 및 가치사슬, ▲ 사회지원(긴급 식량지원 등), ▲ 기후변화 및 자연자원, ▲ 영양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2021년도의 글로벌 공적개발원조(ODA)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함

• 그는 긴급 식량지원 등 단기적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푸드시스템에 대한 ODA는 감소세인 점을 지적하고, 세계은행은 280억달러 상당의 식량농업 포트폴리오 중 소농 및 중소기업(SMEs)을 지원하는 비중이 45%로, 약 130~140억달러 상당이 농민을 지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국제금융공사(IFC)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점차 확대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함

- Donal Brown IFAD 부총재보(사업관리과)는 대부분의 ODA 예산이 장기적인 푸드시스템보다는 단기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에 투입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장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인도주의적 투자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ODA 규모 외에도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mapping)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이 올바른 곳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등 투자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Donal Brown은 IFAD가 WB 등 기타 국제금융기구(IFIs)와 협력함으로써 공동 투자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 가공, 접근성, 농촌 인프라는 물론 자연자원 관리, 기후변화 적응 등 농촌 빈곤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푸드시스템의 취약점과 관련한 약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Michael Chorske 페가수스자산운용(Pegasus Capital) 운영파트너는 본 자산운용사가 주요 파트너인 녹색기후기금(GCF)과 함께 개도국 신흥시장의 녹색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푸드시스템에 관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창출 등 투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함
 - 소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비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LGIM)의 Giancarlo Sandrin 이탈리아 사무소장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LGIM이 기후변화 등 사회적 투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장 선임 반대 투표권 행사, 투자 회수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인 민간투자의 방향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나이지리아 Lovelyn Nnenna Ejim Nat. 쌀농민협회 부회장은 농업 분야에 여성 근로자들이 60~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 세계 인구가 섭취하는 식량의 80%를 농촌에 거주하는 소농이 생산한다고 강조하면서 생산부터 시장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개발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파트 2) FAO 경제수석, IFAD 부총재보, 니제르 식량안보장관,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국장 등 10인의 패널이 상호연관되어 있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에 대해 논의함
- Juan Lucas Restrepo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 산하 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 연합(Alliance Bioersity International-CIAT) 소장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과학 및 혁신에 대한 투자, 디지털화, 무역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푸드시스템 전환시 발생하는 비용이 모든 남·북반구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라고 설명하면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원 조달이 SDG 자원 조달 전략의 핵심에 있어야 하고, 부족한 자원은 ODA 증액,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을 통한 혁신적인 민간투자 장려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함
 - Shakuntala Thilsted CGIAR 영양, 건강 및 식량안보 플랫폼 국장은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및 과학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에서 구축한 과학자문위원회(SAC)의 노력이 정책입안자부터 소농에 이르기까지 농식품시스템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Maximo Torero Cullen FAO 경제수석은 ▲푸드시스템을 전환시 디지털화 및 데이터의 중요성, ▲건강한 식이에 접근하기 위한 무역의 역할, ▲자원 조달 및 거버넌스에 대해 강조했음

며, 제도적인 개혁을 요하는 각국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해당 국가에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Jyotsna Puri IFAD 부총재보는 극빈층의 소득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생계 지원, 현금 지원, 교육, 직업 훈련, 현금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개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또한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감수하게 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푸드시스템의 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Martien Van Nieuwkoop WB 농업 및 글로벌 식량국장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경로가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점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국의 이행경로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4차원 프레임워크(▲인센티브, ▲혁신, ▲투자, ▲제도)를 제시함
- Agnes Kalibata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회장은 무역 등 일부 분야에서 국가 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으며, 보건, 에너지, 환경, 무역 등 부문 간 협력 없이는 진전할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각 국가가 대화에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함
- Satu Santala IFAD 부총재보는 푸드시스템 전환 없이는 2030 의제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상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상호연관성이 높은 이행수단과 재원을 동원하여 푸드시스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 'SDG 정상회의, 미래 서밋, UNFSS+4를 향하여' 본회의 세션

- 본 세션은 Hans Hoogeveen FAO 이사회독립의장(ICC)과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각국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공유하고 성과점검회의의 주요 교훈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함
 - Hans Hoogeveen 의장은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 재정 및 농업혁신이 있지만 그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을 이행해야 하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국가 차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Janusz Wojciechowski EU 농업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 SDGs 가속화를 위한 유럽판 그린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정상회의 이후 EU 회원국들은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수립하는 것에 전념했다고 강조함
 - 유린판 그린딜의 일환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등을 EU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소개했으며, 푸드시스템 전환은 기후 중립성,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보호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함

- 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무부 차관은 식량불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개도국 대상 이탈리아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 분야라고 설명했으며, 나폴리 지역 내 농업기술 허브 구축 사례, 개도국을 위한 기후기금 설립을 위한 40억유로 이상의 예산 할당 사례 등을 소개함
- Fernanda Machiavelli 브라질 농촌개발부 차관은 금번 회의의 시사점으로 불평등을 제시했으며,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에 중사하는 가족농, 농촌여성 및 청년농, 지역주민 및 토착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 브라질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식량조달사업, ▲학교 무상급식, ▲국가 생태·유기농업 정책, ▲가족농 역량강화사업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위한 정부지침 마련 ▲산림파괴 제로 달성, ▲대규모 생태전환사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함
- Abdullah bin Abdulaziz bin Turki Al-Subaie 카타르 행정자치부 장관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식량에 대한 접근성 및 흐름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가치사슬 전반에서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소비습관을 기르는 등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 카타르는 지난 수년간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물 절약 및 재활용 부문 기술투자를 통해 재활용된 60%의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함
- Mahinda Amaraweera 스리랑카 농업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확전·후 투입재의 가용성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국가 재정위기로 비료 수급에 문제가 있었지만 FAO 등 공여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콜롬보 주재 UN 사무소가 WFP와 공동으로 작물 및 식량안보 조사단(CFSAM)을 수행하는 등 푸드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 Fred Mitchell 바하마 외교부 장관은 군소도서국이자 카리브공동체(CARICOM)의 일원으로서 본 성과점검회의와 같은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이외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Shakuntala Thilsted 과학자문위원장은 성과점검회의의 핵심 시사점으로 ① 과학혁신을 통한 푸드시스템 전환 촉진 및 국가경로 이행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할 필요, ② 토착 친화적인 해결책, 전통지식과 혁신 간 결합 등을 통해 민주적인 과학에 기여할 필요, ③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경로 탐색에 있어 기존 국가적 노력을 보강할 필요를 강조함
- Lana Weidgenant ProVeg International 홍보정책매니저 겸 청년대표는 청년들이 정책옹호,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 등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경로를 설계 및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Arnold Puech d'Alissac 세계농민단체(WOF) 대표는 푸드시스템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농민 등 식량 생산자들의 건강, 수요 및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농민단체와 정치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농업의 수요에 기반한 재정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함

- Michael Keller 세계종자연맹(ISF) 회장은 푸드시스템 전환의 시발점이 농민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경로 이행 시 한정된 공공·민간 재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영세소농의 과학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경로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함

자. 폐회식

- 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금번 성과점검회의가 현재까지 이룩한 진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창구였기를 바란다며 언급하면서 현재 기울이는 노력과 더불어 FAO가 회원국 및 이들의 4대 개선(four betters)을 향한 국가경로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함
 -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다수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수많은 난관 속에서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정치적 헌신에 대해 논의한 점을 높이 평가함
 - 또한 FAO가 모든 회원국, 농식품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를 위한 중립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상기했으며, 특히 효율성을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공동 협력 강화를 위해 FAO가 모든 유엔 파트너 기구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 사무총장은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의 가치와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10월에 FAO 로마 본부에서 개최 예정인 2023 세계식량포럼(World Food Forum 2023)에 참석할 것을 독려함
- 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행동 촉구서(Call-to-Action)’ 내용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금번 성과점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주최국인 이탈리아 정부, 회원국, 로마소재유엔기구(RBAs)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에 감사를 포함
 - 한편, 2억5,800만명이 극심한 식량불안에 놓여있는 가운데, 2030년에도 6억7,0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푸드시스템이 처한 도전과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성과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체없이 노력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강조함
 - 유엔 사무총장의 ‘행동 촉구서(Call to Action)’에 제시된 6가지 목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내 푸드시스템 전략 통합, ▲사회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구축, ▲연구, 데이터, 혁신 및 기술역량에 대한 투자, ▲모든 현시수준에서 여성, 청년, 토착민의 참여적 설계 및 이행 심화,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 장려, ▲장단기적 양허성 금융, 투자, 예산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제7장 종합 시사점

- UN은 2030년을 목표기한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보다 지속가능하며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포용적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2021년 9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를 개최한바 있음
 - 2021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당시 발표된 'UN 사무총장 선언문'은 2년마다 UN 사무총장이 글로벌 성과점검회의를 소집하여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달성현황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7월 24~26일 첫 번째 성과점검회의(UNFSS+2) 개최가 확정됨
- 첫 성과점검회의 개최를 앞두고 2023년 상반기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를 주도로 준비작업이 시작됨
 - 조정허브는 2023년 초 국가컨비너 및 FAO 사무총장과의 다이얼로그(2023.1.12.)를 시작으로 실천연합(2023.2.20)과의 회의, 5개 지역회의(2023.2~4월)와 글로벌 컨퍼런스(2023.4.24.~4.27) 및 8회의 주제별 컨비너 다이얼로그(2023.3~7월초)를 개최함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2023년 성과점검회의의 대응을 준비하였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및 유관 국제기구 활동 동향 모니터링, ▲우리나라 국가경로 실적 점검, 모범사례와 애로사항 분석·정리, ▲컨비너 다이얼로그(수시), 글로벌 컨퍼런스 등 UN 푸드시스템 관련 실무회의의 참여를 통한 논의 동향 파악, ▲우리나라 가입 예정 실천연합 사무국의 주요 활동 모니터링 및 역할 제안, ▲UN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의 대응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추진함
- 성과점검회의(2023. 7.24~7.26, 이탈리아 로마)에는 정상급 21명 및 장관급 125명 등 182개국 정부인사, 225개 비국가행위자,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30 의제 달성을 위하여 전 세계적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코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높은 관심을 확인함
 - 성과점검회의의 3일 간 본회의, 리더십 다이얼로그, 특별행사 총 3가지가 병행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단은 본회의를 위주로 참석 대응함
 - 본회의 세션 : (7월 24일) ▲학교급식,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 ▲공식 개회식, ▲푸드시스템 및 기후행동, (7월 25일)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 성공, 도전과제 및 향후 방향, ▲식량 및 기아위기 극복: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7월 26일)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 동원, ▲SDG 정상회의, 미래서밋, UNFSS+4를 향하여

- 특히, 우리나라는 7월 25일 오전 진행된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 - 성공, 도전과제 및 향후 방향' 세션에 대한 발언문을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경로인 국가식량계획 이행에 관한 국정과제 추진 및 K-라이스벨트 등 공적개발원조 확대 노력 등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

○ 회의 전반에 걸쳐 참석자들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 및 푸드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대, 혁신적 금융, ▲청년, 여성 및 식량 생산자를 중심에 둔 해결책,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각종 위기에 대한 회복력 구축,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과학 및 혁신, 데이터 역량 강화, ▲포괄적 농식품시스템 거버넌스 구축, ▲다중이해관계자 간 협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금번 성과점검회의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기후변화 및 환경부 장관은 COP 푸드시스템 및 농업 의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한편, 회의 기간 푸드시스템을 SDGs의 가장 영향력 있는 촉진제 중 하나로 부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와 체결함

- 이에 따라, 2023년 9월 예정된 SDGs 정상회의, 12월 COP28, 2024 미래 서밋 등에서 푸드시스템과 기후행동에 대한 논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과 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등이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탈퇴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복귀를 촉구했으며, 러시아는 지금까지 흑해곡물협정으로 빈곤국들이 아닌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간 점을 지적하며 서방이 러시아의 농산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불법 제재를 제거할 것을 촉구함

- 이와 같은 흑해곡물협정에 관한 논쟁은 FAO를 비롯한 식량농업 관련 국제회의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성과점검회의에 앞서 UN 푸드시스템 조정허브는 각국 컨비너들에게 UN 사무총장 보고서 준비를 위한 국별 자발적 진전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작성하여 조정허브에 제출한 바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2021년 9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국가경로로 제시한 '국가식량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지난 2년간 정부가 모두를 위한 영양공급, 자연기반 해결책 증진,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을 위해 취한 조치, 주요 성과와 도전과제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2025년 개최될 두 번째 성과점검회의까지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우리나라는 금번 성과점검회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개최된 지역회의, 글로벌 컨퍼런스, 수시 개최된 국가컨비너 다이얼로그 등에 참석하여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주요 분야인 자금조달, 회복력, 과학·혁신, 젠더 주류화 등에 대한 국제기구 및 타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정책적 노력에 관한 경험에 대해 학습하는 한편, 생산자,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폐회 시 발표된 UN 사무총장의 행동촉구서에 따라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2년 후 차기 성과점검회의(UNFSS+4)에서 국가 및 국제적 진전상황이 다시 검토될 예정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경로인 ‘국가식량 계획’의 3가지 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3-2027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계획들을 원활히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계, 생산자 단체, 민간기업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과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 예정인 실천연합에서 2030 SDGs 달성을 위한 학교 급식 및 지속가능산 생산성 증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지닌 지식을 공유하는 등 타국 및 국제기구와 향후 협력 및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해나갈 수 있음

별첨 | 유엔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UNFSS+2) 한국 발언문

■ 영문 발언문(안)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Lee Seong-ho, serving as the Ambassador of Korea to Italy. I am here to represen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f Korea, who unfortunately could not attend due to significant flood damage in Korea.

At the 2021 Summit, Korea set three key objectives in Korea's national pathway: ensuring a stable supply of food, fostering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access to healthy food. We also pledged to partak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lleviate hunger worldwide.

After that, the intensifying global food supply crisis has posed a significant challenge to Korea, a country that depends heavily on imports for food crops except for rice. In response to this,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several national initiatives aimed at transforming the food system, including increasing food self-sufficiency.

To this end, Korea is actively promoting strategic crops such as "floury rice," a rice variety that can act as a substitute for wheat. Additionally, we are providing agri-food vouchers to mitigate the impact of rising food prices on vulnerable groups. Moreover, we are ambitiously pursuing a shift towards low-input,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In addition to these measures, Korea is enhancing its resilience to the impacts of extreme climate change. We are investing in the strengthening of vital water infrastructure such as reservoirs and drainage facilities. Concurrently, we're leveraging the power of digital technology for smart water management systems, which allow for efficient water use and regular water quality monitoring. Our approach also involves

expanding the coverage of crop disaster insurance and widening the criteria for disaster classifications. This will ensure our farmers are better protected and able to withstand unforeseen challenges.

Recognizing the essential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ood systems transformation, Korea is actively increasing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agri-food sector. Korea, once a recipient of food assistance 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has now achieved self-sufficiency in rice and transitioned into a food assistance donor within a single generation.

We are currently collaborating with eight African nations to share Korea's agricultural innovation experience. This is not merely financial assistance, but a project designed to disseminate Korea's unique experience and expertise, which is a rare success story in the world. We're sharing our success story to help improve Africa's nutrition, especially for children.

In addition, starting next year, we plan to double our food assistance contribution through the U.N. World Food Program to address urgent humanitarian needs.

Until the 2025 Stocktaking Moments, we'll carry out these tasks. We'll also consult closely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ncrease our global contribution.

Thank you.

■ 국문 발언문(안)

안녕하십니까.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 이성호입니다. 한국의 수해 발생 등 긴급한 현안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신하여 발언합니다.

한국은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한국의 국가 경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아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쌀을 제외한 식량 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특히 큰 도전이 되었고, 한국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 등 푸드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복수의 국정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쌀 품종인 ‘가루쌀’ 등의 전략작물과 기초 곡물의 생산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투입형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수지 및 배수시설 등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스마트 용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물 사용을 절약하고 주기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대상 품목과 재해의 기준을 넓혀감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최빈개도국으로서 식량원조를 받았으나 한 세대만에 주식 곡물인 쌀의 자급을 달성하고 식량원조 공여국이 된 나라로서, 한국의 농업 혁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8개국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쌀 증산 프로젝트, ‘K-라이스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드문 성공사례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프로젝트로서, 아동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영양공급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를 두 배로 확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지원 수요에도 부응할 것입니다.

한국은 2025년 성과점검회의까지 위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허브 개최 국제회의 결과

1.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지원' 다이얼로그
2.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
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참여' 다이얼로그
4.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글로벌 컨퍼런스
5. '회복력 구축' 다이얼로그
6. '공동 SDG 기금의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 다이얼로그
7.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지역별 접점' 다이얼로그
8.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계획 - 과학, 기술, 혁신' 다이얼로그
9.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학습 : 젠더 주류화' 다이얼로그
10.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글로벌 접점' 다이얼로그

부록

부록 1.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지원' 다이얼로그

■ 회의 개요

- 목 적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및 조정허브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 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예산 도구(푸드시스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파악하고 격차 및 수요를 진단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② 푸드시스템 재원개발 도구(푸드시스템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데이터 제공), ③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창구(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매핑), ④ 푸드시스템 재원 해결책(혁신적인 재원 제공 및 투자 연계)

- 일 시 : 2023년 3월 22일 16:00-17:30(KST)

- 좌 장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5분	개회사 및 소개
40분	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의제 : 지원방안 업데이트 - Nadine Gbossa , Director Food Systems Coordination IFAD & Chief Means of Implementation, UN Food Systems Coordination Hub - Christopher Ian Brett , Lead Agribusiness Specialist, World Bank ② 생태계 지원 : 지식 및 지역이행 파트너 - Safia Boly , Executive Director African Agricultural Transformation Initiative(AATI) ③ 인도네시아 사례 발표 - Anang Noegroho , Interim Director for Food and Agriculture, The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40분	질의응답 등 토의 진행
5분	요약정리 및 폐회

■ [발표 1]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 의제

- 주 제 :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IFAD 및 WB의 지원방안 업데이트
- 발표자

- Nadine Gbossa, IFAD 푸드시스템조정국장
- Christopher Ian Brett, WB 책임전문가(분야 : 영농)

○ 주요 내용

-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당시 푸드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Food Finance Architecture」을 발족했으며, 이는 ▲연간 약 3,000억~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금액을 추가로 동원하고,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약 12조달러 상당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FAD와 WB는 본 의제를 통해 근거 기반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재원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개발 파트너 등 글로벌 공동체가 투자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재원은 대표적으로 ▲자국 정부, ▲공여국의 국제 개발 기금, ▲민간투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지원이 전체 개발지원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푸드시스템적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개발지원을 위한 투자 및 일관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음
- 특히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5대 개선과제(imperatives)로 ▲공적 지원 및 인센티브 개선(정책 및 재원간 연계, 인센티브 강화 필요), ▲재정적 의사결정시 건강, 환경 및 사회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필요, 영양가 있는 식품의 접근성 개선 근거 마련 필요, 농업 종사자의 소득증진을 위한 활동 촉진 등),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적 산출물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필요(기아, 불평등 및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의 영향력 불분명 등), ▲평등한 푸드시스템 보장(공정한 가격 및 생계 수당 보장,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이 접근성 개선 등), ▲푸드시스템 기반 강화(안정성 및 회복력이 보장되는 푸드시스템 구축 필요 등)를 제시함
- IFAD 및 WB는 이와 같은 도전과제를 해소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7월 푸드시스템의 예산 분석 도구 및 방법론을 구축 및 발족하고자 함
 - (시범국가) 니제르, 케냐, 말라위, 온두라스, 페루
 - (기대효과) 공공 및 민간 투자, 공적개발기금(ODA) 등 재원을 진단함으로써 농업, 영양, 인프라, 사회보호, 기후변화 등 각 분야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더 많은 투자를 견인하고 해당 투자금액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원매핑(mapping)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분야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논의할 수 있는 투자창구(investment windows)를 마련하고자 함
- 이 외에도 민간분야 참여는 물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지속 기울일 계획

■ [발표 2] 생태계 지원 : 지식 및 지역이행 파트너

- 주 제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아프리카농업혁신이니셔티브(AATI)의 역할
- 발표자 : Safia Boly, AATI 사무총장
- 주요 내용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아프리카농업혁신이니셔티브(AATI)는 창립파트너인 IFAD, AGRA, McKinsey 및 Bill&Melinda Gates 재단과 함께 빈곤 완화, 식량안보 증진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부 역량강화를 목표로 협력해왔음
 - AATI는 정부 역량 강화, 소작농을 주요 수혜자로 설정한 농업혁신 전략의 5가지 핵심요소 이행을 통한 혁신 촉진 및 가속화를 주요 맨데이트로 삼고 있음
 - 2022년 세네갈, 가나, 케냐 및 말라위 4개국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혁신을 위한 도구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각국 정부의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해옴
 - 한편, 국가 및 여러 공여주체가 양질의 농업혁신 및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액(disbursement) 혹은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농업부문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임
 - 따라서 전략 및 이행결과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상업화, 산업화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할 필요

■ [발표 3] 인도네시아 사례 공유

- 주 제 : 인도네시아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 발표자 : Anang Noegroho,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식량농업국장 대행
- 주요 내용
 - 2021년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인도네시아는 이해관계자 플랫폼 및 공공재원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갔으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self-financing) 푸드시스템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군소도서국으로서 푸드시스템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약 5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산림, 관개, 농경지, 해양, 수산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할당하고 있음
 - 한편,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관개시설뿐만 아니라 호수 및 해안 지역과 같은 풍부한 수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주요 토의 내용

- (질문 1) 과학기술 및 혁신에 있어 정부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어떤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IFAD) 현재 연구 및 혁신 부문에 대한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푸드시스템의 여러 범주 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체계의 근간이 되는 농업생산이며, 재원배분에 있어 연구 및 혁신이 주요 고려요소라고 생각함
 - (WB) 연구는 재정 및 기타부문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WB도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네트워크를 포함해 연구부문에 매년 3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반면, 연구 및 혁신 부문 투자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격차가 존재하며, 선진국은 전체 연구비의 80% 이상이 민간부문 지원인 한편 신흥국은 20%에 그침
 - WB는 국제금융공사(IFC) 및 여타기관들과 협업하여 민간부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질문 2) 푸드시스템 전환 사업 내 ODA와 국내 재원 간 상호보완성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 (IFAD)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의 재원은 공공재원 및 개발협력파트너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며, 일반적으로 ODA가 자국 정부의 재원을 보완하는 등 본래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개발재원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우선순위 격차, 각 부문별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원도 동일함
- (질문 3) 푸드시스템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정부가 추적(tracking)할 수 있도록 돕는 예산도구에 대해 설명했는데, 현재 이 사업에 어느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 (IFAD) 현재 IFAD와 WB가 참여 예정 국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의 관심도 및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지금까지 페루, 케냐, 온두라스, 말라위, 니제르 5개 국가가 시범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WB) 7월에 있을 성과점검회의 전까지 공공 ODA 재원, 방법론 등에 관한 3개국의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세계벤치마킹연대(WBA) 및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와 협의하고 있음
 - 공공정책 및 규제가 자원조달과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과점검회의 역할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음
 - 한편, 예산도구를 다른 국가에 단계별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하지만, 개별 국가가 스스로 예산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와 같은 방법론 및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질문 4) 민간 은행이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재정지원 및 투자를 주류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 (Rabobank) 협동조합은행인 Rabobank는 사회통합 및 푸드시스템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은행 및 금융기관은 고객의 재무건전성 성과뿐만 아니라 수익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성과에 주목하고 있음
 - 민간부문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를 해소해야 함 : ①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내 효과투자(impact investment)의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 부재, ② 식품 영양소 및 탄소배출 논의 간 연계 부족, ③ 관료적이고 엄격한 규제(예: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
 - Rabobank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접근성과 상환능력을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해 아프리카 현지은행에 투자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이 푸드시스템 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IFAD) 혼합금융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작동기제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한편, 특히 민간부문 내 투자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부문은 수익 극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기 때문에 혼합금융이 개발의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OECD의 조사 결과도 있었음
- (WB) WB는 개발부문의 투자성과에 초점 맞추어 세계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을 운영하고 있기도 함
 - WB는 국제금융공사(IFC)의 재정이니셔티브그룹(FIG)을 통해 지역은행과 함께 영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구환경기금(GEF)-7을 통해 식품 및 토지이용·복원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행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회적 규정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약속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질문 5) 현재 IFAD, WB, Rabobank 세 기구가 현재 어떤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개도국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 (IFAD)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지역 내 협력파트너로 미주농업협력기구(IICA),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아프리카농업개혁기구(AGRA) 등이 있음

○ 기타 첨언

- (러시아) 푸드시스템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러시아는 모든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 (유럽집행위원회) 동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양격차를 식별하여 전지구적으로 건강한 식이 및 다양한 식습관을 지원하고, ▲지역농업-농민-생산부문을 연결하는 신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며, ▲기후·환경적 혜택을 제공해야 함

부록 2.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전환 성과점검회의'

회의 개요

- 목 적 : 아태지역 국가들이 국가경로 이행 등 2021년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얻은 경험, 모범사례,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2023년 성과점검회의(STM) 준비에 기여
-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11:00-19:30(KST)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1:00-11:30	개회 - Alongkorn Ponlaboot,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장관 고문 - Jongjin Kim, FAO 아태지역사무소장 및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네트워킹 그룹 의장 - Kaveh Zahedi, ESCAP 사무차장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1:30-12:50	세션 1. SDGs 액셀러레이터로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국가 진전상황 및 모범사례 - (기조연설) “푸드시스템 전환: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는 아태지역 푸드시스템을 위한 도전과제 및 기회” - Dr. Soumya Swaminathan, Swaminathan 연구재단 의장 - (발언) Anthea Webb, WFP 아태지역 부대표 - (라운드테이블) 국가 컨버너 발언
13:10-14:30	세션 2. 푸드시스템 전환 -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 (발표) “아태지역 푸드시스템의 도전과제 및 기회” - Katinka Weinberger, ESCAP 환경개발정책부장 - (분임토의: 푸드시스템 전환 이행에 관한 진전, 성과, 도전과제에 관한 논의)
16:00-17:00	세션 3.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 지원 - (발표) Nadine Gbossa, IFAD 푸드시스템조정국장/Christopher Ian Brett, WB 책임전문가 - (발표) Salman Hussain, UNEP TEEB 코디네이터 & 자연경제학팀 대표
17:30-19:10	세션 4. 지역 메시지 - 세션 2 분임토의 결과 공유 - 기타 논의
19:10-19:30	폐회 - David Mclachlan-Karr, UNDCO 아태지역 국장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개회

○ Alongkorn Ponlaboot,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장관 고문

- 2021년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농업협동조합부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및 식품 부문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옴
-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재원조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과학혁신 부문 지원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태국은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 및 재건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세 가지 부문 모두를 고려한 생물-순환-녹색(BCG) 경제모델을 채택했으며, 농업협동조합부는 농업부문 내 3고(고효율, 고수준, 고소득)를 목표로 BCG 모델을 적용한 초기 5개 시범지역을 다른 주까지 확장해나갈 예정

○ 김종진, FAO 아태지역사무소장 및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네트워킹 그룹 의장

- 식량불안을 가중시킨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되돌리는데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팬데믹의 장기화와 전쟁,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농식품시스템 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FAO가 UNICEF, WFP, WHO와 공동 발간한 아태지역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인구의 약 40%(4억명)가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단(1인당 4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됨
- 농식품시스템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선 역내 도시화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이번 성과점검회의는 정상회의 이후 국가별로 농식품시스템 전환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임
- 작년에 개최된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관한 아태지역 심포지엄에서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환적 경로를 효과적으로 공고화하고, 전환 이행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함
- F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 및 개발파트너 간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푸드시스템에 관한 아태지역 네트워킹 그룹을 신설함

○ Kaveh Zahedi,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차장

- 지난 3월 식량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아태지역 내 식량불안에 처한 인구가 2.5배 증가하는 등 복합위기(poly-crisis)가 가속화되며 푸드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아태지역 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발과제임이며 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솔루션(creative solution)이 필요함
- ESCAP는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내 유엔산하 전문기구와 협력하여 지역대화(Regional Dialogue)를 개최했었고, 본 행사를 위해 조정허브 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게 되어 기쁨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7월 성과점검회의는 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국가별 진전 사항 발표를 바탕으로 한 동료학습 및 성과공유를 위한 자리이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경로를 이행하는 모멘텀을 활용해 향후 2년간의 국가별 계획을 경청하고, 사일로(silo)를 형성하지 않는 총체적 접근법을 모색코자 함
- 조정허브는 포용적인 국가 간 협의를 장려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다부문 및 다중이해관계자의 노력 재고를 평가하며 국가 간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FAO, WFP, ESCAP과 협력할 것임

■ [세션 1] 성공을 위한 레시피 : SDGs 액셀러레이터로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국가 진전상황 및 모범사례

○ 기조연설 : Soumya Swaminathan, Swaminathan 연구재단 의장

- (주제) “푸드시스템 전환: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는 아태지역 푸드시스템을 위한 도전과제 및 기회”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석과학자 등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볼 때, 농업과 환경 문제를 포괄하는 푸드시스템은 다양한 경로(산림파괴, 생물다양성 손실, 인간과 동물 간 접촉 증대, 야생동물 불법교역 등)를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건강과 함께 환경, 동물, 식물의 건강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오늘날 3C(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의 여파로, 건강하지 않은 식이와 식량불안으로 인한 미량영양소 결핍, 빈혈뿐 아니라 과체중, 비만 등 건강문제도 심화 중
- 정부는 시민들의 보다 건강한 식이를 촉진하기 위해, 농민들이 작물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 발표 : Anthea Webb, WFP 아태지역 부대표

- 아태지역 푸드시스템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역내 급성 식량불안 인구가 팬데믹 이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푸드시스템의 회복력 구축이 필수적임
- 이와 관련하여, WFP는 ▲소농의 생산성 향상 등 지역사회 의 생계 개선에 중점, ▲세계적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식품을 아태지역에서 구입 또는 현금·바우처 지원, ▲건강한 식이를 위한 현지 식량 생산·소비의 중요성을 촉진하고 있음
- 특히, 현지 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 사업(Home Grown School Feeding Programme)은 현지 농민과 여성을 성공적으로 지원

» 라운드테이블 : 국별 컨비너 간 논의

- (일본) 일본은 2021년, 농림수산물 식품 부문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전략’을 수립했으며, 2022년 전략 이행을 위한 법안이 제정 및 시행된 후 지방 정부들이 각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농민과 농기업은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또한, 일본과 기후와 농업 구조가 비슷한 아시아 몬순지역 국가의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 10월 ASEAN+3 농림부 장관회의에서 MeaDRI 협력계획을 제시했으며, ASEAN 국가들은 이를 승인한 바 있음
- (필리핀)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시 제출했던 필리핀의 푸드시스템 전환 국가경로가 현재 3가지 주요 국가 정책·계획 문서인 1) 국가식량정책, 2) 국가 농수산 현대화계획, 3) 2023-2028 필리핀 개발계획으로 발전되어 채택되는 성과를 이룸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재정격차와 이행에 요구되는 재원을 조달과 함께 도전 과제로 남아있음
 - 푸드시스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부문 등 행위자들 간 하나된 노력이 요구되며, UN 시스템 차원에서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국가, 지역, 세계 수준에서 푸드시스템 의제를 강조하는 UN 조정허브의 역할이 중요함
- (베트남) 베트남에서 식량안보 정책은 최우선순위 사안이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기록적인 수출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농이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 분배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도 존재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2년 간의 다이얼로그 끝에, 2일 전 베트남 정부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공식 채택했으며, 이는 정부부처, 민간부문, 연구기관, 학계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부문의 행동을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것임
 - 4월 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푸드시스템 전환 경험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기대함
- (라오스) 푸드시스템 국가경로와 관련하여 녹색성장 전략(2019년 채택), 9차 국가 사회경제개발 계획(2021년 중순 채택), SDG 로드맵(2018년 채택) 등의 정책과 영양에 관한 국가 행동계획 등이 있음
 - 현재 푸드시스템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는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결과와 영양에 관한 국가 행동계획 및 기타 관련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SDG 의제와 부합하도록 개발될 것임
- (피지) 2021년 7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푸드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더불어 블루푸드, 그린푸드, 디지털 기술, 전통지식 등의 중요성이 강조된바 있음
 - 이에 대응하여 피지 정부는 국가 식량·영양안보 전략을 개발했으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경로도 완성함
 - 또한 농업부는 농업부문 내 여성 정책과 농업부문 내 청년 정책을 개발해 이행하고 있으며, 농업부가 개발 중인 2024-2028 전략적 개발계획 중 주요 축(pillar) 중 하나는 국가 푸드시스템 전환 전략임

■ [세션 2] 푸드시스템 전환 -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 (발표) Katinka Weinberger, ESCAP 환경개발정책부장

○ (주제) 아태지역 푸드시스템의 도전과제 및 기회: 위험(risk) 관점

○ 주요 내용

- 푸드시스템은 매우 복잡적이며, 분쟁, 기후변화, 가격 급등, 빈곤 및 불평등 등 다양한 위협을 마주하는바, 이러한 환경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은 물론 공평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푸드시스템의 위험 및 위협요인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도구가 필요함
- 이에 ESCAP은 WFP 및 FAO와 함께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내 다차원적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 본 프레임워크는 100여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은 회원국들이 국가, 하위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푸드시스템 내 위험(경제적, 사회정치적, 자연), 취약성(빈곤, 불평등, 금융 및 시장, 생산 및 지속가능성 등) 및 적응력(기후변화 및 재난위험관리, 인적자원, 자원과 인프라 등)을 파악하도록 돕는 한편, 이러한 위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것임
- 프레임워크는 푸드시스템의 3대 목표(인간의 건강과 영양, 생태계 건강, 모두의 번영) 하에서 위험을 평가하며, 식량안보의 6대 차원(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 주체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함
- 또한, 위험평가 개념을 채택하여 위험점수를 산출하며, 지표는 FAOSTAT, WFP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된 후 0~10점 사이에 분포하도록 조정됨(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음)
-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위험 평가 초기 결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5년 동안 위험이 더 커졌으며, 특히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은 위험관리 전략이 필요한 국가로 판단됨
 - 한편, 일부 고위험국가(네팔, 인도, 방글라데시)에서는 위험의 수준이 지난 5년 동안 감소한 반면, 일부 저위험국가(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경우 환경, 영양불량(비만)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2000-22년 기간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취약성 관련 지표는 전반적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재해와 적응력 관련 지표는 하락세를 기록
 - 저소득국가에서는 식품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했다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환경적 발자국과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돋보임
-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 관리는 푸드시스템 전환 경로의 성공적인 이행에 핵심적임을 감안할 때, 위 프레임워크는 식량안보 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전통적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 및 생태계 건강, 모두의 번영 등과 관련된 푸드시스템의 다양한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역내 푸드시스템의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여 개입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

■ [세션 3] 푸드시스템 전환 재정 지원

» 발표 1

- (발표) Nadine Gbossa, IFAD 푸드시스템조정국장
Christopher Ian Brett, WB 책임전문가(분야 : 영농)
- (주제) 글로벌 도전과제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IFAD 및 WB의 지원 방안 업데이트
- 주요 내용
 - IFAD와 WB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의제에 대한 논의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재원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개발 파트너 등 글로벌 공동체가 투자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 한편, 푸드시스템 전환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부족한 재정 지원,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온실가스 배출량 확대, 생물다양성 손실, 식품 손실 및 낭비, 건강한 식이에 대한 접근성 부재, 불평등 비용 등)임
 -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당시 식품시스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Food Finance Architecture」를 발족했으며, 이는 ▲연간 약 3,000억~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금액을 추가로 동원하고,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약 12조달러 상당의 손실을 예방하여 차별화된 재정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 재원은 대표적으로 ▲자국 정부, ▲공여국의 국제 개발 기금, ▲민간투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지원이 전체 개발지원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푸드시스템적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개발지원을 위한 투자 및 일관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음
 -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5대 개선과제(imperatives)가 제시됨
 - (공적 지원 및 인센티브 개선 필요성) 정책 및 재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의 시장 왜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할 필요
 - (건강, 환경 및 사회적 위기의 통합적인 사고) 의사결정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농업종사자의 소득증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는 등 건강, 환경 및 사회적 위기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
 -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필요) 기아, 불평등 및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의 영향력이 불분명한 상황임에 따라 재정 지원의 결과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출물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
 - (평등한 푸드시스템 보장) 공정한 가격, 생계 수당 등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평등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푸드시스템 기반 강화) 안정성 및 회복력이 보장되는 푸드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

- IFAD 및 WB은 이와 같은 도전과제를 해소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7월 성과점검회의시 푸드시스템의 예산 분석 도구를 발족하고자 함
 - (시범국가) 니제르, 케냐, 말라위, 온두라스, 페루
 - (자문그룹) FAO, IFAD, WB, OECD 등 유관 국제기구 및 단체
 - (기대효과) 공공 및 민간 투자, 공적개발기금(ODA) 등 재원을 진단함으로써 농업, 영양, 인프라, 사회보호, 기후변화 등 각 분야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에 기반이 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더 많은 투자를 견인하고 해당 투자금액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원매핑(mapping)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분야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논의할 수 있는 투자창구(investment windows)를 마련하고자 함
- 이 외에도 민간분야 참여 및 연계 지원은 물론 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고 투자 관련 데이터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지속 기울일 계획

» 발표 2

- (발표) Dr. Salman Hussain, UNEP TEEB 코디네이터 & 자연경제학팀 대표
- (주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이니셔티브 사례 소개
- 주요 내용
 -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4년 농식품이니셔티브 하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경제학(TEEB) 이니셔티브를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 사회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외부효과를 고려했을 때 친환경적인 경로 및 시나리오를 발굴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농업에 중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복원하는 등 농식품프레임워크 전반에서 생산자본뿐만 아니라 자연, 사회 및 인적 자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태국의 사례를 소개
 - 태국 쌀 시스템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 통합 사례
 - 본 프로젝트는 기준시나리오(BAU) 포함 4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태국의 유기농 쌀 정책(One Million Rai Organic Rice)이 생산성,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부처가 푸드시스템적 접근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을 강조함
 - 위 내용을 종합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 협력의 중요성, ▲정부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인센티브 수립 필요성, ▲원가회계를 적용함으로써 자연 및 사회의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언함

■ [세션 4] 지역적 메시지 : 세션 2 분임별 논의결과 보고

○ 그룹 1 :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Nourish all people)

구분	주요 논의내용
국가 푸드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관해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무엇이 있는가?	- 푸드시스템 국가경로 및 기타 국가 정책들과 부합하는 통합된 국가 식량 및 영양 행동계획 - 재원조달과 우호적 거시환경 조성에 대한 고위급 정부의 의지(commitment) - 식량·영양 모니터링 및 정보 시스템 수립/강화
주요 도전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식량가격 상승 → 보조금, 사회보호 - 제한된 자원(토지, 물, 인구) → 기후스마트 농업 촉진 등 - 젊은 세대에서의 영양 문맹 → 사회적 행동변화 의사소통(SBBC), 역량개발 등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을 위해 취해야 할 중요한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학교, 병원 등에서의 자체 농산물 재배 촉진 - 혁신적 재원조달(과세 포함) - 영양인지적 및 영양특화 접근법 촉진 등

○ 그룹 2 : 자연기반 솔루션 촉진(Boost Nature-based Solutions)

구분	주요 논의내용
국가 푸드시스템이 '자연기반 솔루션 촉진'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관해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일부 국가에서 자연기반 솔루션(NbS, 예. 농생태학, 유기농업 등)이 전통적 농업시스템으로 채택됨 - 자연친화적 생산방식을 채택하는 농민과 농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요 도전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NbS를 채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 → 농민에 대한 지원 필요) - NbS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수준이 낮음(NbS의 정의와 접근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자연기반 솔루션 촉진'을 위해 취해야 할 중요한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보존농업, 농업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복원 등의 촉진에 대한 중점 강화 - NbS 촉진을 지원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 농업혁신을 지원할 연구개발, 남남협력 등

○ 그룹 3 :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권한이 부여된 공동체 진전(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Decent Work, & Empowered Communities)

구분	주요 논의내용
국가 푸드시스템이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권한이 부여된 공동체 진전'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관해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여성, 청년, 토착민 및 기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됨 - 풀뿌리 공동체와 시장 간 연계 구축, 농민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자문서비스 센터 설립 등
주요 도전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농민 고령화 및 청년의 농업부문 참여 촉진 → 스마트/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기계화, 역량개발 - 전통지식 소실 → 기록 생성 및 보존 등
'공평한 삶, 좋은 일자리 및 권한이 부여된 공동체 진전'을 위해 취해야 할 중요한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농민(남성/여성)과 농민단체의 권한 및 역량 강화 - 우호적 환경조성(예. 공정한 무역을 위한 정책 등) - 소농/기업가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예. 농업보조금, 청년을 위한 대출 등)

○ 그룹 4 : 취약점,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Build Resilience to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구분	주요 논의내용
국가 푸드시스템이 '취약점,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관해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종자 : 생산(기후/충격 회복력), 유전자 은행(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지식 공유, 작물다양성 - 혁신/R&D : 전략적 연구, 농민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브 - 농수산 부문 및 조기경보/재해위험관리에 대한 기후정책 통합, 다부문간 조정 등
주요 도전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농촌 대비 점차 취약해지는 도시 푸드시스템(건강한 식이 문제) - 청년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량 및 영양안보 유지 방안 - 온실가스 및 녹색/청색 물발자국 측정의 어려움
'취약점, 충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위해 취해야 할 중요한 행동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위험에 대한 준비(코로나19, 분쟁 상황에서도 무역 유지 등)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이(미디어, SBCC, 학교급식) - 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작물다양화, 농민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지원, 탄소배출권 제도 등)

■ 폐회

○ David McLachlan-Karr, 유엔 개발조정사무소(UNDCO) 아태지역 국장

- 지난주 23명의 아태지역 유엔 상주조정관들과 SDGs 달성 가속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환경적 영향 및 생물다양성 손실의 역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성(보다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중점을 둘 경우 투자액 대비 1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 측면에서도 푸드시스템 개혁을 옹호해야 한다는 점과, COP 28 준비의 일환으로 기후,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통합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정치적 추진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됨
- 또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필요한 자원이 조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김종진 FAO 아태지역사무소장을 의장으로 하는 푸드시스템 네트워크 그룹이 조직됨을 환영함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조정허브는 국가들이 2023년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STM)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국가 푸드시스템 전환에 관한 자발적 진전 보고서' 템플릿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했으며, 희망하는 국가들은 5월 5일까지 허브에 제출 가능
 - 이와 함께 업로드된 '푸드시스템 전환에 관한 이야기 및 모범사례' 템플릿도 5월 5일까지 자발적으로 제출 가능
- FAO 사무총장, 이탈리아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서명한 7월 성과점검회의에 대한 공식 초청장이 모든 상주대표에게 전달된 상황임
- 한편, 성과점검회의에 대비한 온라인 다이얼로그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이에 관한 정기적 업데이트를 제공할 계획임

부록 3.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참여' 다이얼로그

회의 개요

- 배 경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속절차의 일환으로 조정허브는 청년, 여성, 토착민, 생산자, 민간부문 대표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참여 및 네트워킹 자문 그룹(SENA 그룹)'을 구성함
* SENa 그룹은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촉진, 참여적 협의법에 대한 조언 제공, 포용성 및 투명성 향상, 기존 네트워크 활성화, 주요 이해관계자의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고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함
- 목 적 :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점검회의(STM)에 대한 주요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SENa 그룹 및 국가 컨비너들 간 푸드시스템 전환 가속화에 대한 기회와 과제 등에 대해 교류
- 일 시 : 2023년 4월 12일(수) 15:00-16:30(KST)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5:00-15:05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5:05-15:25	패널토론 - Martin Hoppe,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식량·영양 안보, 글로벌 식품정책 및 수산 부문 책임자 - Michael Keller, 국제 농식품 네트워크 의장 겸 국제 종자연맹 사무총장 - Lucrezia Ducci, SENa 그룹 청년 대표 - Megha Desai,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선임 코디네이터
15:25-16:25	국별 컨비너 발언 [안내성 질문] 1) 푸드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의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국별 컨비너들이 아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 국가적으로 푸드시스템 행위자들의 참여에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가? 없다면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한가? 3) 정부가 이해관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위해 푸드시스템 거버넌스에서 다자이해관계자 및 다부문 플랫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6:25-16:30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푸드시스템 조정허브가 구성한 SENA 그룹은 여성, 청년, 토착민, 시민사회, 농어민 등 15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SENA 그룹의 첫 회의가 지난주 개최됨
 - 각 공동체의 입장을 효과적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ENA 그룹 구성원은 각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발해 지명토록 했음
- 이해관계자들과 정부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존중해야 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서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패널토의

○ Martin Hoppe,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식량·영양 안보, 글로벌 식품정책 및 수산 부문 책임자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였기에 독일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국내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국내논의 결과는 그린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등 EU 정책들에 녹아들어 있음
- 독일어권 국가들에서는 지역 푸드시스템 이사회가 도시 또는 지역 수준에서 설치되어있으며, 이들 이사회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독일은 파트너 국가들이 국내논의를 진행하고 국가경로를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영양증진운동(Scaling Up Nutrition Movement) 등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푸드시스템 조정허브가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만유로를 제공할 예정임

○ Michael Keller, 국제 농식품 네트워크 의장 겸 국제 종자연맹 사무총장

- 국제 농식품 네트워크는 식품가치사슬 전반에서 활동하는 25명의농민, 식품가공업자 등 민간 부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솔루션, 상호작용과 참여(engagement)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푸드시스템의 특성인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식품가치사슬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민간부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함
 - 민간부문은 관련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미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혁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푸드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비전을 위해 협력해야 함

○ Lucrezia Ducci, SENA 그룹 청년 대표

- SENA 그룹 청년 대표들은 전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식품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서 청년들과 협력 및 소통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의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세대가 청년이기에,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청년의 참여가 중요함. 청년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 증대, 해수면 상승 등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위협받는 세대로서 즉각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
- 국가 컨비너들이 단순히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

○ Megha Desai,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선임 코디네이터

- 여성은 식품의 생산, 가공, 무역, 가정에서의 식품 소비 및 구매 결정 등 전체 식품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의 푸드시스템 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문화 규범과 성차별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생태계 부족과 같은 제약에 직면
- 자가고용여성협회(SEWA)는 국가 및 세계적으로 푸드시스템 내 여성에 관한 웨비나 참석, 양질의 일자리 및 임금 실천연합 참여, 농민포럼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SEWA는 2021년 인도 내 국내논의를 위해 조직된 국가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식량안보를 위한 가족농 강화, 잊혀진 식품 되살리기, 여성의 자원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음

■ 국별 컨비너 주요 발언

○ (수단) 현재 수단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식량안보 기술사무국이 주도하는 국가팀과 각 실천분야에 대한 실무그룹이 존재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국가팀에 참여하고 있으나, 영농, 가공, 운송 등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식량안보와 푸드시스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한층 강화되길 희망함

○ (핀란드) 핀란드에는 정책적 준비작업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오랜 전통이 있으며,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작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는 이미 무엇이 문제이고 국가 및 세계 수준에서 푸드시스템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 및 의지가 부족한 상황
- 청년, 농민, 여성, 식품업계, 현지 정책기관 등의 힘을 모아, 의사결정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책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음

○ (러시아) 러시아는 정상회의 이후 2년간의 국내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식량안보, 모든 인구의 식품 접근성,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제공'이라는 공감

대가 형성됨

- 러시아는 국내 수요 이상으로 곡물 및 광물질 비료를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며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에 관한 국내논의에서 정부부처, 농민, 시민사회, 과학계, 청년 등이 적극 교류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 중
 - SENA 그룹을 지지하는 한편, 국제기구들은 강대국보다 약소국의 입장을 더욱 옹호하면서 세계 식량안보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길 희망함
-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 국내논의에 정부, 시민사회, 개발파트너, 민간부문, 토착민뿐만 아니라 인권 운동가들도 참여했으며, 2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캄보디아 푸드시스템 로드맵'을 수립함
- 푸드시스템 로드맵의 네 가지 우선순위는 ▲모두의 건강한 식이 촉진, ▲여성과 취약계층의 권한 강화, ▲생계 및 푸드시스템의 회복력 향상,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포용적인 거버넌스임
 - 지방정부 당국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으며, 모든 지방의 식량안보 및 영양 사안을 조정하는 실무그룹이 설치됨. 또한, 캄보디아가 매년 기념하고 있는 국가 영양의 날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 중임

부록 4.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글로벌 컨퍼런스

1)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4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SFS)* 프로그램 글로벌 컨퍼런스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SFS) 프로그램은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이 위임한 메커니즘인 One Planet Network의 일부임

■ 배 경 : 2023년 7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성과점검회의에 앞서, 기후, 생물다양성, 분쟁, 기아 등이 상호연결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푸드시스템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 시민사회, 농민,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 마련

■ 일시 및 장소 : '23.4.24~27, 베트남 하노이,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회의일정

일자	한국시각	내 용
4/24 (월)	세션 1 12:00-13:30	개회식
	세션 2 16:00-17:30	푸드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 재고하기
	세션 3 18:00-19:30	국가 및 하위국가 거버넌스 및 정책 재점검
4/25 (화)	세션 4 11:00-12:30	변화하는 소비 및 생산 패턴
	세션 5 13:00-14:30	과학, 금융, 인권, 혁신을 통한 전환 촉진
4/26 (수)	세션 6 16:00-17:30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지원생태계 강화하기: 푸드시스템 접근법 발전을 위한 UNFSS 실천연합 동원
	세션 7 18:00-19:30	전환의 측정
4/27 (목)	세션 8 11:00-12:30	국별 컨비너 간 논의
	세션 9 13:00-14:30	결론 및 폐회식

2) 회의 결과

가. [세션 1] 개회식

■ 일 시 : 4월 24일(1일차) 12:00~13:30 (한국시각)

■ 참석자 : Tran Luu Quang 베트남 부총리, Esterlla Penunia 아시아농민협회 사무총장, Qu Dong Yu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Le Minh Hoan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Christian Hofer 스위스 연방농업청장, Meles Mekonen 에티오피아 농업부 정무차관, Ildephonse Musafir 르완다 농업부 장관, San Vanty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Samuel Kawale 말라위 농업부 장관 등

■ 주요 내용

- 식량불안, 기후위기, 분쟁 등 상호연결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시스템을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함
- 서로 다른 부처나 푸드시스템 관련 행위자들이 대립하지 않고, 푸드시스템 접근법 채택에 관한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해야 함
- 각국은 효과적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부문, 농민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 개회사

- Tran Luu Quang 베트남 부총리
 - FAO의 2020-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은 2030년이 한참 지난 2065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3월 28일,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푸드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으며, 지속가능하게 전환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였음
 - 베트남은 특히 남남협력 사업과 농업에 관한 삼각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농업·농촌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의향이 있음

■ 기조연설

- Estrella Penunia 아시아농민협회(Asian Farmers' Association) 사무총장
 - 2019년 글로벌 공동체는 기아종식, 생물다양성 증진, 지구온도 상승 제한 등과 관련된 목표 달

성이 요원함에 따라 푸드시스템 논의에 전례없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으로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됨

- 글로벌 공동체의 노력에 따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포용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장애물(정책 일관성 부족 및 부적절한 조정, 정책결정 및 협의과정에서 소외계층의 대표성 부족, 불충분한 자원 등)에 직면해 있음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식량만이 아닌 천연자원 관리, 기후변화, 무역체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경쟁, 국제 연구 및 혁신, 공공보건, 식품안전 등을 고려하는 전체론적 접근법이 요구됨
- 또한, 게임체인저인 동시에 SDG 액셀러레이터이자 기후회복력 있는 농업의 프로펠러인 농민을 동등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포용적 거버넌스를 촉구함

■ 패널토론

○ Qu Dong Yu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 FAO는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예시인 One Planet Network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SFS) 프로그램의 목표를 지지함
-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포용적 거버넌스 및 조정을 가능케 함
- 파트너십은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후위기, 계속되는 분쟁, 식량불안 등의 상호 연결되고 복잡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
- FAO는 4대 개선(더 나은 생산, 영양, 환경, 삶)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금번 컨퍼런스는 7월 푸드시스템 성과점검회의에 앞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 <질문 1> 국가 차원에서 2021년 정상회의의 성과는 무엇이며, 효과적인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있어 핵심요소 및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베트남) 2030년까지 투명하고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사업이 발표됐으며, 중앙·지방정부와 민간·공공부문, 농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과 회복력 제고, 혁신과 디지털전환 촉진 및 자원조달을 위해 노력해옴
- (스위스) 스위스는 정상회의 개최 이전부터 푸드시스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4가지 목표(① 건강하고 균형잡힌 영양공급, ② 식품손실 저감, ③ 식품소비로 인한 탄소발자국 감축, ④ 환경·동물친화적 농가 육성)를 가지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대화를 보장함으로써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질문 2> 푸드시스템 전환에 있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 (르완다) 개별부처간 시너지를 형성하기 위해 조정과 협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르완다는 이를 위해 민간부문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농업실무그룹을 신설하여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캄보디아) 전쟁,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역내 운송, 에너지 및 투입물 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연구와 투자를 통해 생산 및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짐

○ <질문 3> 푸드시스템 전환에 있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또는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가?

- (말라위) 푸드시스템 전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농업부에서만 16번의 국내논의를 주최하고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비전 2063(Vision 2063)을 채택했으며, 5가지 핵심부문(① 식단 및 영양, ② 소비패턴, ③ 자연환경, ④ 자산축적, ⑤ 재난회복력)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함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LAC지역의 기아 및 영양결핍을 해결하길 위해 미주농업협력연구소(ICA)와 협력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역내 국가 간 법제적 장치(parliamentary fronts)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나. [세션 2] 푸드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 재고하기

■ 일 시 : 4월 24일(1일차) 16:00~17:30 (한국시각)

■ 참석자 : Jamie Morrison 국제영양개선연대(GAIN) 선임고문(좌장), Gabriel Ferrero 세계식량안보위원(CFS) 의장, David Coop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대행, Pedro Manuel Moren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차장, Caterina Ruggeri Laderchi, 푸드시스템 경제학 위원회 이사, Juan Lucas Restrepo, 국제생물다양성연맹/국제열대농업센터(CIAT) 사무총장, Su McCluskey 호주 농업특별대표, Christian Hofer 스위스 연방농업청장

■ 주요 내용

- 현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아키텍처는 푸드시스템 렌즈가 부재한 상태에서 형성돼 분절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여러 부문·기관 간 조정 및 정책 일관성 제고가 필요함
- 무역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뒷받침하나, 정부 보조금과 관세, 비관세 조치, 농업기술 및 식물품종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도전과제들이 존재하므로 공평하고 효율적인 무역시스템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제금융기관들의 표준 포트폴리오에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야 함
- 생물다양성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토지 황폐화, 물 부족, 자연재해 완화에 대한 고려사항도 푸드시스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에 통합해야 함

■ 기초발표, Gabriel Ferrero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의장

- 기아와 영양불량이 지속(2021년 기아인구가 7억~8억2,800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1억5,000만명 증가)되어 SDG 2 달성이 요원해지고, 농업과 푸드시스템이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푸드시스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푸드시스템 거버넌스의 주요 도전과제)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G7, G20, 다수 유엔기구 등이 많은 국제적 행동을 취했는데, 이 같은 글로벌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분절화(fragmentation) 위험 및 거버넌스 문제도 증대됨
 -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아키텍처에서 분절화된 지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즉, 여러 프로세스와 기구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높이고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포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국제 수준에서는 이해관계자, 특히 유엔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유엔 기구·프로그램·기금, 국제금융기구 간의 경쟁이나 분열을 방지해야 하므로, 협력과 연대,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함. 국가 수준에서는 여러 부문과 기관에 걸친 정책 조정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부문(보건, 농업, 교육, 환경, 물, 위생, 성평등, 사회보호, 무역, 금융 등)과 여러 기관 간의 상충(trade-off)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함
- CFS와 그 고위급전문가패널은 식량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글로벌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구속력 없는 자발적 글로벌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정책융합을 촉진하고, 국가 주도 전략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패널토론

- (영상) David Coop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대행
 - 현 푸드시스템 아키텍처는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을 포함한 주요 동인의 영향으로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푸드시스템은 농약, 항생제, 합성비료와 같은 외부 투입재에 점점 더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현재의 푸드시스템에는 지속불가능한 소비, 식품 손실 및 폐기,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과 같은 근본적인 동인도 존재함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도 반영되어 있음. 푸드시스템은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의 4개 목표와 23개 세부목표와 모두 연관됨
 -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토지 황폐화, 물 부족, 자연재해 완화에 대한 고려사항도 푸드시스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에 통합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가족농, 소농, 어민,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영상) Pedro Manuel Moren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차장
 - 최근 흑해곡물협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 무역의 중요성이 재확인됨. 푸드시스

템에 관한 국제 무역체계에는 정부 보조금과 관세, 비관세 조치, 농업 기술 및 식물 품종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도전과제들이 존재함

- 이에, 푸드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를 재고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WTO 하에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무역시스템을 보장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5가지 행동을 제안

- 1)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 간 조정 및 협력 강화, 2)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무역정책을 활용하여 식품 유통 및 접근성 개선, 3) 국가 간 및 국경 간 식품 무역을 통해 국내 및 지역 공급시스템 개발, 4) 건강한 식단 장려, 식품 폐기 방지 및 취약계층 소비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장려, 5) 미래의 거버넌스 아키텍처는 농업부문의 기후 적응 및 완화 노력에 우선순위를 둘 것

○ <질문 1> 푸드시스템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현 금융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Caterina Ruggeri Laderchi, 푸드시스템 경제학 위원회 이사)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연간 3,000억~4,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 세계 GDP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나, 이러한 재원을 저소득국가와 중하위 소득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 과제임

- 푸드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자금 흐름을 살펴본 결과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나, 높은 금리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위험 및 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자금과 국제 개발기금이 개입하여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질문 2> 국가 농식품시스템 정책이 기후, 생물다양성과 같은 분야의 글로벌 정책 프로세스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

- (Juan Lucas Restrepo 국제생물다양성연맹/국제열대농업센터(CIAT) 사무총장) 국가마다 글로벌 프로세스와 연결되는 방식에 큰 차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농업 및 식량안보에 대한 기후 행동 이행에 관한 샤름엘셰이크 작업반 논의에서 일부 국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농업의 식량생산 측면만 다루고자 하는 반면, 소수의 국가가 푸드시스템을 다루는 더 광범위한 NDC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 지속가능한 생산,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 등 요소들은 논의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확대되어야 함

○ <질문 3> 호주와 스위스의 국가 농업 및 푸드시스템 정책은 글로벌 정책 프로세스와 합의를 어떻게 고려/반영하고 있는가?

- (Su McCluskey 호주 농업특별대표) 농업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호주는 무역과 더불어 기후, 생물보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기후스마트 농업을 추진하는 한편, SDGs와 부합하는 농업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산업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및 행동계획을 개발함. 최근에는 순환형 푸드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국가토양전략에 기반해 건강한 토양, 건강한 동식물과 환경을 촉진하며, 식품 폐기 감축,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등 노력도 활발히 전개 중

- (Christian Hofer 스위스 연방농업청장) 과거 스위스 농업정책은 집약적 생산에 초점을 두었으나 환경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90년대 초부터는 농업을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부문으로 간주하였음
 - 식품의 50%를 수입하는 스위스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만 수입하는 FTA 체결 등 무역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중시함. 기후측면에서도 농업, 환경, 영양 부처가 협력해 푸드시스템 전환경로의 수단 중 하나인 새로운 농식품 분야 전략을 마련 중

○ <질문 4> 국가마다 농업부문의 개발 수준과 목표가 상이한데, 이를 반영하는 글로벌 푸드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Su McCluskey 호주 농업특별대표) 전환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농업이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무역에 초점을 맞추면, 무역보조금에서 큰 도전과제를 찾아볼 수 있음. 흔히 보조금은 무역왜곡적이고 최빈개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하나, 보조금과 지원이 반드시 나쁘지 않다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보다 나은 지속가능성 결과를 위하여 보조금과 지원을 재목적화(repurposing)할 것을 제안함
- (Juan Lucas Restrepo 국제생물다양성연맹/국제열대농업센터(CIAT) 사무총장) 세 가지 도전과제 중 첫째는 부처·부문 간 분절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한 통합을 촉진해야 함.
 - 둘째, 전환경로에 관한 모책이란 없으며, 소지역 수준에서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이에, 농민, 학계,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이 함께 변화를 창출하고 위험을 공유하며 공동성과를 만들어내야 함
 - 셋째는 자금조달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비용은 2030년까지 매년 3,400억달러, 2050년까지 5,65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기후금융의 1.7%만이 소농의 적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다. [세션 3] 국가 및 하위국가 거버넌스 및 정책 재점검

■ 일 시 : 4월 24일(1일차) 18:00~19:30 (한국시각)

■ 참석자 : Corinna Hawkes FAO 푸드시스템·식품안전과장(좌장), Nguyen Do Anh Tuan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장, Edward Walugembe 우간다 국가 푸드시스템 조정 위원회 의장, Tom Arnold 아일랜드 2030 농식품전략 위원회 의장, Christine Campeau CARE 글로벌 옹호 디렉터 등

■ 주요 내용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며, 다중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절차와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 다중 행위자 참여에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힘의 불균형과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도 요구됨
- 포용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합하기 위한 도전과제로는 푸드시스템에 대한 인식 전환, 장기적 결과를 향한 인내심, 여러 부문과 이해관계자 간 조정 등이 있음

■ 패널토론

- <질문 1> 베트남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 개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참여했는가?
 - (Nguyen Do Anh Tuan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장) 베트남은 농업생산성 증대에 관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로 인한 환경에대한 부담 가중과 가치사슬에 걸친 불평등한 이익공유, 도시지역 비만인구 증가와 같은 영양불량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함
 - 이는 곧 푸드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베트남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상회의에서 약속함
 - 정상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베트남은 현지와 국가수준에서 수많은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민간부문, 농민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태스크포스가 정책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총리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음
- <질문 2> 우간다가 국가 푸드시스템 조정 위원회를 설립기로 한 이유, 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원동력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Edward Walugembe 우간다 국가 푸드시스템 조정 위원회 의장) 푸드시스템은 농업 생산에서 소비까지,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과정에서 다차원·다부문적 행위자와 활동이 집합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므로, 하나의 주체가 아닌 여러 행위자들 간 조정과 효율적인 협력이 필수적
 - 이에, 우간다는 국가 푸드시스템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농업, 보건, 젠더, 물, 환경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해 계획·이행하고, 공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자 함
- <질문 3> 아일랜드는 다중이해관계자 절차를 통해 5개년 농식품전략을 개발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30 농식품전략 수립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절차에서 취한 접근법은 어떠한가,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무엇인가?

- (Tom Arnold 아일랜드 2030 농식품전략 위원회 의장) 2030 농식품전략은 아일랜드의 5번째 농식품전략으로, 이전 전략의 이행과 새로운 전략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공개 협의를 거쳐 수립됨
 - 2030 농식품전략은 아일랜드가 2030년까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됨. 또한, 2030 전략은 1) 푸드시스템 접근법에 기반, 2) 사상 처음으로 영양과 건강 간 연계에 중점, 3)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관한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 간 연계를 특징으로 함
- <질문 4> 국가경로 이행을 위해 국가 및 현지 차원에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 (Christine Campeau CARE 글로벌 옹호 디렉터) CARE는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공평한 생계 증진에 관한 실천분야 논의를 주도함. CARE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40개의 하위국가 단위 논의를 조직했으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국가들에서 진행된 800개의 다중이해관계자 논의에 참여하여 시민사회, 사회운동, 모든 식품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음
- <질문 5> 포용성을 높이고, 여러 부문을 통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 (Nguyen Do Anh Tuan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장) ▲식량안보가 단순히 쌀과 같은 식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 ▲여러 부문·수준·이해관계자 간 조정, ▲지식, 기술 및 자원 부족
 - (Edward Walugembe 우간다 국가 푸드시스템 조정 위원회 의장)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하나의 사안에 집중시키는 것이 최대 도전과제이며, 특히 정부 외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위원의 낮은 대표성으로 인해 위원이 소속기관에 위원회의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Tom Arnold 아일랜드 2030 농식품전략 위원회 의장) 2030 농식품전략 수립을 주도하며 합의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최대 도전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신뢰, 기밀 유지와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했음
 - 또한 경청하고 인내하는 것, 투명하게 작업하는 것, 그리고 일정 수준에서 타협할 줄 아는 것 등이 중요함
 - (Christine Campeau CARE 글로벌 옹호 디렉터) 공여자들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나, 소외된 그룹과 공동체에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습성,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할만한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 종종 정책에서 간과되는 성 평등 및 여성 권한 등도 도전과제임

■ 일 시 : 4월 25일(2일차) 11:00~12:30 (한국시각)

■ 참석자 : Rebecca Shaw 세계자연기금(WWF) 수석 과학자, Yaw Frimpong Addo 가나 농업부 차관, Sok Silo 캄보디아 국가 컨비너 겸 관방부 농업농촌개발위원회 사무총장, Dao The Anh 베트남 농업과학원 부원장, Ply Pirom 세계자연기금-태국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프로젝트 매니저, Robert Cole 메콩강 유역 토지 거버넌스 프로젝트/책임있는 농업투자 에 관한 지역자문 등

■ 주요 내용

- 푸드시스템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기후 완화 잠재력이 있는 분야와 약 80% 일치함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인류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의 퍼즐조각들이 서로 연결 및 통합되며, 관련 개입은 공동 이익에 초점을 두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취약한 소농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임
- 정부는 농식품 업계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초연설

- Rebecca Shaw 세계자연기금(WWF) 수석 과학자
 - (주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건강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및 소비의 전환
 - 최근 발간된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붕괴(climate breakdown)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이 손실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현 푸드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의 27%를 차지, 생물다양성 손실과 팬데믹 위험을 증가시키는 동인이며, 세계 인구의 1/3이 과체중 또는 비만, 1/12는 기아 또는 영양부족인 상황으로 건강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인류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의 퍼즐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함
 - 현지 수준에서 푸드시스템의 퍼즐조각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다섯가지 I(Five I-s: 정보, 기관, 통합, 포용, 영감)’사고방식을 제시함

■ 패널토론

- <질문 1> 기아와 영양불량, 식품의 종류와 생산 및 소비 방식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 등 푸드시스템 관련 상호연관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Yaw Frimpong Addo 가나 농업부 차관) 가나는 영양부족, 비만, 비전염성 질병의 삼중부담 속 증가하는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산림 벌채, 토지황폐화, 오염 등도 직면함. 따라서, 정부는 혼합 정책과 다양한 역점 사업을 통해 식량과 수목 작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집약화 및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음
 - (Sok Silo 캄보디아 국가 컨비너 겸 관방부 농업농촌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캄보디아 푸드시스템 관련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과 전략 개발계획에 기반하며, 푸드시스템은 새로운 개념으로서 201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해, 2021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캄보디아 푸드시스템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음
 - 캄보디아는 특히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 푸드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교급식에 주목하며, 2021년 8월 ‘학교급식 연합’에 가입함
- <질문 2> 푸드시스템 프레임워크에서 과학계의 역할이 중요함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데, 과학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Dao The Anh 베트남 농업과학원 부원장) 베트남에서는 학계가 국제기구, NGO 등과 활발하게 협력하며 푸드시스템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 보고서 발간, 증거 제공 등을 통해 정부가 푸드시스템 접근법을 채택하고 유엔 푸드시스템 논의에 참여토록 한 결과 국가행동계획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둠
- <질문 3>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에 관한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 (Ply Pirom 세계자연기금-태국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프로젝트 매니저) 태국 메콩지역 옥수수 농장에서의 화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단일작물 재배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업 생산성 저하 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가치사슬 접근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Future Food Together’ 프로젝트를 이행 중
 - Future Food Together는 농민, 유통채널, 소비자 등 가치사슬 주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개발하며, 자연친화적 농법과 탄소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해 생산성 및 경제적 혜택 증대, 토양건강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촉진함
 - 푸드시스템 전환의 핵심 촉매제인 농식품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구매 결정시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소비자들 또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촉매제임
 -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조언함: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천연자원 보호를 우선시할 것, ▲농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농민과 같은 취약한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전략 수립, ▲농식품 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행을 방지하는

규제 마련

○ <질문 4> 농업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Robert Cole 메콩강 유역 토지 거버넌스 프로젝트/책임있는 농업투자에 관한 지역자문) 역내 푸드시스템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근간이 되는 것은 토지 소유권 보장이며, 메콩강 유역 토지 거버넌스(MRLG)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소농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목표로 함

•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단계는 소농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임

- 지난 컨퍼런스들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함 : ▲생산자, 지역사회 및 소비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공식 및 비공식 식품가치사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비공식 시장 행위자, 농민 등 민간부문과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환경으로의 전환 장려, ▲푸드 시스템 거버넌스는 현재의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가장 소외된 이해관계자들을 솔루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 <질문 5>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으로의 변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 (Yaw Frimpong Addo 가나 농업부 차관) 가나의 경우, 식품 섭취 등 생활양식을 통합하는 것과 다민족 국가이기에 수반되는 교육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지역생산 식품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지역별로 수확에 불균형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학생 수가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함

- (Sok Silo 캄보디아 국가 컨비너 겸 관방부 농업농촌개발위원회 사무총장) ▲학교급식 관련,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조달하여 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여 소농이 고충을 겪게 됨,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현지 식품 생산과 조달이 제한됨, ▲생산의 제약과 소비 습관은 캄보디아의 채소 및 곡물 섭취량을 제한하기에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인식제고와 행동변화 필요

○ <질문 6> 이러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학계, NGO 등 비정부기관에서 정부에 조언할 사항은 무엇인가?

- (Dao The Anh 베트남 농업과학원 부원장) 생산, 산업, 소비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화가 중요함. 또한, 농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교육하는 것과 소비패턴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Robert Cole 메콩강 유역 토지 거버넌스 프로젝트/책임있는 농업투자에 관한 지역자문) 해결책은 장기적인 참여와 대화, 그리고 토지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떻게 더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투자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증거기반 구축에 달려 있음

• 민간분야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많지만, 무책임한 행위자들에 높은 수익으로 보

상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기반 금융(performance-based finance)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Ply Pirom 세계자연기금-태국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프로젝트 매니저) 가치사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행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원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 예를 들어, 농민들이 단일작물 재배를 포기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관행을 따를 수 있도록 보상해야 함

마. [세션 5] 과학, 인권 및 혁신을 통한 전환 촉진

■ **일 시** : 4월 25일(2일차) 13:00~14:30 (한국시각)

■ **참석자** : Saboto Caesar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농림수산업노동부 장관, Jean-Jacques Muhinda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동아프리카 지역대표, Mansi Shah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미래사업실장, Gunther Beger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이사, Christine Campeau CARE 글로벌 옹호 디렉터 등

■ 주요 내용

- 인권은 공평하고 건강한 푸드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이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학, 금융 및 혁신은 인권기반 접근법으로 추진되어야 함
- 솔루션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소농과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혁신이 더욱 촉진되어야 함
- 빈곤층은 자선(charity)이 아닌 시장에 대한 접근 및 우호적 환경을 필요로 함
- 국가경로를 투자전략과 연계하고 공공 및 민간 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은 푸드시스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함에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금융 접근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패널토론

- <질문 1> 국가, 소지역 또는 지역 수준에서 전환 이행을 위한 수단이 실제 국가경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Saboto Caesar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농림수산업노동부 장관)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의 푸드시스템은 과거 식민지배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단일작물 플랜테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소농을 중심으로

재배 작물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옴

- 한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아직 상업적 농업의 프레임워크나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소규모 가족농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농업부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Jean-Jacques Muhinda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동아프리카 지역대표) 다양한 이행 수단은 증거, 데이터 등 과학에 기반한 사업기획, 개발프레임워크에서 의제 우선순위화, 과학 및 데이터 분석이 뒷받침하는 정책 개혁 및 이행, 자원조달, 디지털 기술 및 제도적·정책적 혁신 등의 방식으로 결합됨
 -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진행 중인 제도적 프레임워크 혁신의 경우, 과거에는 각 부문별(농업, 환경, 인프라 등) 문제를 다루는 이행기관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푸드시스템 관점에서 푸드시스템 의제를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클러스터화하는 개편작업이 진행 중임
- (Mansi Shah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미래사업실장) 비공식 경제부문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에 비추어보아 전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측면 중 첫째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 간의 결속력과 교섭력을 구축하는 조직화(organizing)이며, 둘째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 셋째는 농장을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하고, 여성 소유의 식품부문 사회적기업과 분권화된 공급망을 장려하는 것임
 - 이는 소비자들을 생산자들과 직접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가족농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만들어 줄 것임

○ <질문 2> SEWA는 친여성 정책 및 사업, 혼합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지원 등을 통해 식량안보 및 영양 극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우수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

- (Mansi Shah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미래사업실장) 과학 및 기술에 대한 풀뿌리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기존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가 부농 혹은 공식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공식 부문 및 영세농이 소외되는 현상이 만연해있었음
 - 그러나, 일례로 대농으로부터 물을 구입하여 밤늦게 관개를 해오던 영세 가족농 Anandiben은 SEWA의 지원으로 혁신적 기술인 태양광 발전 기반의 유압식 정밀관개시스템을 혁신적 금융솔루션을 통해 무상으로 시범도입함
 - 그 결과, 관개 비용을 40% 절감하고, 비료 및 농약 사용량은 줄이며 수확량은 3배로 증가시켰는데, 해당 사업을 Gujarat주 내 75개 농가로 확대하여 빈농 및 푸드시스템 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 <질문 3> 국가수준에서 식량권, 모든 사람을 위한 식량 및 영양 안보,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임금 증진에 관한 의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Saboto Caesar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농림수산산업노동부 장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FAO의 제로헝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특히 의회 여·야당의 동의를 얻어 시민사회까지 단합된 모습으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지난 수년간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식품이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국민적 인식에 기반함

- <질문 4> 아프리카 지역 맥락에서, 과학기반 접근법, 인권기반 접근법, 혁신 등이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 의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 (Jean-Jacques Muhinda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동아프리카 지역대표) 일례로, 에티오피아는 과거 밀 수입 의존도가 높았으나, 토양조사와 같은 기존 사업의 이점을 활용하여 환경에 적합한 토양과 작물별 비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비료보조금 제도에서 농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신용보조금 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연구 및 현장지도 체계, 민간부문 참여 장려 등을 통해 잉여생산을 기록함
 - 이처럼 양질의 투입재에 대한 농민의 접근성 향상, 토양산성도 관리, 연구지원 및 민간부문 참여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함
- <질문 5> 생산요소를 설명할 때 자주 도외시되는 예산 문제에 있어 공공 및 민간 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 (Saboto Caesar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농림수산산업노동부 장관)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농과 가족농은 대출 부결로 국가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힘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토착 농민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공 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보장해야 함
- <질문 6> 공공 및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 (Jean-Jacques Muhinda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동아프리카 지역대표) 아프리카 내 공공재원 조달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발프레임워크, 중기계획 등과 같은 구상이 금융지원 타당성과 투자가능성을 갖춘 구체적인 플래그십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음
 - 또한, 민간부문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자금을 투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성 조사 수준에 도달해야 함
 - (Mansi Shah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미래사업실장)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조달을 논할 때 중요한 사실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 아닌 '우호적 환경'이라는 것임
 - 따라서, 금융을 바라볼 때에는 역량강화, 신뢰할 수 있는 투입재에 대한 접근, 시장에 대한 접근 및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소농과 푸드시스템 내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소기업을 지원하는 우호적 정책 환경을 포괄하는 총체적 패키지로 볼 필요가 있음
- <질문 7>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어떠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Gunther Beger UNIDO 이사) UNIDO는 식량안보를 위한 혁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타 기구들과 협력 중. 올해 3월 FAO와 함께 '농식품시스템 혁신 액셀러레이터'를 발족했으며, 이는 가치사슬, 푸드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포용적 금융 개발 등을 통해 국가들이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여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질문 8> 공평한 푸드시스템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Christine Campeau CARE 글로벌 옹호 디렉터) 인권은 공평하고 건강한 푸드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근간이며, 인권기반 접근법은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가장 취약한 행위자 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에 접근하고 권리가 유지될 수 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 영토, 천연자원 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촉진함
 -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구조로 인해 이러한 권리에 대한 자격이 거부되는 것은 푸드시스템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 문제의 핵심임
 - 해결책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권의 이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권리가 거부되었을 때 이용가능한 구제책에 대한 접근방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바. [세션 6]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지원생태계 강화하기: 푸드시스템 접근법 발전을 위한 UNFSS 실천연합 동원

■ 일 시 : 4월 26일(3일차) 16:00~17:30 (한국시각)

■ 참석자 : James Lomax UNEP 푸드시스템 및 농업 자문(좌장), Nancy Aburto FAO 식품·영양과 부과장, Ann Trevenen-Jones 국제영양개선연대(GAIN)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수석, Oliver Oliveros 농업생태학 실천연합 코디네이터, Elise Golan 미농무부 지속가능발전 디렉터, Maria Jose Rojas 학교급식 실천연합 사무국(WFP) 등

■ 주요 내용

- 실천연합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을 위해 푸드시스템 접근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푸드시스템 렌즈 채택은 다양한 실천연합의 의제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천연합들은 장기적인 변화에 있어 국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실천연합은 집단적 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분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여러 실천연합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국가 컨비너들이 이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

■ 실천연합별 발표

(1) 아동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부터의 건강한 식단 실천연합(HDSFS)

- (발표) Nancy Aburto, FAO 식품·영양과 부과장

- **(목적)**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 보장
- **(회원국)** 브라질, 칠레, 덴마크,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EU, 핀란드, 가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수단, 스웨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예멘 외 18개국
 - (파트너) UN Nutrition, ILRI, CGIAR, FAO, WWF, Consumers International, UNICEF, EAT, WFP, WHO, UNEP, Care, GAIN 등
- **(주요 기능)**
 - 기존의 전문지식과 이해관계자를 활용해 푸드시스템 전반의 정책과 행동을 조정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집단적 영향 도모
 -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동료 간 학습 촉진
 - 특별 프로젝트 추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NDCs에 통합,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서서의 건강한 식단 보장 방안 등
- **(향후 계획)** 국가 간 불분명한 소통 경로 개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니셔티브 조정, 재원 동원 문제 해결

(2) 도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

- **(발표)** Ann Trevenen-Jones, 국제영양개선연대(GAIN)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수석
- **(목적)**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도시 식품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에 관한 다층적 정부조직 및 다중이해관계자 간 일관성 있는 행동 촉진
- **(회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EP, GAIN, FAO, UN HABITAT, UN Nutrition, WFP, IPES Food, 밀라노 도시식품정책협약 등
- **(주요 기능)**
 - 다양한 파트너의 전문성과 현지 지식 활용
 -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증거, 관행, 지침 등을 구축 및 공유
 - 도시 행정역량 동원, 세계적인 포럼에 대한 도시 참여 지원 등
- **(향후 계획)** ▲더 많은 회원 확보, ▲타 실천연합(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 건강한 식단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 및 소통

(3) 농업생태학 실천연합

- **(발표)** Oliver Oliveros, 농업생태학 실천연합 코디네이터
- **(목적)** 농업생태학을 통해 푸드시스템 전환 가속화

- **(회원국/파트너)** 47개국 및 UN 산하기구, 농민단체, 연구기관, 토착민 단체, 시민사회 등 100개 이상의 기관
- **(주요 활동)** 농업생태학에 기반한 국가들의 푸드시스템 전환 지원
 - 지식 공유 및 협업 촉진, 농업생태학에 대한 투자기회 증진, 농업생태학적 전환에 대한 정치적 개입 증대 도모
- **(향후 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 푸드시스템의 모든 영역을 다룰 계획

(4) 지속가능 생산성 증대 실천연합(SPG)

- **(발표)** Elise Golan, 미농무부 지속가능발전 디렉터
- **(목적)** 농업 생산성 증대를 가속화하여 전 세계 농식품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복잡한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
 - 농업생산성 증대는 집약적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투입물로 산출물을 늘리는 효율성 제고를 의미
- **(회원국/파트너)** 111개 회원국, 4개의 UN 기구, 13개 학계 및 연구기관, 53개 민간 기업 및 단체, 19개 기타 재단 및 기관
- **(주요 활동)**
 - 푸드시스템은 삶의 여러 측면과 맞닿아 있어서, ‘전체론적 접근법’에 기반해 식량안보 및 영양, 식품안전, 식품 접근성, 농민의 소득 및 복지, 형평성 및 포용성, 식품 손실 및 폐기, 생물다양성, 기후 등 여러 목표 간 영향과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를 달성코자 함
 - 각 회원들이 제출한 이니셔티브(혁신적 사례 및 증거기반 접근법을 다룸)에 대한 정보를 엮은 활동개요서(Compendium of Actions) 발간 예정

- **(향후 계획)** 활동개요서 발간, 기관 간 지속적 협력

(5) 학교급식 실천연합

- **(발표)** Maria Jose Rojas, 학교급식 실천연합 사무국(WFP)
- **(목적)**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학교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
- **(회원국/파트너)** 79개 회원국, 87개 NGO 및 학계 등
- **(구조)** 태스크포스(의사결정기구), 작업반, 이해관계자그룹
 - 태스크포스 : 12개 회원국(핀란드, 프랑스 주도)
 - 작업반 : 79개 회원국 / 이해관계자그룹 : 전체 파트너
- **(주요 활동)** 회원국의 목표달성을 돕는 4개 이니셔티브 진행 중

- ▲연구 컨소시엄(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와 증거 수집),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모델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 및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동료 간(peer-to-peer) 이니셔티브(경험 공유 플랫폼)
- 동 연합은 안정적인 현지시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 조달 및 공급망 개선 등 푸드시스템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침
- **(주요 성과)** 2021년 7월에 설립된 이후, 전 세계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투자가 50억달러 증가함 (430억달러에서 480억달러로 증대)
 - 또한, 지난 몇 년 간 저소득국가에 대한 투자가 50%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4억 1,800만명의 초등학생이 학교로 돌아와 매일 식사를 하고 있음

(6)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 실천연합

- **(발표)** Clementine O'Connor, UNEP 프로그램 담당관
- **(목적)** 식품 손실 방지 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한 콜드체인 등 가치사슬 협력,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 민관협력 등을 통해 SDG 12.3 달성
- **(회원국/파트너)** EU, 미국, 칠레, 브라질, 이탈리아, FAO, UNEP, World Resources Institute 및 비국가 행위자 등
- **(주요 활동)** 식품 손실과 폐기 관련 연구, 개발도상국의 식품 폐기 측정과 감소 능력 개발,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 로드맵 구축
- **(향후 계획)**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을 위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옹호 활동

사. [세션 7] 전환의 측정

■ **일 시** : 4월 26일(3일차) 18:00-19:30 (한국시각)

■ **참석자** : Viktoria de Bourbon de Parme 세계벤치마킹연합(WBA) 농식품시스템 전환 수석(좌장), Sylvia Lopez-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Sanjo Faniran 나이지리아 국가 컨비너, Nadine Gbossa IFAD 푸드시스템 조정 디렉터, Kate Blaszk 아시아리서치&인게이지먼트(ARE) 단백질 전환 부문 이사, Jamie Morrison 국제영양개선연대(GAIN) 선임 고문 등

■ 주요 내용

- 책무성(accountability)은 푸드시스템 전환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후속절차에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경로에 대한 계획에 적절한 책무성 조항을 포함도록 국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세계적으로는 격년 개최되는 성과점검 및 연례 SDG 진전상황 검토에 연결되도록 해야 함

- 특히 정부 등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는 적절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고안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개발파트너는 모두 푸드시스템 전환에 있어 각각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님

■ 기초발표

○ Sylvia Lopez-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 2021년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말미에 유엔 사무총장이 2030년까지 격년 주기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책무성(accountability)은 이미 푸드시스템 전환 절차 전반에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첫 성과점검회의는 7월 24~26일 FA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SDGs 달성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의 역할에 관한 이해를 견고히 하고, 2021년 정상회의 당시 공약한 행동의 진전상황과 병목현상 등을 검토하는 유익한 논의의 장 조성을 목표로 함
 - 이에, 성과점검회의는 책무성 도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성과점검회의까지의 여정) 지역별 사전회의가 개최됐으며, 회원국들의 자발적 진전보고서 제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

■ 패널토론

○ <질문 1> 국가경로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Sanjo Faniran 나이지리아 국가 컨비너) 나이지리아는 국가경로 이행에 관한 조정을 분권화하여, 36개주를 6개의 지정학적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 내 조정을 담당하는 1개주가 국가 컨비너에게 보고하고 있음
- 2021년 정상회의 이후, 2022년 국가경로 이행을 시작했으며, 연방 및 주 정부, 민간부문, 개발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역할과 책임이 분담됨
- 2023년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국가태스크팀이 구성되었으며, 금년 내 국가전략 이행전략 개발을 완료할 예정
-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기준(baseline)을 설정한 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있음

○ <질문 2> 푸드시스템 전환을 재정 지원 측면에서 IFAD가 푸드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 (Nadine Gbossa, IFAD 푸드시스템 조정 디렉터) IFAD와 WB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의제에 대한 논의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근거기반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재원의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개발파트너 등 글로벌 공동체가 투자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2021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당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Food Finance Architecture」을 발족했으며, 이는 ▲연간 약 3,000억~4,000억달러 상당의 투자금액 추가 동원,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비용으로 발생하는 약 12조달러 상당의 손실을 차별화된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원은 대표적으로 ▲자국 정부, ▲국제 개발금융, ▲민간투자로 구성되는데,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이들 재원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지 식별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평가와 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지원 및 도구를 요청함에 따라, 두 가지 도구를 활용 중
 - (국가 예산도구) 정부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내 재원조달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출이 국가경로에 설정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공적개발원조 측정) 개발원조를 두 번째 재원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OECD와 협력하여 ODA 데이터를 토대로 어느 공여국이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하는지 검토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 및 분야에 ODA 우선순위를 설정

○ <질문 3> 아시아리서치&인게이지먼트(ARE)에서 단백질 다각화와 관련 연구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관 투자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 (Kate Blaszk 아시아리서치&인게이지먼트(ARE) 단백질 전환 부문 이사) ARE는 아시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백질 전환과 같은 분야에서 기관 투자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부문의 변화를 촉진코자 함
- 기업 분석 또는 평가 시, 세계벤치마킹연합의 식량농업벤치마크, 농장 동물복지에 대한 비즈니스 벤치마크 등의 벤치마크를 활용하고, 산림 벌채 및 토지이용 변화 책임 프레임워크 등의 책무성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SDG 등 많은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지표를 검토하고 기업 및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기업들이 2030 단백질 전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아시아 단백질 전환 플랫폼을 개발하였음

○ <질문 4>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발족됐던 푸드시스템 카운트다운 이니셔티브와 푸드시스템 대시보드는 무엇인가?

- (Jamie Morrison 국제영양개선연대(GAIN) 선임고문) 모니터링 및 책무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특히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과 국가수준의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며, 이에 따라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함

- 푸드시스템 카운트다운 이니셔티브(The Food Systems Countdown Initiative): 국가 간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추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 푸드시스템 대시보드(Food Systems Dashboard): 각 국가의 푸드시스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주제와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아. [세션 8] 국별 컨비너 간 논의

■ **일 시** : 4월 27일(4일차) 11:00~12:30 (한국시각)

■ **참석자** : Sylvia Lopez-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좌장), David Nabarro 4SD 전략 이사, Sok Silo 캄보디아 국가 컨비너 겸 관방부 농업농촌개발위원회 사무총장, Truong Tuyet Mai 베트남 국가 컨비너 겸 보건부 산하 영양연구원 부원장 등

■ 기초연설, David Nabarro 4SD 전략이사

-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시작할 당시부터 SDGs는 2030년까지 푸드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으며, 국가 컨비너들은 그 나침반을 사용하여 국가 내 이해관계자들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
- 국가 컨비너들의 작업방식에는 다음의 특성이 있음 : ▲광범위한 시각으로 식품을 바라봄, ▲다학제 접근법 채택, ▲식품 거버넌스에 관련된 모든 부문과 작업,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 ▲단기적 관점 및 장기적 관점을 동시에 지님
- 푸드시스템 전환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국가 컨비너들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실현가능한지,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 패널토론

- <질문 1> 국가경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설립한 '시민의회'와 관련, 시민의회에 참여할 시민을 선정하는 방법과 시민의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와 그들이 제공한 권고사항의 활용도는?
 - (Alwin Kopse 스위스 연방농업청 국제·푸드시스템 수석) 전문가들이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 80명을 선정했으며, 5개월에 걸쳐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 행위자 또는 업계, NGO를 대상으로 한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부여함. 그 결과,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위한 126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됨
 - 시민들이 제안한 권고사항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는 과정 등 작업결과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과 상호 간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함

○ <질문 2> 각 국은 성과점검회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와 부문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있는가?

- (Sok Silo 캄보디아 국가 컨비너 겸 관방부 농업농촌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캄보디아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국가경로를 활발히 이행 중
 - 국가 식량안보 및 영양 전략 개발, 식품안전 및 영양 관련 인식제고 활동, 모든 개발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식량안보 및 영양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 실무그룹을 운영, 지방의원들에 대한 식량안보 역량개발 실시 등
- 주요 도전과제로 다양한 부처 간 분절화뿐만 아니라, 유엔 기구 등 공여자들 간 분절화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지방 당국, 공여자, 유엔기구 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함

○ <질문 3> 베트남에서는 농업, 보건, 무역, 환경 관련 부처와 지방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경로를 추진하고 있는가?

- (Truong Tuyet Mai 베트남 국가 컨비너 겸 보건부 산하 영양연구원 부원장) 베트남 정부는 2021년 정상회의부터 국가경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총리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30년 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비전을 설정했으며, 농업농촌개발부를 중심으로 보건, 무역 등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력 중
 - 식품안전 기준 및 법 개선 및 기타 식량안보 및 영양 관련 이니셔티브 추진
 - 국가경로 추진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인식 제고를 넘어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더 많은 과학자 및 연구자의 참여를 통해 기술 관련 도전과제도 극복해야 함

자. [세션 9] 결론 및 폐회식

■ 일 시 : 4월 27일(4일차) 11:00~12:30 (한국시각)

■ 참석자 : Alwin Kopse 스위스 연방농업청 국제·푸드시스템 수석(좌장), Jamie Morrison 국제영양개선연대(GAIN) 선임고문, Corinna Hawkes FAO 푸드시스템·식품안전과장, James Lomax UNEP 푸드시스템 및 농업 자문, Sylvia Lopez-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등

■ 각 세션별 논의요지

○ (2세션) 푸드시스템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 재고하기

- 현 글로벌 푸드시스템 거버넌스 아키텍처는 일관되고 조정된 일련의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분절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CFS와 같은 정부 간 프로세스와 협력해야 함
- 현재의 글로벌 무역 체제는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한 시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 식단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각국의 지역 푸드시스템 개발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3세션) 국가 및 하위국가 거버넌스 및 정책 재점검

-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연결과 협업은 필수 요소
- 우리 모두가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을 채택할 책임이 있음
-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 합의 그리고 힘의 균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4세션) 변화하는 소비 및 생산 패턴

-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기아와 영양불량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와 주체들이 지속불가능한 식량 소비와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
- 이러한 문제는 개별이 아닌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전 세계 공동체의 공동이익에 초점을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개발되어야 함
- 정부는 농식품 업계가 지속불가능한 관행을 방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책임성을 지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5세션) 과학, 금융, 인권, 혁신을 통한 전환 촉진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이며,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학, 혁신, 금융, 인권을 사용하여 여러 이행수단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함
- 빈곤층은 자선이 아닌 시장에 대한 접근 및 우호적 환경을 필요로 함
-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권에 기반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촉진해야 함

○ (6세션)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지원생태계 강화하기: 푸드시스템 접근법 발전을 위한 UNFSS 실천연합 동원

- 실천연합들은 회원국, 민간부문 등 비정부 행위자를 포함하여 포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의제와 작업계획, 그들만의 방식으로 푸드시스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주제별 협업을 넘어선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함

○ (7세션) 전환의 측정

- SDGs,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지침 등에 기반하여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책무성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측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진전상황을 측정하고, 진전을 촉진하며, 국가경로 이행의 격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다중이해관계자 참여는 적절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

○ (8세션) 국별 컨비너 간 논의

- 컨비너들은 국가경로는 우리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며, 계속 발전시켜나가기야 하는 동적 도구로 간주해야 함을 강조함
- 푸드시스템 전환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가 수준에서 다부문,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논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주요 도전과제인 다양한 부문 간, 부처 간, 개발파트너 간 등의 분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패널토론

○ (질문 1) 세션별 요지에 대한 생각 및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Mogesh Sababathy 청년대표/Project Ocean Hope 공동창립자)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푸드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아동과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노력과 풀뿌리 차원에서의 노력 사이의 단절을 해결해야 함,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친빈곤 및 친농민 정책에 집중해야 함, ▲푸드시스템 문제가 다면적이며, 청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부문 간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함
- (Nguyen Thi Viet Ha 베트남 농민연합 대외 및 국제협력 부국장)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며, 농민들이 금융, 시장정보 및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다자간, 다부문 또는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 및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공급망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 (Adam Gerstenmier 식품행동연맹 전무이사) 전반적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푸드시스템 전환은 정치적인 절차임을 상기함
- 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이 요구되므로, 국제 수준에서 일부가 원하는 것보다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 강화해야 하며, 국가 및 하위국가 수준에서 포괄적인 조정 메커니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질문 2) 이번 회의를 통해 하노이에서 로마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 (Sylvia Lopez-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푸드시스템 전환은 건강에 관한 것이며, 평화, 존엄성, 인권, 성평등, 빈곤퇴치, 그리고 희망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 이에 따라 우리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글로벌 정치 의제의 최상위와 중심에 두어야 함
- (로마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는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며, 정치적 의지는 매우 중요함, ▲여러 세션에서 언급된 부문 간 및 부처 간 분절화를 극복하고 근절해야 함, ▲금융 등 이행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도 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관련 논의에서 농민을 중심에 두어야 함

부록 5. '회복력 구축' 다이얼로그

회의 개요

- 목 적 : 국가 컨비너, 기타 정부 대표 및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관한 주요 이슈, 예시, 경험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 시 : 2023년 5월 3일(수) 15:00-16:20(KST)
- 주요내용 : 회복력 구축을 위한 우수관행 공유, 단기적 위기 대응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계획 간 차이 등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5:00-15:05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5:05-15:45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 - 발표 : Martin Fricks,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베를린사무소장 (전) 2021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 - 사회 : Sara Puccini,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프로그램 담당관
15:45-16:10	상호대화 - 사회 : Sara Puccini,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프로그램 담당관 - 마무리 : Sylvie Wabbes, FAO 긴급 및 복구 담당관
16:10-16:20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현재 푸드시스템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기, 환경오염 등 3중 환경위기와 더불어 식량가격 상승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회복력은 두 가지 측면, 즉 (1) 충격을 견디는 능력 및 (2) 충격 이후 더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임
 - 지속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차원의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과정이기에, 충격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는 두 번째 측면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기초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 : Martin Fricks, WFP 베를린사무소장(전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

- 전 세계 푸드시스템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같은 각종 위협요인으로 인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임
 - 이는 식량가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세계 곳곳에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1억3,500만명이던 식량불안인구가 확대되어 오늘날 급성 식량불안인구는 3억5,000만명에 달함
- 따라서 기후충격을 비롯한 국내외 충격에도 안정적인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함
- 특히, 외부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이에, WFP에서는 지난 60년간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역(local) 내에서 소비할 식량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충격에 대비한 푸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회복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영양 증진에도 도움이 됨
-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식량무역을 개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흑해곡물협정과 같은 협약을 통해 식량가격의 급등을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시스템적 접근법의 일환으로 토양 복원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농지환경을 조성하고 수분 및 탄소를 저장하는 등 척박한 환경의 땅을 비옥한 농지로 복원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영향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푸드시스템의 회복력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는 식량 및 영양을 다양화하는 것임

<질의응답>

○ (질의 : Sara Pezzini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프로그램 담당관) 2021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부특사로서, 7월 개최 예정인 성과점검회의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 (답변) 2021년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많은 이들이 식량이 비단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영양, 손실 및 낭비 등 다양한 주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인지하게 되었음
 - 특히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등 각종 국제회의체에서 푸드시스템이 화두에 등장하고 있는 바, 금번 성과점검회의를 통해 각국의 정치적인 의지를 상기하고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질의 : Carolyn Collins 호엔하임 대학교) 우리는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발과정을 거쳐 왔으나, 다시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 등의 '다양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상쇄효과는 없는가? 회복력 구축을 위한 균형을 어떻게 찾는가?

- (답변) 지역 내 생산이 늘어날수록 세계 시장의 상품가격은 인상되는 등 다양성을 고려함에 따른 상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공정한 가격 인상분이라고 생각함
 - 선진국의 시각에서는 노동집약도가 낮을 때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평가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집약도가 높은 것을 선호함. 자연친화적인 생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식량 생산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질의 : Nicole de Paul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시스템적 사고 및 접근법에 대한 공여국의 푸드시스템 재정지원 규모, 방향성 등에도 변화가 있는가?
- (답변) 공여국들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도주의, 개발 및 평화 넥서스 측면에서 재원의 유연성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장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회복력 강화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용 목적이 지정된 기여금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또한 급성기아인구 중 60%가 인류의 활동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전 등 장기화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수립 및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러시아) 식량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 (답변) 무역은 매우 중요함. 우리는 현재 국가들의 회복력 있고 현지화된 식량생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은 식량독립적이길 바라고 있음
 - 지난해 무역차질이 지구 전체에 상당히 충격적인 여파를 일으킨 바, 식량무역은 항상 개방되어야 하며, 시장에서의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식량 수출지역 중 하나인 흑해는 식량 수출을 위해 개방되어야 하며, 다음 충격이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과 기아로 몰아넣을 수 있기에 흑해곡물협정이 연장되길 바라고 있음. 본 협정은 세계 농식품 무역시스템이 개방되도록 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질의 : 수단)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수단에서는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어떻게 하면 정치적 문제가 아닌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
- (답변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긴급사태 대응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및 회복력이 양분화된 경향이 있음. 분쟁 상황에서는 긴급구호가 가장 우선순위가며, 식량안보가 국가개발계획의 일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답변 : Svante Helms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가경로 매니저) 작년까지 WFP 국가사무소장으로 근무한 부탄에서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단기 대응과 장기 대응 간 양분화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부탄은 인도의 비료 수출 금지조치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업인들은 비료 없이 생산과정을 진행해야 했음
 - 이로 인해 부탄 내 비료 및 바이오비료의 생산에 대한 초점이 강화되면서 생산량 증가 및

공급사슬 단축 등이 이뤄진 바 있으며, 이는 매우 간단하지만 식량위기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예시로 볼 수 있음

- 다만, 행동변화(예: 학교급식), 현지 식량 소비, 현지 식량 생산 지원 등의 구조적인 변화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여러 국가들이 추진하는 사회보호 조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함. 예를 들어 농업인을 위한 시장기반 보험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날씨지수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 정부 또는 유엔기구가 지원(예: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이하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위기 동안 농업인에 도움이 됨
-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조치들은 향후 위기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할 것임

■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 안내성 질문

- 1) 보다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 2)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치는?

- (수단) 수단의 주요 우선순위는 생산성 향상이며, 이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개발을 의미함
 - 수단에서는 현지 생산 식품을 주로 소비하나, 생산과 더불어 소비 패턴과 식량무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노동에 관한 기술 및 높은 비용 등의 문제도 있음
- (부탄) 부탄은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국가이기에 일부 독특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 중 생산성 및 생산 안정 문제가 있음
 - 부탄에서는 인간과 야생 간 갈등이 존재하기에 매우 비싼 체인 연계형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탄 내 재배되는 작물을 보호하는 데 대한 공여주체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물이 부족하여 개수로 관개시스템에서 파이프 관개시설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함
 - 또 다른 주요 주제로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식품 유통 개선, 노동력 부족 해결 등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더 나은 무역협정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WTO 가입을 검토 중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어느 시점부터는 긴급구호와 인도적 대응보다는 개발지원을 통한 수혜국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보임

» 질문: 현지 식량생산,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한 회복력 구축 및 무역 촉진을 위한 접근방식은?

- (Svante Helms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가경로 매니저) 식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부탄의

코로나 시기 경험에 비춰보면, 국경이 폐쇄되어 비료가 유입되지 않고 자국민을 위해 타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현지 생산량을 늘리고 자립하는 데 집중하게 됨

- 코로나 회복 자금의 대부분은 현지 생산에 투자되었으나, 생산과 관련된 보다 넓은 영역으로 초점이 확대되었음

- 즉, 국가가 코로나 위기 등에 직면하여 자립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충격에 대응하고자 할 때 푸드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게 됨

》 마무리

○ (Sylvie Wabbes FAO 긴급 및 복구 담당관) 회복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것임

-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 회복력 관련 세 가지 실천연합이 조성됨

- (기후 회복력 실천연합) 기후 위험과 영향은 전 세계 식품 가치사슬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위협하고 있음
- (인도주의-개발-평화(HDP) 넥서스 실천연합) 분쟁, 기후변화 및 기타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한 국가에서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가고 있음. 회복력은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을 예방, 예상, 적응하는 사전 대응에 있어서도 필수적임
- (지역 식품공급망 실천연합) 현지 식품 생산 부문의 기능 향상, 기후 등 다양한 위험에 회복력 있는 품종 확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지역(현지) 푸드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함

■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오늘 논의를 통해 각국가들이 현지에서 각각 직면한 상이한 문제(식품 생산 및 소비 개선, 무역 촉진, 거버넌스 개선 등)들을 모두 다루어야 하며,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 많음을 확인하였음

부록 6. '공동 SDG 기금의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 다이얼로그

회의 개요

- 배 경 : 국가 및 컨비너들이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진전 노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신탁기금/펀딩 메커니즘을 수차례 요청함에 따라, 조정허브는 공동 SDG 사무국과 협력하여, '공동 SDG 기금 푸드시스템 창구(Food Systems Transformation Window)'를 인큐베이팅하고 있음
 - 동 창구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해 여러 펀딩 라운드를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요구에 부응코자 하며, 5년간 3억5,000만달러 조성을 목표로 함
- 목 적 : 조정허브가 최근 개발한 투자전략 초안의 방향과 국가적 노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가 컨비너들의 피드백과 더불어, 성과점검회의(STM) 기간 예정된 창구의 공식 발족 직후 첫 번째 펀딩 라운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 일 시 : 2023년 5월 17일(수) 15:00-16:20(KST)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5:00-15:05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5:05-15:15	[발표 1] 공동 SDG 기금 발표 - 발표 : Victoria Gemeli, 공동 SDG 기금 사무국 준전문관
15:15-15:30	[발표 2]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 발표 - 발표 : Ophélie Hemonin,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프로그램 담당관
15:30-16:15	토론 (안내성 질문) 1. 국가 푸드시스템 경로/전략에서 가장 큰 자금격차를 겪고 있는 분야와, 귀 국의 상황에 따른 첫 번째 펀딩 라운드의 우선순위 분야는 무엇인가? 2. 허브가 개발한 투자전략이 귀 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우선순위와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지원 수요에 부합하는가?
16:15-16:20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년 전 국가 컨비너들의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가경로 이행 지원을 위한 기금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신규 메커니즘이 아닌 유엔시스템이 수년 전 구축한 공동 SDG 기금 메커니즘을 활용기로 함
 - 조정허브는 국가가 접근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들이 국가경로 이행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발표 1] 공동 SDG 기금

- 발표 : Victoria Gemeli, 공동 SDG 기금 사무국 준전문관
 - 공동 SDG 기금은 UN 개발시스템의 유일한 다중파트너 신탁기금이며, 유엔 상주조정관(RC) 과 유엔 국가팀(UNCT)이 SDG 이행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공동 SDG 기금의 의장으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부문 간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기구 간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상호연결되어 있는 2030 의제의 특성으로 고려, 동 기금은 SDG 달성 가속화를 위해 1) 통합적 정책, 2) SDG 파이낸싱에 관한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 전환에 초점을 둠
 - (통합적 정책) 국가 차원에서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유형을 변경에 대한 지원 제공
 - (SDG 파이낸싱) 단순히 공적개발원조를 국가의 SDG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발에 대한 전체 재정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2019년 조성된 이후, 약 2억5,000만달러로 1억8,800만명이 실질적이고 확장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푸드시스템 관련해서도 2020-23년 기간 4,100만달러가 지원된바 있음
 - 푸드시스템이 SDG 달성의 촉진제라는 것이 명백하고,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자원이 가용할 때 조정허브를 통해 각국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자원을 배치할 수 있음

■ [발표 2] 푸드시스템 창구

- 발표 : Ophélie Hemonin,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프로그램 담당관
 -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는 다음 4가지를 목표로 함
 - 모든 SDGs의 촉진제로서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을 촉진
 - 정부 주도의 권리기반 다중이해관계자 푸드시스템 전환을 추진(유엔 국가팀의 전략적이고 조정된 지원을 통해)
 - 건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향한 국가 푸드 금융 구조를 재편하고, 더 많은 SDG 가치 창출을 촉진

-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지식과 학습을 축적하고, 진행상황과 영향을 모니터링 및 소통하는 데 기여
- 창구는 단계적, 다년간 접근법을 채택해 국가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국가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며, 2023-28년 기간 목표로 하는 전체 조달액은 3억5,000만달러임
- 지원이 각국의 흡수역량에 맞춰지고 현실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가지 펀딩 트랙이 제공될 것
 - 2가지 트랙은 성숙 공동 프로그램(Mature Joint Programme) 및 초기단계 공동 프로그램(Early-stage Joint Programme)으로, 초기단계 공동 프로그램은 성공적일 경우 추후 성숙 공동 프로그램 펀딩 라운드에서 고려될 수 있음

■ 토론

» 안내성 질문

- 1) 국가 푸드시스템 경로/전략에서 가장 큰 자금격차를 겪고 있는 분야와, 귀 국의 상황에 따른 첫 번째 펀딩 라운드의 우선순위 분야는 무엇인가?
- 2) 허브가 개발한 투자전략이 귀 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우선순위와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지원 수요에 부합하는가?

○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우선순위는 1) 기후변화,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 구축 및 2) 자연친화적인 생산 증진임

-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위기가 농식품 부문과 농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특히 재해 발생지역에서 푸드시스템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공동 SDG 기금의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인도주의적 및 부문별 필요사항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국가경로 준비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연친화적 생산의 확대가 우선순위로 부각됨
- 이밖에도 농식품 부문의 디지털화 및 기후스마트 기술 보급 및 활용, 농식품 비즈니스(특히 소규모)의 규모화, 농식품 부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기술 지원 등을 주요 분야로 고려하고 있음
- 허브가 개발한 투자전략은 튀르키예 국가경로의 우선순위와 목표에 부합하며, 국가 푸드시스템 전환 우선순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유엔 팀과 협력하여 향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레바논) 레바논 인구의 약 70~80%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식량불안을 겪고 있으며,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는 거버넌스임

- 식량안보는 단지 식품이 아닌 푸드시스템 전체에 관한 사안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는 다른 부문에 있음. 따라서 첫 번째로 식량안보의 다양한 축과 푸드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부문 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수립하는 데 대한 전략이나 비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푸드시스템에 기여하는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분석하는, 증거와 정보에 입각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식단을 향한 전략이나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도구 및 메커니즘이 있어야 함
- 또한, 레바논 의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올바른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레바논의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다중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한 제도적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 (네팔) 네팔의 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 분야는 1)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푸드시스템 이행 메커니즘 구축 및 국가경로 이행, 2) 영양가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작물, 기후 회복력 있고 물과 비료를 적게 필요로 하는 작물 등의 촉진, 3) 식량권 및 식량주권 법 이행을 통한 식품 거버넌스 개선, 5) 증거에 기반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및 증거 강화임
- 제시된 투자전략은 네팔의 우선순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진전상황 검토와 격년 성과점검회의가 전략적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캄보디아) 제안된 자금조달 메커니즘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겪고 있는 자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격차는 특히 주 정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제약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주 정부 수준에서의 이행 능력과도 관련이 됨
- 우선순위 분야 역시 하위국가 수준에서의 조정과 이행과 관련됨. 캄보디아는 혁신적 행동을 위한 동력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함. 하위국가(현지) 수준에서 사회지원 메커니즘(임산부와 2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 Cash+ 메커니즘, 빈곤층과 취약층을 위한 Cash+ 메커니즘, 학교급식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필요함

» 마무리: 토론 요약

○ (David Nabarro 4SD 전략이사)

- 유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재원은 국가 우선순위에 대한 조치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변화를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해 집중하는 것은 재조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함
- 푸드시스템 전환을 하위국가(주, 지방) 수준에서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원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됨. 법적 및 제도적 준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레바논 등이 법적 및 제도적 절차, 규정 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 이 모든 전환을 위한 행동에는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에 접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임

■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오늘 논의를 참고하여 공동 SDG 기금의 푸드시스템 전환 창구의 투자전략을 더욱 정교화할 것

-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공여자들이 약속한 지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컨비너 여러분들이 정치적 지지와 더불어, 푸드시스템이 SDGs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7월 성과점검회의 전반에서 금융/자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혁신적 금융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이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시길 기대함

부록 7.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지역별 접점' 다이얼로그

회의 개요

- 목 적 : 푸드시스템 국가 컨비너들이 2023년 7월 성과점검회의(STM)에 대한 각국의 참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동료 간 및 지역 내 추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일 시 : 2023년 5월 23일(수) 15:00-17:00(KST)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5:00-15:05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5:05-15:10	[발표 1] 3월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 핵심 메시지 - 발표 : Katinka Weinberger, ESCAP 환경정책개발부장
15:10-15:20	[발표 2] 성과점검회의 준비에 대한 업데이트 - 발표 : Sylvia 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15:20-16:50	국가 컨비너와의 토론 (안내성 질문) 1. 연결 및 협력: 다양한 부문과 주제별 이슈(예: 농업생태학, 식생활 변화, 회복력, 공평한 생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수준(지역, 국가, 하위국가)에서의 연결 및 협력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2. 모니터링 및 책임: 여러 부문,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 단계의 노력과 개입은 어떻게 추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적은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검토 과정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적응: 국가 수준에서의 자발적 진전 검토는 충격(기후변화, 분쟁, 인플레이션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16:50-16:55	마무리 - David Nabarro, 4SD 전략이사
16:55-17:00	폐회 - Sylvia 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지난 1년간 일련의 푸드시스템 솔루션 다이얼로그를 통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모멘텀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조정허브는 국가 컨비너의 국가경로 이행 노력을 지원해오고 있음. 이는 조정허브의 주요 목적이기도 함
 - 3월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에서 여러 국가의 다양한 후속조치와 강력한 국가경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교류된 바, 7월 성과점검회의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태지역이 푸드시스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함

■ [발표 1] 3월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의 핵심 메시지

○ 발표 : Katinka Weinberger, ESCAP 환경정책개발부장

- 3월 30일 개최된 아태지역 성과점검회의에는 주요 도전과제, 성과, 국가경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이 논의됨
- (도전과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위험 증가, 농업부문의 국가 GDP에 대한 기여 감소, 농민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추세,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등
- 아태지역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주요 행동
 - (지속가능한 시장주도 생산) 현지 소비를 위한 현지 생산, 시장주도 및 수출지향적 농식품시스템, 농업생태학 및 기타 기후스마트/자연친화적 생산, 작물다양화, 농민의 지식 및 자원에 대한 접근 등 촉진
 -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공 및 유통) 푸드시스템 가치사슬의 디지털화, 수출 및 국내 소비를 위한 식품안전 및 품질 표준 강화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소비) 푸드시스템 및 영양 관련 문해력, 현지 재배 농산물 활용 프로그램 촉진 등
-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우호적 요인
 -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사회안전망 활용, 여성·청년·토착민의 역량강화, 인프라 투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 등
 - (정치적 리더십 및 거버넌스)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약속, 지방 정부/당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과정에서의 역할 강화
 - (규제 프레임워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식량권 보장,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서 힘의 재균형
 - (데이터 및 지식) 데이터에 대한 투자, 위험 평가 및 조기경보 도구 강화 등
 - (금융 개선) 자금지원에 대한 접근성 및 수준 제고, 혁신적 금융(예. 자연친화적 생산에 대한 보조금 및 면세, 탄소 배출권 등), 민관협력 촉진

■ [발표 2] 성과점검회의의 준비에 대한 업데이트

○ 발표 : Sylvia 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 (STM의 목적) (1)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해 정상회의에서의 약속 이행에 대한 진전을 검토하고,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수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해 이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물과 우선순위 분야를 식별, (2) 세계 지도자, 국가 의사결정자 및 푸드시스템 주체들 사이에서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의 강력한 역할을 중요한 SDG 촉진제로 사회화, (3)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이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더 지속가

능한 결과에 기여한다는 최신 증거를 바탕으로 규모 있는 긴급조치 옹호

- (STM의 비전) 행동지향적이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용성 있는 시스템적·넥서스 접근법을 통해 평화, 인도주의적 문제, 개발, 기후, 푸드시스템 전환 등의 사안을 연결
- 7월 STM은 고위급 개회식(유엔 사무총장, 이탈리아 총리 및 여러 국가 수반 참석)과 함께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주제영역에 관한 다각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각 국은 최소한 장관급(이상적으로는 국가 원수)이 이끌고, 국가 컨비너가 포함된 대표단을 꾸리길 바랍

■ 토론

» 안내성 질문

1. **연결 및 협력:** 다양한 부문과 주제별 이슈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수준(지역, 국가, 하위국가)에서의 연결 및 협력이 푸드시스템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2. **모니터링 및 책임:** 여러 부문,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 단계의 노력과 개입은 어떻게 추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적은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검토 과정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적용:** 국가 수준에서의 자발적 진전 검토는 충격(기후변화, 분쟁, 인플레이션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 **(팔라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임. 많은 부분이 농업수산환경부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나 내각 수준에서 공로를 공유하고 있음

- 진전 추적 관련, 팔라우는 결과 지표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생산된 식품의 칼로그램 또는 벌어들인 금액 측면에서 몇 가지 기준선을 설정했음
- 충격에 대한 적용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둠. 생산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에 집중하여 물리적 시장, 디지털 시장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4배 이상 높여 현지 가격 상승이 심하지 않았고 소비가 증가했음

○ **(나우루)** 국가경로는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부재하여 각 주체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FAO 및 기타 개발파트너 포함)적 수준에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또한, FAO가 나우루의 국가경로 이행전략에 따라 지원을 조정하고,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나우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색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인도)** 농식품부문의 네 가지 목표로 설정한 성장,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주체나 부처에만 책임을 맡길 수 없으며, 인도는 여러 층의 조율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농업부, 축수산부, 식품가공 등 농업 관련 정부부처 간 조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조율을 위한 메커니즘도 수립됨

- 충격에 대한 적응 관련,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됨에 따라 수혜대상으로 식별된 8억명에게 주요 곡물을 무료로 공급하는 한편, 기후 등 관련 회복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함
- **(한국)** 정상회의 이후 국가경로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농민단체 및 학계와 곡물 생산 다양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식품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타 국가와 협력 중
 -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식량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대응에 대한 기여를 늘리고자 함
 -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는 WFP를 통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쌀 지원을 두 배로 확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규모 확대, 아프리카의 쌀 생산 및 가치사슬 제고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발족 등을 발표함
 - 8월 초 APEC 식량안보 장관급회의가 개최되는 바,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STM과 APEC 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 **(일본)** 일본은 자발적 진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우수관행 및 사례 자료를 제출한 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조정허브의 보고서를 기대함
 - 특히 일본은 고온다습한 기후, 벼농사 위주의 농업 등 일본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동아시아 몬순 국가들과 혁신을 통한 식량생산 잠재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미도리 전략을 2021년 발족했으며, 전략의 이행을 촉진하는 미도리법이 2022년 발효됨.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별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음. 동 전략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 농림수산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 등을 달성코자 함
 - 적응 관련, 민간부문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향한 변화의 모멘텀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민간부문과 소규모 농그룹 간 연계 강화를 위해 IFAD와 관련 이니셔티브(ELPS)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동 이니셔티브는 G7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은 바 있음
-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식량안보 및 영양 플랫폼과 정책 등을 기초로 하여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협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주정부 수준에서의 연결과 협력을 구축하는 것임. 분권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이제 이를 실행 및 운영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음
 - 모니터링 및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SDGs부터 다양한 국제적 약속, 국가 정책, 부문별 정책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는 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세 번째 국가전략을 수립 중이며, 이를 모든 지침을 내재화하기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로 사용될 예정임
- **(파키스탄)** 2021년 개발된 국가경로는 정부의 정책 환경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됨. 건강한 식이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 영양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인식

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정부는 기존 국가경로가 행동이 아닌 이론지향적임을 인지하고 국가, 하위국가 등 모든 수준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국가경로를 재검토 중
- 기후변화, 분쟁,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이 심각한 충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 마무리: 토론 요지

○ (David Nabarro 4SD 전략이사)

- (연결 및 협력) ▲필요에 따라 국가경로와 정책이 서로 부합하도록 연결, ▲다양한 형태로 조정 체계를 수립 중이며, 이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을 뒷받침, ▲점차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대됨, ▲국가 수준이 아닌 하위국가 수준에서도 전환 노력 중, ▲푸드시스템 접근으로 보다 광범위한 격차와 균열을 식별 가능
- (이정표) 푸드시스템의 여러 측면에 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함. 국가들은 진전을 추적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 중이며, 이러한 지수를 국가 전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있고, 기후 등에 관해서는 국제적 추적과도 연결하고 있음
- (적응) 식량,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큰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푸드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 정책입안자들의 더 많은 증거 요청, 식량 생산과 접근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열망 등이 증가하기도 함

■ 폐회

○ (Sylvia 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아태지역에는 G7, G20 국가들이 있음

- 7월 STM은 COP28, SDG 정상회의 등 그 이후까지 여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길 바랍

부록 8.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계획 - 과학, 기술, 혁신' 다이얼로그

회의 개요

- 배경 : 조정허브는 국가들이 국가경로 설계 및 이행을 위하여,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과학자문위원회(SAC,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를 조직함
- 목적 : 과학·기술 공동체(SAC), 지원생태계(Ecosystem of Support)를 연결하여 과학-정책-사회 대화 및 협력을 촉진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5:00-16:30(KST)

진행순서

구분	내용
15:00-15:05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5:05-15:30	과학자문위원회(SAC) 패널 발언 - Shakuntala Thilsted, SAC 의장 - Shenggen Fan, SAC 공동의장 - Jean-Francois Soussana, SAC 공동의장
15:30-16:20	상호토론 - 좌장 : Shakuntala Thilsted, SAC 의장 (안내성 질문) 1. 과학·기술 공동체에 대한 국가들의 기대는 무엇인가? 2. 경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과학-정책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3. 경로를 이행할 때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4. 과학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지식 격차는 무엇인가?
16:20-16:25	마무리 - Shakuntala Thilsted, SAC 의장
16:25-16:30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개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국가 컨비너들이 요청한 바와 같이, 국가경로 이행에 있어 식별된 격차들은 과학 및 증거 기반 접근법에 기반하여 해소되어야 함

- 2022년 세계 푸드포럼에서 발족된 과학자문위원회(SAC)는 Shakuntala Thilsted 의장과 4명의 공동의장을 비롯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과학자문위원회(SAC) 패널 발언

○ Shakuntala Thilsted, 과학자문위원회(SAC) 의장

- 오늘 논의가 국가들의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가 컨비너-SAC-지원생태계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SAC의 구성원(일부는 2021년 정상회의 당시 과학그룹의 일원)은 FAO 사무총장이 임명했으며, SAC는 과학과 혁신에 기반하여 국가들이 푸드시스템 전환 등 2030 의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 Shenggen Fan, SAC 공동의장

- 중국농업대학교의 교수이자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이사로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특히,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거버넌스, 금융, 정책에 대한 혁신도 중요함

○ Jean-Francois Soussana, SAC 공동의장

- 미래 푸드시스템에는 방대한 옵션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증거기반 및 시스템 접근법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음. 우리는 식량 및 영양 안보를 달성해야 하면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함
- SAC는 정부 간 과학그룹으로 기능하지 않지만,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옵션을 제공하면서 국가들이 2030 의제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다할 것
- SAC의 사업계획은 3가지 파트로 구성됨 : 1) 농식품시스템 전환의 효과적 거버넌스(식량권, 양성평등 등), 2) 지구의 경계 내에서 공평한 농식품시스템 전환(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생태계 등), 3)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대한 메트릭 검토(SDG 목표와 지표 등을 통한 농식품시스템 전환의 영향 측정)

■ 상호토론

» 안내성 질문

1. 과학·기술 공동체에 대한 국가들의 기대는 무엇인가?
2. 경로를 이행하는 데 있어 과학-정책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3. 경로를 이행할 때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4. 과학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지식 격차는 무엇인가?

○ (동티모르) 국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학적 권고사항을 필요로 함

- 특히, 동티모르는 생산에서 식탁까지 과정에서 식품 폐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어느 단계에서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는지, 폐기를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

가 필요함

- 한편,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지방정부 등의 투자와 자원조달이 요구됨. 이를 위한 옹호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정치인·의사결정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보 및 데이터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공동체,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권고도 필요함

○ **(나이지리아)** 국가 컨비너들의 작업/활동은 기술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요구됨

- 고위급 관료들이 2030 SDGs 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조정허브가 관련 부처 장관, 대통령 등 정부 관료들과 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람

○ **(레바논)** 푸드시스템의 개념 및 전환 방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푸드시스템의 정의, 구성 및 전환 방법에 대한 지식격차가 문제점임을 인식하였음

- 또한, 레바논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IT 커뮤니티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정 및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프레임워크도 필요

○ **(수단)** 하위국가 수준에서 네트워킹 부족이라는 격차가 존재하므로, 하위국가 수준에서 더 많은 조치와 지식공유 노력이 요구됨

- 푸드시스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격차도 해소되어야 하며, 과학 및 혁신이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식 및 정보 공유 측면에서 필수적인 여러 기관 간 조정이 강화되어야 함

○ **(일본)** 일본은 2050년까지 농림수산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도리(MIDORI 또는 MeaDRI)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경로를 이행하고 있음

- 2030년까지의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유용한 기술을 수평적으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 2040년까지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2050년까지 이를 구현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 정부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고자 하며, 연구개발 및 전략 이행 측면 모두에서 진전이 있음
- 한편, 일본은 아시아-몬순 지역의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및 혁신을 정리한 카탈로그를 개발했으며, 이를 일본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함

- (FAO 아태지역사무소) FAO는 과학혁신 전략이 있으므로, 역내 국가들에 대한 FAO의 지원은 동 전략을 기반으로 함
 - 대부분의 노력은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과학 및 혁신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생산, 품질 및 안전 개선, 원헬스(One Health) 문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등과 관련됨
 - 또한, 식량안보 및 영양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자매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음. 매년 아태지역의 식량안보 영양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협업 중
 - 한편, 최근 유엔개발그룹 산하에 푸드시스템 실무그룹을 설립한 바, 역내 모든 국가에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 프로그램 측면의 지원을 계속 제공할 예정
- (FAO - CFS 사무국)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에는 과학-정책 인터페이스인 식량안보 및 영양에 관한 고위급전문가패널(HLPE)이 존재함. 동 전문가 그룹은 CFS의 작업을 지원하여, CFS가 도출한 정책 권고사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보장함
 - 한편, 푸드시스템 조정허브가 하는 일과 관련성이 높고 상호 보완적인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HLPE는 불평등이 식량안보 및 영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보고서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음. 보고서는 6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수준에서 불평등 해결 관련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FAO 케냐사무소) 케냐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식품 폐기, 농업용 토지 부족 등 식량안보 관련 다양한 도전과제가 존재하여, 이를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법이 요구됨
 - 이에, 도시 푸드시스템 평가 도구라는 것을 사용해 지방정부(특히 도시)와 전국의 지방대학과 협력하여 도시 푸드시스템 공간 내에서 격차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증거 생성단계에 연결하고 있음

» 마무리: 토론 요지

- (Shakuntala Thilsted, SAC 의장) SAC는 7월 성과점검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작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공유할 것이며, 국가 컨비너들이 2030 의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

■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7월 성과점검회의에 예정된 과학, 혁신, 기술 관련 세션과 국가 컨비너 권한 강화 세션 등에서 두 행위자 간 상호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함
 -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에 과학을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후 지역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

- 조정허브는 과학, 정책, 사회를 연계하는 과학-정책-사회 인터페이스를 중시하며,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SAC가 거버넌스, 여성, 기후, 생물다양성, 사회학, 경제학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이얼로그 등 논의에서 주요 파트너로 참여해주길 바랍

부록 9.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학습: 젠더 주류화' 다이얼로그

회의 개요

- 배 경 :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푸드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하므로, 국가경로에서 젠더 관련 행동의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목 적 : '여성과 소녀를 고려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주도 하에 성평등과 푸드시스템 전환 간 연계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젠더 관련 정책행동을 강화하고 다중이해관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 모색
-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15:00-16:30(KST)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5:00-15:10	개회 - Maria Helena Semedo, FAO 사무부총장
15:10-15:50	패널 발언: 세계 및 국가 수준의 정책행동 (좌장) Brenda Behan, 유엔세계식량계획(WFP) - Paulina Addy, 가나 농식품부 담당관(농업개발 내 여성) - Meredith Soule,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포용적 개발과장 - Billy Molosoni, 케어인터내셔널(CARE) 말라위
15:50-16:25	전체 토론 (좌장) Nicole De Paula,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안내성 질문> 1. 양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경로 등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정부 및 비국가행위자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국가/기관 (단체)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가? 마무리 - Megha Desai,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인도
16:25-16:30	폐회 - Clara Park, FAO 선임 젠더담당관

개회

- (Maria Helena Semedo, FAO 사무부총장)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는 생산적이고 건강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결정요인임

- 이는 FAO의 농식품시스템 내 여성 지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농식품시스템은 특히 남반구 여성 등 수백만명의 주요 생계수단이나, 여성은 흔히 노동환경이 남성보다 열악하며 토지, 투입재, 금융,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도 남성에 뒤처지는 실정임
 - 또한 국가 정책문서들도 여성의 중요한 역할과 도전과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관한 특별목표와 할당 예산이 적음
- 농업 생산성과 농식품 임금 등에서의 성 불평등을 줄이고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구축과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향한 중요한 경로임
- 2021년 정상회의에서 푸드시스템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려면 더 강력한 젠더 관련 혁신적 정책과 관행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이행가능 행동들이 제안된바 있음
 - ‘여성과 소녀를 고려한 푸드시스템 실천연합’의 주도 하에 이러한 변혁적 행동들이 이행되어 푸드시스템 내 성 평등이 실현되길 기대함

■ 패널 발언

○ Paulina Addy, 가나 농식품부 담당관(농업개발 내 여성)

- 가나 농식품부에서는 여성 지원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젠더 정책을 총괄하는 젠더·아동·사회보호부와 협력 중
 - 글로벌 이슈들을 고려해 업데이트되는 젠더 및 농업개발전략이 있으며, 동 전략을 위해 사업·프로젝트 조직역량 강화, 여성 할당 예산, 수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M&E) 시스템을 검토 중
- 여성농민단체에 농기계 제공해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여성의 트랙터 운전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의약처와 협력해 여성이 생산한 제품에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품 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지적 적정기술 연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을 지원하고 있음

○ Meredith Soule,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포용적 개발과장

- USAID를 비롯한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푸드시스템 등에서의 성 평등과 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음
 - 2023년 예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성 평등을 촉진하는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26억달러가 포함되어 있음(전년도의 2배 이상)
- USAID는 최근 신규 ‘성 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다음 4가지를 목표로 함
 - ▲성별 격차 해소, ▲젠더기반 폭력 근절, ▲여성과 소녀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리더십 역할을 맡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 강화, ▲성 불평등의 근본원인 해결
- USAID는 올해 일명 GROW(Generating Resilience and Opportunities for Women)라고 불리는 ‘여성을 위한 회복력 및 기회 창출’ 프로그램을 발족했으며, 다음 3가지를 우선순위로 함

- ▲여성 생산자의 생산성 및 충격에 대한 회복력 향상, ▲여성이 생산을 넘어선 가치사슬 부문에서 완전히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기후 및 식량안보 위기의 영향을 받는 여성과 소녀들의 고유한 필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인도주의 시스템을 강화

○ Billy Molosoni, 케어인터내셔널(CARE) 말라위

- 말라위는 로마소재기구인 FAO, IFAD, WFP가 EU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중인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젠더 변혁적 접근법에 관한 공동 프로그램(JP GTA)'의 2개 중점국가 중 하나임
- 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금융 포용성 향상을 통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것임
- 그간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여성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코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36%만이 최소 한가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의 동인을 이해하기 위해, 3개 기구와 CARE 말라위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고객이자 사용자로서 여성과 청소년이 지닌 금융행동(financial behaviour)에 대해 살펴보고, 젠더화된 사회규범이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함
- 동 연구를 통해 1) 공식 금융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여성과 청년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젠더 관련 사회규범과 1가지 연령 관련 사회규범을 확인하였으며, 2) 사회규범을 둘러싼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말라위 내 대학, 지역 사회 등 여러 행위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음

■ 전체 토론

》 안내성 질문

1. 양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경로 등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2. 정부 및 비국가행위자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국가/기관(단체)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가?

○ (조지아) 조지아 환경보호 및 농업부(MEPA)는 농업·비농업 부문에서 경쟁력 확보,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생태계 보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하는 2021-2027 농업·농촌개발전략의 조정을 감독하고 있음

- 전략의 행동계획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이 많은 활동(수혜자의 49%가 여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 간 조정위원회(9개 부처, 11개 공공기관 등)가 전략의 이행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공여기관과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다양한 여성중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 농민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농업에 대한 여성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ME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자체의 경제적 비활동 상태인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이들을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정부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함. 전략은 성 평등 측

면에서 여성을 돕고 국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모든 부문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높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함

- 정부는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여성의 비즈니스를 돕고 있으며, 여성과 소녀들이 관리자나 행정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국가의 성 평등을 촉진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 하기도 하며, 이러한 노력 끝에 타지키스탄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마무리: 토론 요지

○ (Megha Desai,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 인력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비공식 경제 부문은 치열한 경쟁, 경제정책과 시장동향 변화 등으로 고용기회가 일정하지 않 음. 또한, 이러한 여성 농민은 적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낮음
- SEWA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의 메시지를 전함
 - ▲정책 및 시스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야 함, ▲여성이 디지털 기술과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및 금융 포용’을 촉진해야 함, ▲여성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조성을 촉진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농업은 여성-물-에너지-농업의 넥서스라고 할 수 있음

■ 폐회

○ (Clara Park, FAO 선임 젠더담당관) 오늘 다이얼로그에서는 성인지적 푸드시스템 전환을 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함

- 먼저 국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약속과 함께, 내부 메커니즘, 관련부처의 역량 등 제도적 역량을 갖추어 젠더사안을 주류화하고, 토지·금융·서비스·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에 관한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규범과 문화규범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남성과 소년을 참여시키고, 농업부가 여성부, 환경부 등 농식품시스템과 연관된 부처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함

부록 10. '국가 컨비너와 함께하는 글로벌 접점' 다이얼로그

회의 개요

- 목 적 : 국가 컨비너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성과점검회의(UNFSS+2)에 대한 최신정보와 질의 응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들의 진전보고서가 회의 전 발표될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 공유
- 일 시 : 2023년 7월 5일(수) 15:00-16:15(KST)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5:00-15:15	(발표 1) UNFSS+2 STM의 프로그램 및 준비사항 등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15:15-15:30	(발표 2)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및 행동촉구서(Call to Action) - Sylvia 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15:30-16:10	상호대화 및 Q&A
16:10-16:15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발표 1] UNFSS+2 STM의 프로그램 및 준비사항 등

- (발표)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 STM 준비과정에서 5개 지역회의에 800여명이 참여, 101개 국가가 자발적 진전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회원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420개의 모범사례를 제출하는 등 푸드시스템 전환을 향한 모멘텀이 형성됨
 - 현재 웹사이트상의 프로그램은 거의 최종안이며, 상당수 세션에 대한 상세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웹사이트에 게시된 인포노트(Information Note for UNFSS+2 Participants)와 국가대표단을 위한 안내사항(Guidance Note for UNFSS+2 National Delegations)을 참고하길 바라며, 특히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함
 - ①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사전에 준비된 일련의 "발표문/연설문"을 듣는 대신 구체

적인 질문과 특정 논의항목에 기반한 활력있는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

- ② 대표단 구성 관련, 장관급 수준의 참여와 더불어 국가 컨비너를 포함하길 바람
- ③ 앞서 언급했듯이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되길 하라며, 각국은 관심 있는 섹션을 조정허브 또는 4SD 관계자에게 알려주길 바람

■ [발표 2]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및 행동촉구서(Call to Action)

○ (발표) Sylvia Ekra,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부국장

- 현재 준비 중인 유엔 사무총장(UNSG)의 보고서는 STM에 대한 주요 인사이트 될 것이며, 푸드시스템 전환에 관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지난 2년간 글로벌 공동체로서 우리가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달성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것임
 - 1장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푸드시스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SDG 정상회의 및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연계하여 설명
 - 2장에서는 국가들이 제출한 자발적 진전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지역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에 관한 진전현황을 살펴봄
 - 3장은 실천연합의 활동 및 과제를, 4장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UN의 노력(조정허브 설립 등)을, 5장은 향후 2개년의 주요 우선순위(현지에서의 전환 촉진, 자원조달 메커니즘 개선 등)와 방향에 대해 다룸
- 폐회 시 발표될 유엔 사무총장의 행동촉구서(Call to Action)는 2025년(UNFSS+4)까지의 다음 여정에서 글로벌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와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
 - UNFSS+2 이후 금년에는 SDGs 정상회의(뉴욕), COP28(아부다비) 등 주요 회의가 예정됨

■ 상호대화 및 Q&A

- (캄보디아) 7월 23일 총선으로 총리 참석이 어려워, 주이탈리아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소규모 국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 예정
- (라오스) 금번 회의에는 농업부분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참석할 예정
- (몰타) 농업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총 3명이 국가대표단으로 참석할 예정
- (EU) EU는 최근 EU의 푸드시스템 전환 경로를 완성하여 제출했으며, EU 대표단은 농업 집행위원 Janusz Wojciechowski를 수석대표로 하고, EU 컨비너도 참석할 예정임
- (오만) 농업부 장관, 주이탈리아 대사, 국가컨비너 등이 참석 예정
- (레바논) 레바논은 5월말에야 푸드시스템 전환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국가경로가 없는 상황임. STM 이전에는 국가경로 프로세스에 대한 개괄적 보고서만 제출하고, 추후 완성해도 되는지 질의함

○ (조정허브) 공통 안내사항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별 장관들이 연이어 연설하는 시간은 없으며, 희망국가에 한해 사전 녹화 영상만 웹사이트에 게재 예정
 - 연설에 포함할 만한 요소들을 각 세션에서 적절히 발언하길 기대
 - 국가별로 어떤 세션에 특히 관심이 있는지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 모든 대표단은 FAO Members Gateway에 참가등록을 해야 함
- 진전보고서 제출 관련,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준비를 위한 진전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미 지났으나, 보고는 계속적 과정으로 언제든지 제출 가능
- 신규 또는 수정된 국가경로 역시 언제든지 제출 가능
-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및 모범사례 모음집은 STM 이전(날짜 미정)에 발간 예정
- 세션별 연사에 대한 정보는 확정되는 대로 웹사이트에 게시 예정

■ 폐회

- (Stefanos Fotiou, 유엔 푸드시스템 조정허브 국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STM에서 국가들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길 기대함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st UN Food Systems Stocktaking Moment 2023 - *Voluntary Progress Review on Country Level Food Systems Transformation*
-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관계부처 합동.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보도자료, 2021. 9. 15
- 농림축산식품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보도자료, 2021. 9. 16
- 농림축산식품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 추진」 보도자료, 2021. 9. 26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나왔다」 보도자료, 2021. 12. 27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발전계획('23-'27)」 보도자료, 2023. 4. 6
- WFP. 2022. *State of School Feeding Worldwide 2022*. Rome, World Food Programme.
-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Coalition. 2023. *2023 Compendium of Actions and Lessons Learned*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United Nations Food Systems Coordination Hub 웹사이트,
〈<https://www.unfoodsystemshub.org/en>〉, 검색일 : 2023. 8. 30
- School Meals Coalition 웹사이트,
〈<https://schoolmealscoalition.org/>〉, 검색일 : 2023. 9. 1
- Sustainable Productivity Growth Coalition 웹사이트,
〈<https://www.usda.gov/oce/sustainability/spg-coalition>〉, 검색일 : 2023. 9. 1
- 통계청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웹사이트,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검색일 : 2023. 9. 4